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연구책임자: 조정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은영(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KINU 연구총서 17-11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조정아, 최은영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SBN	978-89-8479-896-0 93340 북한 사회[北韓社會], 혜산[惠山], 평양[平壤] 309.1111-KDC6 / 301.095193-DDC23 CIP2018000937
가격	9,5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
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 것도
없었다.

-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차례

요약	11
I. 서론	15
1. 연구 목적 및 내용	17
2. 분석틀 및 연구 방법	21
II. 평양 주민의 삶의 공간	31
1. 평양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	33
2. 집	40
3. 일터	60
4. 학교	71
5. 놀이공간	84
III. 해산 주민의 삶의 공간	99
1. 해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	101
2. 집	105
3. 일터	119
4. 학교	131
5. 놀이공간	147
IV. 공간경험의 변화	165
1. 시장화와 공간 분화, 시공간 압축	167
2.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171
3. 젠더화된 공간	178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상의 공간	185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V. 요약 및 결론	191
1. 요약	193
2. 결론	203
참고문헌	2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5

표 차례

표 I-1	면접대상자 인적사항	27
표 II-1	살림집 형태별 세대 분포	47
표 IV-1	전공별, 성별 대학졸업 자격 취득 인구 비율	184

그림 차례

그림 I-1	평양시와 혜산시의 위치	19
그림 II-1	평양시 중심부	35
그림 II-2	창전거리 아파트	44
그림 II-3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과학자 아파트 내부	48
그림 II-4	평양의 다양한 아파트 구조	54
그림 II-5	복도형(외랑식) 아파트 외관 및 구조	56
그림 II-6	타워형(탑식) 아파트 외관 및 구조	57
그림 II-7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80
그림 II-8	문수물놀이장	87
그림 II-9	유원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북한의 청춘남녀	93
그림 II-10	해당화관	96
그림 III-1	혜산시 지도	102
그림 III-2	혜산시 중심부 지도	106
그림 III-3	북한 살림집 구조	109
그림 III-4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북한의 아파트	112
그림 III-5	들놀이 나온 북한 주민	152
그림 III-6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북한 주민	163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경제난 이후 시장 확대와 김정은 체제의 출범이라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를 잘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두 도시, 북한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고 국제적 관문도시인 평양시와 양강도의 도청소재지이자 중국과의 변경무역의 중심지인 혜산시로 관찰범위를 좁혔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을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에서 평양시와 혜산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변화의 공통적 특징을 시장화와 공간 분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젠더화된 공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상의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에 나타난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탈중심화·탈국가화된 다양한 공간의 출현·확대·분화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 사회, 평양, 혜산, 일상생활, 공간 분화, 사적 공간, 젠더화된 공간, 상상의 공간

Abstract

Pyongyang and Hyesan, A Tale of Two Cities : Everyday Living Spac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and Choi, Eun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s in the midst of market expansion and the emergence of the Kim Jong-un regime through the prism of living spaces and spatial experiences. The study narrows the scope of observation to two cities in North Korea, which apparently show the recent changes: 1) Pyongyang, the capital of North Korea, it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enter, and its international gateway, and 2) Hyesan, the center of border trade with China and home of the Ryanggang provincial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daily lives of Pyongyang and Hyesan residents, focusing on their spatial experiences in house, workplace, school and leisure spaces. In addition,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se change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cepts: 1) marketization and the division of space; 2)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3) gendered space; and 4)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maginary space. The recent changes reflected in daily spaces are summarized as emergence, expansion, and division of various decentralized and privatized spaces.

Abstract

Keywords: North Korean Society, Pyongyang, Hyesan, Everyday life, The Division of Space, Private Space, Gendered Space, Imaginary Space

I. 서론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1. 연구 목적 및 내용

1990년대 경제난과 뒤이은 자생적 시장화의 진행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북한의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공간은 파괴되고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전국적인 시장 네트워크의 연결과 시장의 진화는 전에 없던 새로운 특성의 공간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도시 공간 간 연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사회 계층 구조 변동에 따라 주거지의 분화와 위계화 등 도시 내에서 공간의 재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주민 일상의 변화는 생활공간의 구성과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난 이후 시장 확대와 김정은 체제의 출범이라는 상황 속에서의 북한 주민 일상의 변화를 평양시와 혜산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상’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 사회의 일반적인 개인 또는 집합적 존재가 영위하는 생활이며, 특정한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되는 생활이자, 목적의식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의 연속을 의미한다.¹⁾ 일상사의 내용적 중점 두 가지는 ‘반복되는 것’이 지배하는 ‘일상적 활동들’, 인간들이 ‘그들의’ 세계를 ‘전유하는’-그리고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형식들이다.²⁾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공간을 가로지르며 행하는 낱낱의 행위에 의해 우리 인생 속의 시간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된다. 르페브르(H. Lefebvre)에 따르면,

¹⁾ 조정아, “북한의 교육일상연구: 과제와 접근방법,” 박순성·홍민 역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p. 399.

²⁾ 알프 뢰트케, “일상사란 무엇이며, 누가 이끌어가는가?,” 나중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pp. 20~22.

일상생활은 크게 직업적인 일을 하는 시간인 ‘의무의 시간’, 교통, 교제, 수속 등의 일 이외에 잡다하게 필요한 시간인 ‘강제된 시간’, 여가시간인 ‘자유시간’으로 나뉜다.³⁾ 우리들은 다양한 삶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의 시간’과 ‘강제된 시간’, ‘자유시간’을 살아나간다. 인간의 기본적 존재양식인 사회 공간은 텅 빈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며, 다양하고 중층적인 사회관계들이 교차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도시 공간에 관한 다양한 사회학적 접근들은 도시라는 공간이 특정위치를 점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그 공간 내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는 사회적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공간을 분석하는 일은 그 안에 내포된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밝히는 일⁴⁾이기도 하다. 인간은 공간 내에서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공간’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든다.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 집단기억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공간, 인간의 존재 방식과 감정, 정서가 자라나는 토대로서의 공간, 대중이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는 공간, 집단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공간, 창조적 상상력이 삽입되는 공간은 인간이 일차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공간이다.⁵⁾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십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의 일부로 북한 주민들의 일과의 변화를 다룬 연구⁶⁾나, 시장화나 기업 연구의 일환으로 시장 공간이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공장·기업소를 조명한 연구⁷⁾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3) 앙리 르페브르 지음,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2005), p. 122.

4)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 p. 157.

5) 신지은, “일상의 탈중심적 시공간 구조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44집 2호 (2010), pp.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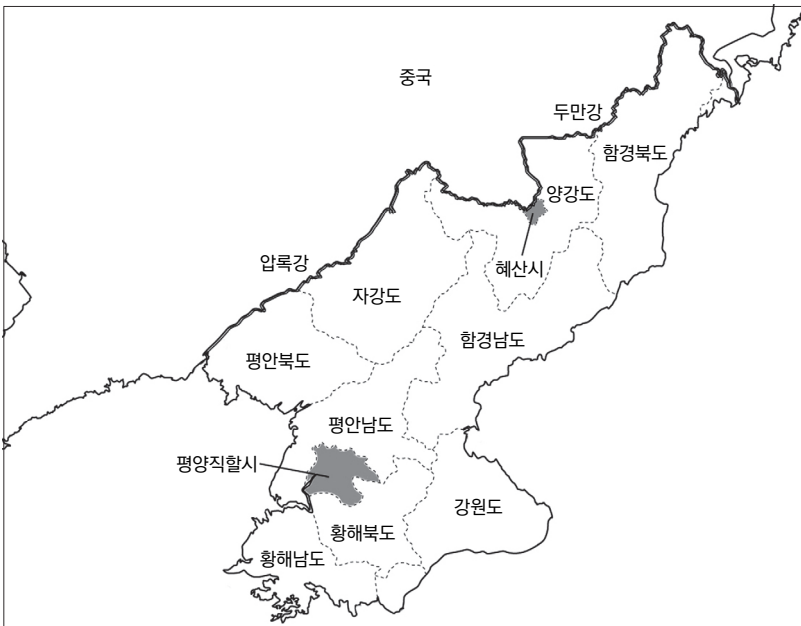
6)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7)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우리의 삶을 엮어나가는 씨줄과 날줄 중의 하나인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을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거주지역과 계층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현지조사나 참여관찰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역적, 계층적 차이를 고려한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을 복원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개의 도시로 평양시와 혜산시에 주목하였다.

그림 1-1 평양시와 혜산시의 위치



평양시는 북한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다. 평양 주민들은 북한의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북한에서 평양이 갖는 상징적 위치는 평양시를 북한의 이념과 사회적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시에 사회주의 이념을 담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그 중심무대는 당연히 평양이었다.⁸⁾ 평양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고층아파트와 잘 정비된 거리, 유원지의 놀이 시설,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평양 시민 등 일부 언론에 비친 평양시의 외형적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평양시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위치한 국제관문도시이기도 하다.⁹⁾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서방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도시는 평양시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강도의 도청소재지인 혜산시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접경도시이다. 수도 평양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혜산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백두산 혁명전적지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변경무역의 중심도시이다. 혜산시는 경제난 이후 북중 밀무역을 통한 상거래 및 외부 문물 유입의 중심지이며,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변화의 바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지역이다. 주민 의식의 변화가 크고 많은 탈북민이 발생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처럼 상징적인 외형적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경 통제에 의한 주민생활의 변화와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상 및 주민의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평양시가

⁸⁾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서울: 효형, 2011), p. 29.

⁹⁾ 김정은 집권 이후 원산 갈마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 개축되었고, 양강도 삼지연비행장, 함경북도 어랑천비행장 등도 국제공항으로 재정비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에 위치한 공항의 국제민항기 정기취항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의 정책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면, 혜산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세계 수준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를 잘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평양시와 혜산시 두 도시로 관찰 범위를 좁혀, 이곳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평양시와 혜산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두 도시 주민들의 삶의 공간과 그 안에서의 일상생활 경험을 비교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양시와 혜산시 각각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이라는 네 종류의 공간에 나타나는 주민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고, 평양시와 혜산시를 관통하는 변화의 공통적 특징을 시장화와 공간 분화 및 시공간 압축,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젠더화된 공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상의 공간이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2. 분석틀 및 연구 방법

가.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적 행위들을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텍스트로 간주하면서, 구체적 개인이라는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미시사의 관점을 취한다.¹⁰⁾ 미시사는 거시적 구조를 더 세밀화하는 모자이크 조각이라기보다는 계량적 방법으로는 거의 접근 불가능한 개개인 혹은 공동체의 인적 관계망과 가치관, 일상적 생존 전략 등을 조망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창문이다.¹¹⁾ 문제는

¹⁰⁾ 광차섭 엮음, 최재호 옮김, 『미시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07), p. 14.

이용가능한 자료의 덩어리로부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반복성과 전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도아르도 그랜디(E. Grande)가 형용모순적 용어로 표현한 것처럼 ‘이례적 정상’과 주변적 사례들이 오히려 사료 입증의 과정에서 보통은 잘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실재의 실마리 또는 흔적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¹²⁾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공간에 새겨놓은 그러한 ‘실재의 실마리’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는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지리학적 접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간경험을 탐색한다. 북한 주민들의 공간경험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회학적 분석틀 및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병두는 기든스(A. Giddens)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이론에 기대어 장소와 관련된 공간을 구조화된 공간/실천적 공간, 생활공간/체계공간의 두 축을 기준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 실천적 공간은 상호행위 차원의 공간으로, 사람들 간의 대면적 관계와 상호행위 과정에서 즉시적으로 형성되며 일련의 행위가 끝나면 사라지는 공간이며, 구조화된 공간이란 구조 차원의 공간으로, 일정한 활동의 지속이나 사회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공간이다. 생활공간(르페브르의 용어로는 ‘구체공간’)은 일상적 생활이 영위되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언어와 생활 규범에 의해 매개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재)생산되는 공간이며, 체계공간(르페브르의 용어로는 ‘추상공간’)은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제·정치적 공간으로,

11) 위의 책, p. 30.

12) 예를 들어, 하층 집단들 중 역사가들이 때로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특히하게도 모두가 “여러 관습과 믿음에 반기를 들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례적이라 규정된 소수집단”이었다. 만약 사료들이 하층 계급의 사회적 실재에 대해 침묵하거나 그것을 조직적으로 왜곡한다면, 진정으로 이례적인(따라서 빈도상으로는 희박한) 사료 하나가 천 개의 천편일률적인 사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밝혀내 줄 수 있다. 까를로 진즈부르크·까를로 보니, “이름과 시합,” 객차섭 역음, 최재호 옮김, 『미시사란 무엇인가』, pp. 51~52.

화폐와 권력에 의해 매개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와 힘이 (재)생산되는 공간을 의미한다.¹³⁾

또한, 공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 공간 또는 공간경험을 구분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태란은 현대사회에서 노동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일상생활공간을 기능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주거, 소비, 여가, 교육으로 구분하여 남한 도시에서 일상생활공간의 차별적 생성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¹⁴⁾ 집단적 시간지리학에서 활용하는 이동 궤적, 친숙한 시공간경험(회합, 상호작용, 휴식의 장소 등), 일상화된 공간 실천 패턴 등의 개념도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과 공간경험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상의 공간에 관한 여성주의 지리학(Feminist Geography)의 시각과 개념을 활용한다. 여성주의 지리학의 일상 공간 연구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활동으로 이루어짐에 주목한다. 여성주의 지리학은 집, 거리, 일터, 학교, 공원, 식당, 술집, 커피숍 등 흔하게 마주치는 ‘바로 지금 여기의 공간’이 의미화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젠더적 차이로 드러나는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둔다.¹⁵⁾ 기존의 지리학이 객관화된 텅 빈 공간을 전제했던 것과 달리, 여성주의 지리학자들은 일상의 공간성을 강조하며 매일의 삶에서 다른 이들과 부대끼며 만들어가는 관계적이며 사회적인 공간에 초점을 맞춘다. 초기 여성지리학자의 연구는 여성다움과 남자다움의 이데올로기적인 구성 및 각 성에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역할에 따라 나뉘어진 성별 분업 및 인식이 일상의 공간인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에서 어떻게 드러

¹³⁾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제8호 (2002), p. 260.

¹⁴⁾ 김태란, “일상생활공간의 차별적 생성과 유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 37.

¹⁵⁾ 안숙영, “젠더의 렌즈로 본 공간, 공간의 렌즈로 본 젠더,” 『로컬리티인문학』 제5호 (2011), p. 307.

나며 재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집중한다. 최근 20년간 여성주의 지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는 재화와 자본, 인구의 활발한 이동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일상적 공간의 특성이다. 이들은 일상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관계를 전지구적 층위, 국가적 층위, 지역적 층위 등의 각기 다른 층위와 연결시켜 고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국가권력뿐 아니라 지역적 정책과 가정, 일터 등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일상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방식과 이를 통해 공간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자원이 제시하는 관점과 개념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활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방식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재구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이라는 네 종류의 공간에 주목한다.

집은 3차원적 구조물인 주택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살림을 살고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의 공간이며, 안락함을 느끼는 휴식과 충전의 공간이기도 하다. 집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가는 집이 위치한 지리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또 개인이 가정 내의 관계망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집의 의미와 기능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 통제 방식의 변화와 급속한 시장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주거공간의 배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가정 내의 사회관계망 속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꾸리는 생활방식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고찰한다.

일터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는 네 종류의 공간 중 북한에서 2000년대 이후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공간이 일터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일터인 공장·기업소 등의 공식 직장과 경제난 이후 새로운 일터로 자리매김한 시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일터 속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존의 시

간을 영위해가는지를 살펴본다. 시장화와 국가권력의 변화가 계층적, 지역적,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일터라는 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공교육은 그 사회가 표방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 지식과 기술을 후속 세대에게 전수하는 행위이다. 성인들이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학령층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 시간과 공간은 사회의 구성원 가치관의 골격을 형성하고 기본적인 행위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시장화의 영향이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새겨넣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국가 주도의 공교육과는 다른 성격의 교육 공간인 사교육 공간의 등장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여가시간을 통해 '의무의 시간'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일과 사회적 관계의 수행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일상적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집 밖의 특별한 장소에 가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여가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즐기기도 한다. 도시에는 취향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발달되어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양시와 같은 대도시에는 지방의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각종 문화·위락시설과 놀이 장소들이 있다. 특히 평양의 문화·위락시설은 김정일은 정권의 애민정책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한편, 시장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나 외부 문화의 유입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전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놀이공간을 스스로 창출해나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정책적 영향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놀이공간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이나 거시담론, 실증적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사회실재의 복합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최근 평양 거주자 10명과 혜산 거주자 9명, 총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양시, 혜산시 거주자와 여타 지역 거주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심층면접 자료 중 관련 내용을 참조하였다.

가급적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로 다양한 집단을 골고루 심층면접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탈북민이라는 면접대상자의 특성상 모집단인 평양시와 혜산시 북한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최근 탈북민 중 평양시 출신 남성은 예외적인 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고위층 관료이거나 해외파견노동자로, 상당한 시간 전에 평양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비교적 탈북이 용이한 혜산시 거주자와는 달리, 평양시 거주자는 상당한 경제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양에 거주했던 면접대상자의 경우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면접대상자들이 평양시와 혜산시의 주민을 ‘표준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면접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1-1 면접대상자 인적사항

코드	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탈북연도	북한직업	면접일시
사례_평양 1	여성	평양시/ 청진시	60대	2004년	교수	2017.04.19.
사례_평양 2	여성	평양시	20대	2015년	대학생	2017.04.20. 2017.04.27.
사례_평양 3	여성	평양시	50대	2013년	노동자, 장사	2017.05.02.
사례_평양 4	여성	평양시/ 해산시	20대	2015년	노동자	2016.07.09. 2017.05.18.
사례_평양 5	남성	평양시	50대	2014년	외화벌이	2015.07.23. 2017.05.24.
사례_평양 6	여성	평양시	50대	2015년	노동자	2017.06.20.
사례_평양 7	남성	평양시	20대	2014년	군인	2017.07.07.
사례_평양 8	남성	평양시	40대	2015년	군인	2017.07.14.
사례_평양 9	남성	평양시	20대	2016년	연구직	2017.07.26.
사례_평양 10	여성	평양시	30대	2015년	주부	2017.10.13.
사례_해산 1	남성	해산시	30대	2013년	교원	2017.05.09.
사례_해산 2	여성	해산시	40대	2016년	사무직, 장사	2017.05.12.
사례_해산 3	남성	해산시	40대	2016년	노동자, 장사	2017.05.17.
사례_해산 4	남성	해산시	20대	2016년	대학생	2017.05.20.
사례_해산 5	여성	해산시	50대	2016년	장사	2017.05.23. 2017.06.04.
사례_해산 6	남성	해산시	40대	2016년	노동자	2017.05.19. 2017.07.03.
사례_해산 7	여성	해산시	20대	2016년	학생	2017.07.25.
사례_해산 8	남성	해산시	60대	2014년	노동자	2016.04.10. 2017.08.08.
사례_해산 9	여성	해산시	30대	2016년	장사	2017.08.18.
참고사례_평양 1	여성	평양시/ 청진시	50대	2014년	장사	2015.07.16.
참고사례_평양 2	여성	평양시/ 신의주시	30대	2014년	외화벌이	2015.07.20.

코드	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탈북연도	북한직업	면접일시
참고사례_평양 3	남성	평양시	40대	2014년	노동자	2016.03.21.
참고사례_해산 1	여성	해산시	40대	2013년	개인교사	2015.06.25.
참고사례_해산 2	여성	해산시	50대	2014년	장사	2015.07.03.
참고사례_해산 3	남성	해산시	30대	2014년	노동자	2015.07.07.
참고사례_해산 4	남성	해산시	60대	2014년	노동자	2016.04.06.
참고사례_해산 5	남성	해산시	40대	2013년	교원	2015.06.06. 2015.06.20.
참고사례_해산 6	남성	해산시	40대	2014년	의사, 외화벌이	2016.04.18.
참고사례_해산 7	여성	해산시	20대	2015년	대학생, 장사	2016.07.09.
참고사례_해산 8	여성	해산시/ 청진시	50대	2015년	교원, 개인교사	2016.08.06.
참고사례_해산 9	여성	해산시	60대	2011년	부양	2017.05.11.
참고사례_해산 10	여성	해산시	40대	2014년	유치원교원	2017.05.25.
참고사례_함남 1	여성	함경남도 군 지역	20대	2016년	가내수공업	2017.07.07.
참고사례_함북 1	남성	함경북도 시 지역	30대	2015년	교원/장사	2017.07.17.
참고사례_함북 2	여성	함경북도 군 지역	50대	2015년	교원	2016.10.10.

심층면접 대상자는 지역의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 및 연구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소개받았다. 또한 초기에 면접을 진행한 면접 대상자에게 동향 출신 탈북민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참가의사를 타진한 후 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생애사적 인터뷰와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주로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회의실에서 두세 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일부 면접자의 경우 총 두 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생애사, 거주지역에 대한 생각, 주요한 공간경험 등 개괄적인 초기질문을 던진 후 면접대상자의 구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추가질문은 각 면접대상자의 생애경험과 초기질문에 대한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공통적인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선생님이 태어나서 한국에 오시기까지 살아온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선생님이 북한에서 사셨던 곳(평양, 혜산)은 어떤 곳인지 말씀해주세요.
- 선생님의 집과 가정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선생님이 하셨던 일과 직장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선생님의 학교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최근 재학생 또는 교사)
-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면접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을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코딩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면접을 실시하거나 전화로 간단한 보충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진 간에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 과정을 공유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심층면접 이외에도 북한의 공간문헌, 북한 사회 동향 관련 자료를 참조하고, 탈북민 관련 단체 등에서 수집·보고하고 있는 북한 주민생활 및 사회 동향 관련 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의식 및 가치관, 행위양식을 분석하였다.

II. 평양 주민의 삶의 공간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1. 평양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

평양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중심지이며 ‘혁명의 수도’이다. 평양은 2016년 기준으로 1,747km²의 면적¹⁶⁾에 행정구역상 18개 구역과 2개 군을 갖고 있다. 평양의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342만 4천 명으로, 북한 전체 인구(2,421만 4천 명)의 14.1%에 해당한다.¹⁷⁾ 북한 제2, 제3의 도시인 함흥시(2008년 기준, 약 66만 9천 명), 남포시(2008년 기준, 약 36만 7천 명)의 인구¹⁸⁾와 비교해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크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평양의 인구증가율은 연 0.85% 수준으로, 북한 전체의 인구증가율(0.61%)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와 직할시 중 가장 높다.¹⁹⁾ 인구밀도는 1,402명/km²로 북한 전국 평균(216명)의 약 6.5배 수준이다.²⁰⁾

평양의 도시권은 중심도시권, 준위성도시권, 위성도시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중심도시권은 중구역, 모란봉구역, 선교구역, 서성구역으로, 당정기관과 외국공관들이 밀집한 정치, 행정 기능의 중심지이다. 준위성도시권은 보통강구역, 평천구역,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낙랑구역, 사동구역, 동대원구역을 포함하며, 주거 및 경공업지구이자 평양시의 생활필수품 공급지이다. 위성도시권은 삼석구역, 용성구역, 형제산구역, 만경대구역, 역포구역, 순안구역, 은정구역의 7개 구역과 강동군, 강남군의 2개 군으로 이루어진 외곽지역으로, 주로 중공업과 농목축업

¹⁶⁾ 통계청,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서울: 통계청, 2016), p. 47.

¹⁷⁾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yongyang: 2015), p. 21.

¹⁸⁾ United Nations Statistic Division,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Statistic Division, 2010), pp. 18~22.

¹⁹⁾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21.

²⁰⁾ *Ibid.*, p. 25.

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²¹⁾ 평양시에서도 실제 시가지화된 곳은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낙랑구역,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등 총 11개 구역이며, 시가지 면적은 약 305km² 정도이다.²²⁾ 시가지 구역은 전체 면적의 약 17% 정도에 불과하며, 주로 중심도시권과 일부 준위성도시권이 여기에 해당한다.²³⁾

평양시의 중심부는 다음의 <그림 II-1>과 같다. 평양시 중심부는 본평양, 동평양, 서평양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평양은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을 포함하는 곳으로,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다. 서평양은 본평양 서쪽의 만경대구역을 칭하는데, 만경대혁명사적지 조성 외에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나, 1989년 제13차 세계청소년학생축전 개최를 준비하면서 만경대 유원지, 고층아파트, 집단체육시설이 건설되고 대규모 신시가지로 변모되었다. 동평양은 대동강, 동대원, 선교구역을 포함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1960년대부터 기성시가지의 재개발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외국인 주거지, 대학, 병원 등을 건설하였다. 이 지역 역시 1980년 이후 대동강구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로 활발히 개발되었고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다.²⁴⁾

21)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 서울연구원, 2015), p. 32.

22)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p. 25. 시가지화된 지역의 면적은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p. 14의 표를 기초로 계산.

2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p. 93의 내용을 연합뉴스 엮음, 『북한연감, 2016』 (서울: 연합뉴스, 2016) p. 1136, <http://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2016/B/05_08.pdf> (검색일: 2017.09.02.)의 최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24)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pp. 32~33.

그림 11-1 평양시 중심부



자료: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 서울연구원, 2015), p. 155.

북한 내에서 평양이 갖는 ‘혁명의 수도’로서의 의미는 단순히 면적이 나 인구밀도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²⁵⁾ 북한 주민들에게 평양은 ‘조선의 심장’, ‘김정은을 모시고 사는 도시’로 인식된다. 이는 평양이

정권기관과 금수산 태양궁전 등 정치적 상징물이 밀집해있는 북한 정치의 중심지라는 의미 이상이다. 평양은 북한 체제와 통치 이데올로기 수호의 최종전선이며 평양 주민들은 정권 유지의 핵심세력이자 결사대이다. 북한에서 평양은 정치사회적인 최종방어지이자 모범도시인 셈이다. ‘최종방어지’로서 평양의 위상은 평상시의 입출입 통제와 유사시의 ‘물리적 봉쇄’를 통해 드러난다.

주민들한테 (평양의) 의미라는 거는 한 마디로 수도임과 동시에 우상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은이를 모시고 사는 도시다, 뭐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평양주민들 자체가 인식을,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 조선의 심장은 평양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중략) 평양은 지도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도, 지방에 내려가서 다 지도... 모든 중앙이 거기 다 붙어있으니까, 중앙기관이 평양에 다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도도시다. (사례_평양 8: 5, 20)²⁵⁾

평양은 최종방어지. 평양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의식이 바뀌면 북한 전체가 바뀌어요. 평양은 진짜... 성흥열이라고 아세요? 그거 돌 때도 엄청났어요, 평양에. 평양사람이 지방 내려왔다 올라갈 때도 그 지방 내려왔던 그 진료소에서 이 사람 확인서를 떼줘야 돼요. 그래야지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초소에서 이 걸... 그러니까 수뇌부 보위. 전염병이 돌아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 아니고서는 살지 못할 곳이라고. (사례_평양 7: 23)

평양은 뭐... 너무 이렇게 봉쇄된 구역...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또 밖에 나갈 수 없고. 일단 평양시 안의 사람들은 살리자, 뭐 이런. 네, 이런 의지가 있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방봉기는 나올 수 있어도 중앙, 이거 수도에서만큼은 그런 시위 일어나고 그런 거는 뭐 건잡을

²⁵⁾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p. 28.

²⁶⁾ 구술자 사례_평양 8의 구술 녹취록 중, 5쪽과 20쪽에서 인용한다는 의미이다. 녹취록 안의 내용 중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부연 설명, 중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말이다.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고. 진짜 평양만은, 다른 걸 다 죽이는 한이 있어도 평양만은. 북한에서 다 죽이고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같이, 국민들은 다 죽이고 이거 평양시민들만 딱 살리자, 그런 지역이잖아요. (사례_평양 9: 43)

‘심장’이자 ‘지도도시’이자 ‘최종방어지’인 평양의 거주민들에게는 그 지위에 합당한 특혜가 주어진다. 그러한 특혜는 여타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의 물질적 풍요이다. 물론 평양의 모든 주민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은 최근 중국과의 상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국경지역 주요 도시의 주민들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양의 주민들에게는 단순히 월수입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적 풍요로움과 물질문명의 혜택이 주어진다. 북한의 다른 어느 도시나 지역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평양 출신의 어느 탈북민은 ‘맨하튼’이라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평양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요. 전철, 호텔, 식당, 수영장도 있고. 평양시민권이면 전국 각지, 외국도 갈 수 있어요. 자식을 좋은 데서 공부시킬 수 있고. (중략) 평양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 공기가 좋고, 경쟁이 없고, 서로 막 치열하게 잘살려고, 돈 벌려고 하지 않으니까. 평양은 맨하튼이에요. 아름다운 도시. 공기가 좋잖아요, 평양이? 사람이 많지 않지, 물놀이장 있지, 승마장 있지, 평양에. (중략) 평양은 들어오기 힘든 곳이고, 누구나가 살 수 있는 서울이 아니지. 특혜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애를 써도 안되는 게. (사례_평양 6: 15~16)

고층 아파트와 각종 문화시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원지와 놀이시설, 무궤도전차와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 각종 대형 식당을 비롯한 상업시설은 평양이라는 도시의 문명됨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타 지역 사람들에게 평양은 ‘지구에서 보는 달’이다.

촌에서는 뭐 무궤도(전차)가 있어요? 인프라가 한심하니까 그저 농촌처럼 살았는데, 평양 오게 되면 좀 눈이 튼 거죠. 한 마디로 거리가 희한하고, 지하철도 타보고, 옥류관 가서 국수도 한 번 먹어보고. 뭐 이런 게 한 마디로 우리 보게 되면, 여기서서는 그런가보다 하지만은, 해외여행이랄까요. 이런 별세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죠. (사례_평양 8: 6)

지방사람들은 뭐 사실, 달이 가보면 황폐한 그 땅에 뭐 볼게 없겠지만 못 가는 지구에서 지구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평양에 들어갈 수 없게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평양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례_평양 5: 3)

평양 주민들은 ‘별세상’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평양 주민들은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을 ‘지방사람’이라고 통칭한다. 평양 주민들이 보기에 ‘지방사람’들은 평양 주민들과 외모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 평양이라는 도시공간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와 물질적 풍요로움은 그 공간에 거주하는 평양 주민의 말투로, 옷맵시로, 세련된 헤어스타일로 체화되고 표현된다. 평양 주민들은 평양이라는 거주환경이 거주민들의 인식수준과 사고의 개방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고향이라는 좁은 지리적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지방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와 관련해서도 목전의 일만을 생각하는데 비해, 평양 사람들은 ‘트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먼 미래와 직업을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사람이다, 우선 얼굴이 까매요. 얼굴색에서 차이냐고 그 다음에 옷 입은 데서 차이냐고. 뭐 일반로동자다 해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평양로동자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방로동자다, 이 정도로 되는 건 현저하게 차이... 사람들이 시각으로 알리는 거죠. 옷이, 입은 옷이 좀 다르고. (중략) 척 보면 사람들이야, 지방사람이라는 거 확연히 알려요. 저 평양사람들은 사 입어도 자기 맞는 거 입고, 아니면 요런 거 다 보고 고쳐서라도 입고 하는데, 지방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나니까 얼.

굴색에서 알리지, 머리 깎는 데서 알리지. (중략) (머리 모양은) 각지는 거 좋아하는데 각을 쳐주는 것도 잘 아주 우아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털도 나는 거 여기까지 나 오고 여긴 안 나오잖아요? 평양에서는 여기 딱 맞춰서 거기만 딱 잘라주고는 그 밑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기 아주 자연스러운데, 지방사람은 아주 그 각을 살리겠다고 좀 올라가서 딱 자르다니까 자랄 때 보게 되면 층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보고. 미묘한 차이로. (사례_평양 8: 9)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만큼 변하잖아요. 평양은 환경, 보이는 환경이 현대적이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괜찮죠. 서울 어느 거리도 좀 갖다 댈만한 그런 거리들이 있잖아요. 평양도. 보는 만큼 자기 사고가 트이고 해요. 지방사람하고 평양사람 갖다 얹혀 놓고 대화를 시키면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거든요. 지방은 사람들은 본 게 산, 마을회관, 자기네 집. 뭐 그러니까 사고가 트일래야 트일 수가 없고 오직 벌어먹고 사는데 급한데. (중략) 평양은 미래를 생각해요. 지방은 (바로) 앞을 생각해요. 평양은 자기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런 미래를 보거든요. 직업, 앞으로의 그런 자기 진로, 이런 거를. 여기 한국처럼.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게 그렇게 상상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길도 없고, 평양에 와야지만 열릴 수 있고. (사례_평양 7: 24)

평양 거주는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대신, 남다른 책임과 이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감수해야 할 공포를 수반한다. 여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각종 정치학습과 생활총회²⁷⁾ 등의 참석률은 높고, 남한 영상물 시청 등 북한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뿐만 아니라, 마을청소와 주거지역 환경미화 등 일상생활상의 규율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도록 잘 준수하여야 한다.

²⁷⁾ 생활총화란 북한 주민들이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소속 조직을 매개체로 주, 월, 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 415.

평양사람들은 수도에서 산다는 그 금지, 그 다음에 뭐 각종 규율이 적용돼 있다. 내가 평양 살면서 인민반별로 주민들이 자체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청소하고도 앞에 기본도로 주변에,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세대마다 도로에 구간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을 청소해야 돼요. 이런 규율적응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지방에는 있지만 그 도로 정리할 게 뭐 있어? 다 흠인데. (중략) (지방은) 다 하라고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안 하는 거죠. (사례_평양 8: 7)

대부분의 평양 주민들을 일상의 규율과 통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평양주민으로서의 자부심만이 아니다. 규율과 통제를 어긴 대가로 주어질 추방의 공포는 매우 강력한 통제의 기제가 된다. 추방의 공포는 평양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즉 평양에 사는 자부심이 클수록 평양에서 추방되어 지방이라는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공포도 클 수밖에 없다.

평양사람들도 어떤 거는 있냐면 “지방에 나가면 죽는다.” 이 인식은 철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양의 규율을 세우는 중요 수단 중 하나가 추방. 걸리면 추방이다. 이거 추방은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사례_평양 5: 3~4)

평양 사람들은 평양에서 지방에 내려가면 아예 죽는 줄 알아요. 지방에는 진짜 못 살 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_평양 4: 51)

2. 집

가. 주택 매매와 거주지 분화

북한 당국은 살림집을 주민생활 안정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보고 1세대에 1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가의 무상 배급제도가 붕괴되었고, 북한

주민들이 돈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주택은 ‘투자’와 ‘매매’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주민들이 당국에서 배정 받은 주택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 주택 매매는 2000년대 들어서 점차 확대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에는 북한 당국의 주택건설 사업과 그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경제적 상류계층의 주택 매매 욕구가 맞물리면서 활성화되었다.²⁸⁾ 현재 북한에서 주택 매매는 여전히 불법이고 주택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소유지만,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비법적 방법으로 ‘주택이용허가증’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을 주고 구입한 주택의 소유를 인정받는다.²⁹⁾

살림집의 가격은 평양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 평양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징표가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북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은 정치적 지위,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차원의 공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치자본은 정치적 지위를 통해 물질적인 것을 점유, 활용,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의미하는데, 북한에서 이러한 정치자본의 소유 수준에 따른 공간적 구분과 위계는 1990년대 이전부터 강하게 작동해왔다.³⁰⁾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장이 공식화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 활동에 대한 허용폭이 커지면서 경제자본과 주택 구매 및 주거형태와의 상관관계가 밀접해졌다.³¹⁾ 특히, ‘돈주’³²⁾라고 불리는, 경제적 능력으로 ‘정치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의 중심부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이전

28) 이철, “북한의 주택매매에 관한 연구: 경제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 4.

29) 위의 글, p. 3.

30)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08.

31)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p. 309.

32) 돈주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시장적응능력을 토대로 계층이동을 이룬 신흥 부유계층을 일컫는다.

시기에 주로 출신성분³³⁾이나 직업에 따라 결정되었던 거주지가 이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평양시에서도 중심지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전기와 물, 온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집값이 오르면서 신흥 부촌으로 부상했다. 예를 들면, 평천구역은 원래 노동자구역이었지만, 중구역에서 가깝고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어 난방이 잘 되어 부유층 거주 지역이 되었다. 반면에 1980년대 말에 완공된 만경대구역의 체육촌 주택단지는 초기에는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배치를 받아 비교적 좋은 동네였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중앙난방시설이 열악하여 중하급지역으로 전락했다.³⁴⁾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비싼 순서는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과 보통강 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서성구역, 대성구역 순이다. 교외 쪽으로 나갈수록 중구역과의 가격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³⁵⁾ 2015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한 탈북민(사례_평양 6)은 평양시의 구역별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구역은 간부들 사는 곳이었죠. 왜냐면 중구역 쪽으로 전기가 잘 오니까.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중구역으로 가지. 다른 곳보다 세 배가 비싸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원래 중구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죠. 거기는 공공기관이 많다고 보면 돼요. 서민들이 많지 않아요. 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중구역에 있어요. 고려호텔, 사우나, 창광원, 영화관 같은 게 있고,

³³⁾ 북한은 1970년 주민재등록사업 시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복잡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관리해왔으며,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불법월경, 행방불명 등 각종 일탈행위를 반영하여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의 3계층 45개 부류로 재조정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2017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p. 231~232.) 북한사회에서 ‘출신성분’ 또는 ‘토대’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계층 구분은 대학진학, 직업배치 및 승진 등 사회적 기회 및 지위 배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³⁴⁾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81~82.

³⁵⁾ 이철, “북한의 주택매매에 관한 연구: 경제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p. 67.

교통도 좋고, 의대도 있고, 행사장도 많아요. 중구역 다음으로
 는 평천구역. 전기가 중구역 다음 두 번째로 잘 오거든요. 그
 리고 교통이 편리해요. 평양시 가운데 있거든요, 중구역 옆에.
 그리고 온수가 나와요. 중구역은 전기가 하루에 다섯 시간 정
 도 나와요. 전기가 없어서 병난 여자들이 많지. 중앙당 사택
 들, 호텔, 창광원은 24시간 들어오겠지. 새로 들어선 아파트
 거리는 전혀 안주진 않지. (중략)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 구
 역, 모란봉 구역 순으로. 모란봉이 원래 중구역보다 좋았는데,
 김일성일 때. 산 옆이니까 공기 좋고, 24시간 전기가 들어오
 고, 공장이 있었으니까. 모란봉은 상업도시여서 상점거리들이
 있었어요, 쇼핑거리처럼. 모란봉에 재일교포들이 많았는데, 일
 본 상품이 많다가 중국 상품이 많이 생겼어요. 전기가 안 오면
 서부터 떨어졌죠. 전기 때문에 중구역이 더 좋아졌고. 평천은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중구역 옆에 있으니 교통이 좋아요. 각
 자 유리한 게 하나씩 있어요. (사례_평양 6: 8~9).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화와 함께 북한 당국에 의해 대규모 아파
 트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평양의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
 다. 평양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몇 년간 아파트와 상가, 편의시설 건설
 붐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6월에 창전거리 주택단지, 2013년 9월에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아파트, 2014년에 위성과학
 자 주택지구와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아파트, 2015년에 미래과학자거
 리, 2017년 4월에 여명거리가 완공되었고, 시내 하천정비와 녹화사업도
 진행되었다. 창전거리, 여명거리 등지에는 서양식 고층건물들이 들어섰
 다. 북한 당국은 2017년 여명거리 준공식에 외신 취재진을 초청하여 평
 양시 건설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 1년여 만에 초고층 건물군
 의 아파트를 완공한 것을 두고, 북한 당국은 ‘만리마속도’를 창조했다고
 하면서 이를 건설사업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림 11-2 창전거리 아파트



자료: 연합뉴스 제공.

국내 언론매체가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데 따르면, 급속한 시장경제의 성장 속에, 평양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0년 1㎡당 3천 위안에서 2016년 말 1㎡당 5천 위안으로 6년 동안 66.7% 상승하였다.³⁶⁾ 평양 중심부의 아파트 한 채가 수십만 달러를 호가하면서 아파트 건설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개인 주택을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국의 주택건설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 매매가 성행하게 된다. 아파트 건축과 분양은 아파트를 지어 파는 건축업자, 자금을 제공하는 돈주, 아파트 건설 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 당·군·행정기관이나 기업소, 노동력을 가진 군부대와 건설기업소 등이 연합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권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양에서 상류층 생활을 했던 한 탈북민(사례_평양 8)은

³⁶⁾ “북한, 평양 아파트 가격 6년새 67% 상승,” (중국 북경신보 2017년 5월 11일자 인용기사) 『연합뉴스』, 2017.05.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1/0200000000AKR20170511169300097.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9.11.).

2000년대 말에 지어졌던 평양시 아파트 건설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같이 000 앞에다가 A(행정기관)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힘이 없는 거예요. A가 암만 그 계획을 줘도 자기네 건물 짓는데 세멘트...(확보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단위 하나 물어야 되겠는데, B(군기관) 물어야 되겠다 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김정일한테 보고를 탁 해가지고 “A하고 합동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기관 사람들의 집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김정일의 사인 딱 받았죠. 그렇게 하고 A는 자기네 땅을 받고 B는 거기 건설해 주는 거예요. 건설하면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는 건설하는 게 아니고 건설자재를 대고, 건설은 C(또 다른 군기관) 건설 또 붙었어요. C가 건설부대 있으니까 C, 건설을 또 잡아댕겼죠, 우린 자재 대주고. 그러니까 야네는 해가지고 군인들은 와서 건설하고. 병사들은 자기네 집 못 갖잖아. 그러니까 C 군관들이 자기 또 집 갖는 거지. 그게 다 올라간다 하게 되면 받는 건 얼마고 파는 건 또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할 때, D간부 같은 사람은 좋다고 또 거기다 돈 내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세대 팔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 또 들여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20세대 중에 우리 15개, A도. 어쨌든 한 20세대 팔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또 뭐냐면 거기 원래 살던 집은 헐고 지었으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도 준 거예요. (사례_평양 8: 18~19)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이며, 농촌과 도시를 가르는 심리적·물리적 경계선이다.³⁷⁾ 평양 중심구역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평양 중심구역의 고층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주택 사용권을 개인 간에 매매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거주지 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부유층 거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빈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³⁷⁾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p. 310.

악순환이 이어진다.

평양의 중심구역에 산다고 해서 모두 부유층은 아니며, 중심구역의 토박이들 중에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이들도 있다. 중심구역의 주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유층이 늘어나면 힘이 없는 사람은 뽑아 내치는” 일이 일어난다(사례_평양 5).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래 그 지역에서 살았던 원주민은 주택 철거 후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얻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생활의 불편함을 겪게 되기도 한다. 평양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대부분의 시간은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층에 입주할 경우 출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가스통이나 석탄, 나무, 쌀 등의 연료와 식료품을 지어나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3층 이상의 중층은 건설에 관여한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에 할당되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고층은 그 지역의 원주민에게 배정된다고 한다(사례_평양 10). 또한, ‘땅집’이라고 불리는 단층주택에서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거나 닭이나 돼지를 키워 생계를 유지했던 원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된다. 이러한 생활상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원주민 중에는 배정받은 아파트를 팔고 외곽 지역의 단층집으로 이사를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사례_평양 5).

나. 평양 부유층의 살림살이와 가사노동 서비스의 분화

북한 정부와 유엔인구기금이(UNFPA) 공동으로 조사한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에 따르면, 다음 <표 II-1>과 같이 북한 주민 전체 세대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25%에 불과하지만, 평양의 경우는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표 II-1 살림집 형태별 세대 분포

지역 가구형태	1등 1세대	1등 다세대	아파트	기타	계
평양	11.8 %	24.8%	62.9%	0.5%	100%
북한 전역	32.8%	41.7%	25%	0.5%	100%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yongyang: 2015), p. 12.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졌던 1970~1980년대에 아파트는 ‘영웅적 인민’에게 주어지던 가장 큰 포상으로, 아파트 거주는 신분 상승을 의미했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삶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³⁸⁾ 그러나 지금 현재 평양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거지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방 세칸과 큰 전실,³⁹⁾ 수세식 화장실⁴⁰⁾을 갖춘 고급신축아파트이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부유층과 일반 주민들 간의 경제적 차이는 급격히 벌어졌고, 이는 집의 형태뿐 아니라 살림규모와 살림 사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골격이 지어지면 입주민이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취향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한 후 입주한다. 미장과 도배, 장판뿐 아니라 부엌과 욕실의 타일까지 입주하는 사람이 자재를 대고 직접 일꾼을 불러서 설비한 후에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갖춰서 이사를 들어간다. 주민들은 이를 ‘꾸리기’라고 표현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은 ‘꾸리기’를 하지 않고 입주한 후 살아가면서 조금

³⁸⁾ 홍민, “북한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 정치-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북한도시연구팀 엮음, 『함흥과 평성-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pp. 146~147.

³⁹⁾ 전실은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서는 곳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거주자는 이곳을 통해 방과 부엌, 화장실로 드나든다. 전실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0.3~1평 정도이다. 이철, “북한의 주택매매에 관한 연구: 경제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p. 97.

⁴⁰⁾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38.

씩 살림살이를 갖춰나간다. 반면, 최근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류열풍이 확산되면서 부유층에서는 한국식으로 주택 내부를 꾸미는 집이 늘고 있다.

그림 11-3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과학자 아파트 내부



자료: 연합뉴스 제공.

평양시는 난방과 전기, 온수가 잘 들어오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신축아파트일지라도 대부분의 가정은 베란다에 석탄 난로를 두고 겨울을 보낸다.⁴¹⁾ 또한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중국산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밝힌다. 북한 전체 주민 중 취사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에 불과하지만,⁴²⁾ 북한의 중산층들 사이에는 액화석유가스(LPG)가 빠르게 보급

⁴¹⁾ 2014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의 56.5%가 석탄난방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 거주지역 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석탄난방이 73.3%로 높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나무난방이 75.2%로 가장 높다(다중응답). *Ibid.*, p. 16.

⁴²⁾ 2014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의 취사연료형태를 보면, 56.0%가 석탄을, 52.6%가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다중응답). 도시지역에서는 석탄을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평양 주민들은 새벽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대형 가스통을 들여 가스콘로로 음식을 조리한다. 수도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돈이 있는 주민들은 식수를 지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물을 파는 물장수에게 물을 사먹고, 물차를 불러 개별 가구의 물탱크를 채운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세 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50대 남성 탈북민(사례_평양 5)은 자신이 살림살이를 맡아했지만,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제습기, 냉풍기 등 없는 가전제품이 없을 정도로 갖추고 살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했던 50대 여성 탈북민(사례_평양 6)도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온열기, 전기포트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했다.

한편, 평양시 외곽지역의 단층집 지구에는 도시빈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에는 전기와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한 탈북민(사례_평양 5)은 자신이 목격했던 평양의 빈민가 주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런 사람들이 종당에는 집을 팔고 단층으로 또 내려가요. 그 단층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진촌, 동대원 쪽으로, 동평양쪽으로 보면 무진촌 그 동독에. 네, 여기 단층 몽땅, 이 송신역 이쪽으로 몽땅 단층인데, 이 독에 쪽 이 메뚜기장이 서는 거예요. (중략)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장이라고 따로 있는데 시장에 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층. 이제 거기 사람들은 네, 생활이... (중략) 찾아가서 본 집이 동평양경기장 옆에 있는 단층집인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예요. 그 집엘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선반이 이렇게 낮은데, 그런데 부엌이 따로 없고, 방 한 칸에 연탄 가마를 걸고 거기서 뭘 끓이고. 들어가니까 벌써 겨울인데 추운 방에 피창문을 열어

72.8%에 이르는데 비해, 농촌 지역에서는 석탄은 28.9%에 불과하고, 나무를 사용하는 비중이 84.3%로 가장 높다. *Ibid.*, p. 16.

놓은 상태에 가스 냄새가 확 나요. 그런 상태에 불이 안 들어가는 데니까, 중구역이 아니니까 전지로 이렇게 밝혀 놓고. 온돌도 못 나서 그 뭐 이렇게 흡으로 해 놓고, 레자 조각 오물장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깔고, 거기다가 담요 펴고. (사례_평양 5: 30~34)

가정의 살림살이 방식이 계층별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업 이용 여부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타인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적 고용은 가사노동 부문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북한에서는 타인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주고 임금을 받는 가사도우미와 보모가 등장했고, 음식 배달, 장보기 배달, 세탁업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조직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가사노동과 관련된 신종 서비스업종의 창출을 두고 한 여성 탈북민(사례_평양 6)은 “자기 특기를 살리면서 살 수 있는 자기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표현한다.

다양한 직업이 생겼지. 돈 잘 버는 사람 밑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같이 가는 거죠. 잘사는 사람이랑 못사는 사람이. (중략)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미로 쓰는 걸 참 취라 해서 활성화가 안 됐어요. 내가 요리했잖아요? 집에 들어왔잖아요? 잘사는 사람한테 요리해주면서 사는 거지. 다 있지. 보모도 있고 다 있지. 모든 분야, 자기가 종사한 직업, 자기가 잘하는 것 한가지로 돈 버는 거지. 여기보다 더 자본주의지. (중략)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가 할 양대로 자기 특기를 살리면서 살 수 있는 자기 공간이 있지요. (사례_평양 6: 13)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주부들은 계약 형태로 일정기간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가사도우미를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는 사이’인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고기, 기름 등의 식료품을 제공하거나 물품에 약간의 돈을 얹어주고 가사노동을 제공받기도 한다.⁴³⁾ 면담자 중

가사도우미에게 가사노동을 맡겼던 평양의 부유층 주민들은 이런 형태의 사적 고용을 북한 당국이 말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보기보다는 가난한 이웃이나 친척들에 대한 일종의 자선행위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 옆집에 약간 서른살 넘는 여자가 있었는데, 머저리는 아 닌데 똑똑하지 않은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장마당 나가서 잡화장사 있잖아요. 건전지, 때수건, 치약칫솔 팔고, 비누 팔고 그런데, 그거 배낭에다가 매일 메고 나가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마다 또 그거 메고 들어와요. 딸이 암만 직장 다녀 일해야 뭐해? 돈을 안 주고 배급을 안 주고. 그런데 집 앞 청소하라고 쪽지가 오면 그 쪽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겠다고. 무거운 짐 있잖아요. 김장철에 배추랑 무 그거 다 나르고. 그거 시켰거든요. 돈은 안 주고 먹을 거 주면 좋아해요. (중략) 일을 해주고는 또 할 거 없냐고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내가 이사갈 때, 사람들이 “야, 너네 이사 가면 저 집은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런 정도로 불쌍해가지고. (평양_사례10: 41~42)

그러나 가사도우미를 쓰는 행위는 북한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고용관계는 친척이나 ‘아는 언니’로 포장된다. 특히 당이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사적 고용을 하는 행위는 정치적 처벌이나 좌천의 빌미가 된다. 한 30대 여성 탈북민(사례_평양 10)은 남편에게 “어떻게 살게 된 평양인데, 당신 때문에 여기서 떨러나는 일이 없게 해줘”라는 얘기를 늘 들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을 남편에게 비밀로 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썼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도 있었고, 우리 언니네 집도 썼고. 그런데 잘산다 해서 뭐 다 쓰

43)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입주는 100불, 종일은 50불, 반나절은 30불 정도라고 한다. 또 다른 탈북민은 종일 노동에 하루 1달러씩과 부식물을 제공했다고 한다.

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장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중략) 자기 집에 사람이 없지 하나까. 북한에 도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중략) 남편이 몰랐죠, 처음에는. 남편이 출근하잖아요. 그럼 7시 15분에 나가면 내가 전화하고 “(남편이)갔어” 하면 (가사도우미가) 오거든요. 처음엔 그랬어요. 남편이 반대했어요. 다 제기된다고. (사례_평양 10: 35, 39)

가정으로 출근하여 직접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이외에도, 가정 밖에서 반찬을 판매하거나 가사노동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들이 늘었고, 서비스의 종류도 세분화되었다. 음식 주문 서비스는 부유층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배달을 해 주는 사람이 구분되는 등 분화가 이루어졌다.

동태국이나 먹고 싶은 걸 전화하면 요리사가 요리하고 배달해 주죠. 요리랑 배달해주는 사람이 달라요. 김정일 시대에는 체계가 없다가 김정은 시대에는 체계가 잡혔죠. 여기 오기 전까지 김치를 해 본적이 없어요. (사례_평양 6: 13)

평양에서 가정주부였던 면담자들은 ‘웬만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부유층의 젊은 가정주부들은 명절이나 남편 생일날에 집에서 요리를 하는 대신 주문음식으로 한상을 차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햄버거스테이크, 고로케, 돈까스, 김밥, 회, 만두 등 배달음식의 품목은 상당히 다양하다. 모든 음식은 전화로 주문 가능하고, 밤이든 새벽이든 원하는 시간에 배달을 해준다. 성실과 신의로 무장한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유층 주부들은 수첩에다 맛있게 음식을 잘하는 집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아는 사람들끼리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음식 외에도 식재료, 과일, 쌀의 장보기 대행과 배달이 가능하다. 시중에서 판매하

는 쌀에는 겨나 돌이 많아 잘 골라내야 하는데, 평소 거래하는 쌀집에 전화해서 특상품으로 주문하면 쌀집에서는 겨와 돌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고 집으로 배달해준다(평양 사례_10). 시장에서 장 본 것을 집까지 들어다 주는 아주머니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보통 1달러 정도를 지불한다.⁴⁴⁾

음식뿐만 아니라 빨래도 전문적인 가사노동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한 여성 탈북민은 집에 세탁기가 있었지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빨래는 빨래장사꾼에게 맡겼다고 한다. 빨래장사꾼은 빨래를 수거해가서 세탁은 물론 표백과 다림질까지 해서 집으로 배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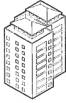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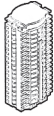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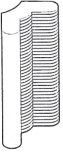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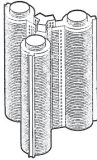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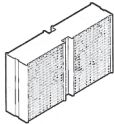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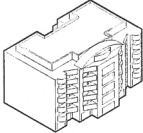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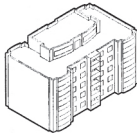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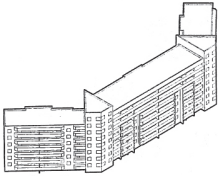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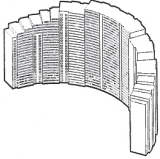
빨래는 빨래장사꾼이 와요, 집에. 문을 퐁퐁 두드려요. 손으로 빨면 때가 잘 안지고 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빨래장사꾼이 오거든요. 1킬로에 1.5달러씩 받아요. 열킬로면 15달러. 그런데 거기다가 세제는 안 줘도 되지만은 가루세제 있잖아요. 원하는 냄새가 있잖아요. 내가 딱 사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킬로로 해서 딱 완전 눈짐작으로 해가지고 “이거 얼마에 해 줘요.” 해가지고 빨래를 3일에 한 번, 일주일일에 한 번 와서 걷어가는 거예요. (사례_평양 10: 39~40)

다. ‘외량식’ 아파트와 ‘탑식’ 아파트

평양시에 아파트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구조와 외관도 다양화되었다. 1960년대에 건설된 표준 아파트 구조인 ‘외량식’ 아파트(〈그림 II-5〉 참조)를 대신하여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다음 〈그림 II-4〉와 같이 다양한 구조의 아파트가 설계·건축되었다.

⁴⁴⁾ 평양뿐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루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하루살이’ 또는 ‘빡빡이 부대’라고 불린다. 하루 품을 팔아 하루를 살기에 하루살이라고 불리고, 새벽부터 일감을 기다리며 시장에 출 서서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은 오리가 빡빡거리며 출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빡빡이 부대라 불린다. “북한 당국, 인력 거래 성행에 뇌물 주고 뒤 봐주기도,” 『매일경제』, 2012.06.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2748291>> (검색일: 2017.09.12.).

그림 11-4 평양의 다양한 아파트 구조

 요람-3 2009	 모란 46호 구획 살림집 25호동 2010	 광명 2009
 Y형 살림집 1990	 바람개비형 살림집 1990	 도시살림집 2011
 봉화거리 살림집 1991	 만수대거리 살림집 407호동 2010	 어김형 살림집 1980년대
 하나-1 2004	 철쭉 2007	 용해공 살림집 1991
 평양살림집 1989		 만수대거리 살림집 1-1호동 2010

자료: 임동우, “평양사진 카탈로그,” (평양살림전, 2017).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관계와 과정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남편이 권력층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30대 여성 탈북민(사례_평양 10)은 평양 아파트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이웃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2000년대 중반에 ‘외랑식’이라고 칭해지는 15층짜리 낮은 복도형 아파트에 살다가, 2000년대 후반에 새로 지은 타워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다음 <그림 II-5>와 <그림 II-6>은 ‘외랑식’이라 불리는 복도형 아파트와 ‘탑식’이라 불리는 타워형 아파트의 외관과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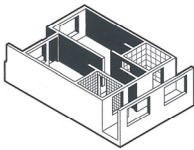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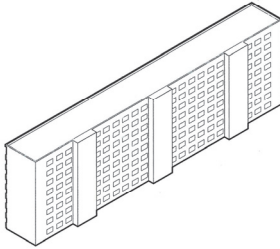
그림 11-5 복도형(외랑식) 아파트 외관 및 구조

PYONGYANG RESIDENCE STANDARD TYPE IN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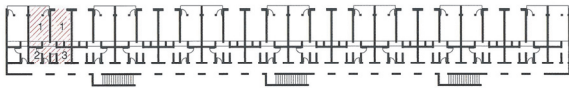


1962년 평양시 표준살림집

Program : Urban Residence
Location : Pyongyang-Si
Building Area : 761.49m²
Unit Area : 48.94m²
Number of Family : 14/floor
Number of Floors : Mid-rise
Built Year : 1962
Reference : Chosun Architecture History III



- 1 Room
- 2 Kitchen
- 3 Bath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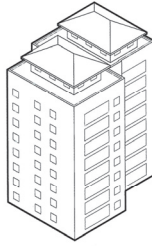
자료: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읽기』 (서울: 담디, 2014), p. 459.

그림 11-6 타워형(탑식) 아파트 외관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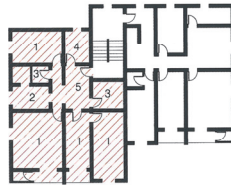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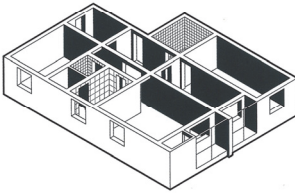
MORAN 46TH SECTION RESIDENCE BLOCK 25



모란 46호 구획 살림집 25호동



Program : Urban Residence
Proposal for Pyongyang-Si
Building Area : 280.67m²
Gross Area : 2,245.36m²
Unit Area : 135.65m²
Number of Family : 8
Number of Floors : 16
Magazine Year : 2010



- 1 Room
- 2 Kitchen
- 3 Bathroom
- 4 Storage
- 5 Ante-chamber



자료: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읽기』 (서울: 담디, 2014), p. 455.

이 여성 탈북민이 처음에 살았던 복도형 아파트는 약 20평 넓이에 방 두 칸짜리 아파트였다. 총 70~80 세대가 살았던 그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 가스가 아닌 석탄을 연료로 사용했고, 가사도우미를 쓰는 집도 거의 없었다.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아파트여서 이전부터 살던 나이 많은 주민들도 많았다. 복도형 아파트는 <그림 II-5>의 '1962년 평양시 표준살림집'처럼 같은 층에 있는 여러 가구가 하나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복도는 아파트 외부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관 밖으로 나오면 복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언제든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아파트 입구로 출입하는 사람들과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웃 간에 교류하기 좋은 구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손쉬운 구조인 것이다. 이런 구조의 아파트에 살았던 여성 탈북민(사례_평양 10)은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늘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과 물건을 사들이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한다.

외랑식 아파트 살 때 있잖아요, 처음에 산 아파트. 한 2년, 3년 되니까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남편이 항상 “야, 너 이거 직장 말하지 말라” 해서, “남편 어디 다니는가?” 아빠가 차를 끌고 군복을 대체로 입고 다녔으니까 “운전수야 운전수” 이랬지 남편 직업을 일체 안 말했거든요. (중략) 그 외랑식 사는데 남편이 일체 뭐 사지 말라. 우리가 이제 새 집 이사가니까 그저 여기 쓰던 대로 살자 해서 진짜 우리 처음에 살 때 자그만 TV 쓰던 거 그냥 놓고 하나도 뭘 안 꾸렸거든요. 그래서 물자 같은 것도 남편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때부터는 차가... 친구들이 다 차도 일류차 있죠. 벤츠, 뭐 이런 차도 많이 왔는데, 그 경비실에 가면 우리 집에 그 차 소리만 나면 할머니들이 막 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 물자가 뭐 올라가면 이렇게... 친구들이 뭐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게 다 소리가 나고 하니까. 저는 또 옆집에, 이런 쪽 이런 집에다가 막 인사. 뭐 떨치라도 생기면 막 검은 비닐봉지 같은

데 있잖아요. 봉지 같은데다가 하나씩 다 인사 돌리고 그랬거든요. (중략) 거기는 여름이랑 다 문 열어놓고, 아파트니까 어르신들이 경비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자가 도착하면 요만한 유리창에 할머니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사례_평양 10: 32)

이 여성 탈북민의 남편은 권력기관 소속으로 외화벌이를 했는데, 비법적인 방법으로 축재를 하거나 개인노동 고용과 같은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 검열 대상이 되고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인용문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복도형 아파트에서는 차 소리만 나도 주민들이 문을 열고 누구 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가를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는 이웃에게 선심을 베풀면서 그들의 입단속을 해야 했다.

2000년대 후반, 부근 지역에 위치한 50평대 타워형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 아파트는 앞의 <그림 II-6>의 ‘모란 46호 구획 살림집 25호동’처럼 한 층에 몇 세대가 안 되고, 복도형 아파트에 비해 사생활도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파트 입구로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아파트에는 주로 권력기관의 간부들이나 부유층이 입주했다. 복도형 아파트에서는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이웃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했지만, 타워형 고급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에 왕래가 별로 없었고, 마주쳐도 먼저 인사도 잘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여름이면 모두 문을 열어놓고 사는 복도형 아파트 주민들과는 달리, 신축 타워형 아파트에 사는 부유층 주민들은 모두 문을 닫아걸고 생활한다. 이곳은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친한 사람이 아니면 집에 들이지 않고, 식구들도 휴대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고 들어갈 정도로 폐쇄적인 공간이다.

그 아파트 이사 가서 우리가 있을 때, 만약시 60세대짜리 아파트라면 그때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잘 말을 안 해요. 문을 안 열어주고. 우선 일체 문을 안 열어줘요. 잠만 와서 문을... 그 다음에 핸드폰 있어가지고 남편도 오면 “야, 나 밑에서 올라가.” 이렇게 하면 문을 딱 열어줘요. 왜 그러냐면 전기검열 너무 세가지고요. 장사꾼들이예요. 그리고 문 열고 강도가 들어온 적 있어요. 일체 문 안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축인데, 처음에는 다 서먹서먹했어요. (중략) 내가 아는 집에 네 집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다 자존심 있어가지고 먼저 인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례_평양 10: 39)

비슷한 시기 평양 시내에 있는 아파트 거주공간이 보여주는 관계의 특성이 이렇게 다른 것은 ‘복도형’과 ‘타워형’이라는 공간의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같은 사회적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타워형 아파트는 통제사회인 북한에서 남들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은 일들을 감시하는 이웃 주민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곳에서 사적 공간으로서 집의 성격은 보다 명확해진다.

3. 일터

가. ‘만가동’ 공장과 국가연구소

경제난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공장의 가동률은 상당히 저하되었다. 특히 100명 이하 규모의 지방공장·기업소⁴⁵⁾들은 완전히 가동을 멈추거나 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중요성을 띠는 일부 중앙기업소들은 자재, 원료, 시설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정상적으로 운

⁴⁵⁾ 지방기업소는 지방 행정기구에서 통제하는 기업소로, 규모 면에서는 100~150명 규모의 4~5급 기업소와 50~100명 규모의 6~7급 기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수나 설비 등을 기준으로 중앙기업소 여부가 정해지지만, 기업소 규모가 작아도 중요도가 큰 경우 중앙기업소인 경우도 있다.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p. 119.

영되고 있다. 북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특히 평양시에 위치한 섬유·의류, 음식료 가공업 등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은 ‘만가동’과 생산을 위한 ‘전투’가 일상화될 정도로 가동률이 높다.⁴⁶⁾ 이 절에서는 평양의 중앙급 공장에 근무했던 20대 여성 탈북민(이진향)과 국가연구기관에 근무했던 20대 남성 탈북민(김명철)의 사례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양의 공식직장에서의 주민들의 직장생활을 살펴본다.⁴⁷⁾

이진향은 양강도 혜산시에서 생활하다 중학교 졸업 후 친척의 권유로 평양 거주권을 받기 위해 평양의 한 경공업 공장에 입사했다. 그는 원래 입사 대상연령이 아니었으나 100달러의 뇌물을 주고 서류에 나이를 낮춰 기재하여 평양의 공장에 배치받을 수 있었다. 평양의 경공업 기업소에는 미혼 여성과 여성 숙련노동자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이진향이 근무했던 공장에서도 90% 정도가 여성들이었는데, 주로 지방 출신이거나 평양 출신인 경우 경제적으로 하층이었다. 이 공장은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이 장사 등의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결혼을 하더라도 병이나 사고로 그만둘 때까지는 이직을 할 수 없다. 노동강도도 높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그런 이유로 5년 이상 근무 시 평양 거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지방의 젊은 여성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출신 노동자가 평양 거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공장에서 일하면서 일정한 기술급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 공장에서는 원래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해진 작업량을 달성해야 하는 ‘70일 전투’, ‘100일 전투’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진향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대

⁴⁶⁾ 북한 공식매체에 나타난 기업실태에 관해서는 심완섭 외,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세종: 산업연구원, 2015) 참조.

⁴⁷⁾ 이하 구체적인 사례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명이며, 구술자 신변보호를 위해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수정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부분 2교대로 하루에 12시간씩 명절만 빼고 일을 했다고 한다. 2교대로 일할 때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반과 야간반이 바뀌어서 그는 일주일마다 밤낮을 바꾸어가며 생활했다.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지만, 자신이 맡은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 낮 12시에 일이 끝나면 작업반별로 모여서 작업총화를 한 후 기숙사로 퇴근했다. 생활총화나 청년동맹⁴⁸⁾ 회의가 있는 날은 2시쯤에나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씻고 TV를 조금 보다가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밤 12시 출근에 맞추어 일어난다. 11시 30분까지는 출근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복장검사와 작업지시를 받은 후 12시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일을 해서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완수했을 경우에는 월 13~14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지만, 그 돈을 다 받는 노동자는 전체 인원의 10~20% 정도에 불과했다. 그 경우에도 각종 지원금 명목의 돈을 기업소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절반 정도였다. 이는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인 2천~3천 원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이지만, 시장에서는 고작 쌀 20kg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이진향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명목의 납부금을 제하고 500원 정도의 돈 밖에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기숙사에서는 여가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렵고 “그냥 먹고 자고만” 했다. 기숙사는 두 개의 방과 욕실 및 화장실 한 개가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마다 일곱 개의 침대가 놓여있고 일곱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였다. 난방이 되기는 했지만 겨울에는 춥고 온수도 나오지 않았다. 배급 대신 기업소 식당에서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진향은

⁴⁸⁾ 북한에서는 당원이 아닌 일반주민을 연령별, 직업별, 성별로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각종 정치사상교육을 하고 있다. ‘청년동맹’의 정식명칭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며, 만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청년 학생층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북한 지식 사전』, p. 139.

식사의 질이 좋지 않아 밥을 먹어도 늘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다.

강냉이밥. 밀가루 밥 같은 거. 강냉이밥도 다 씹어 놓은 밥 같은 거 주고, 반찬이라는 것도 배추 시래기 염장한 거 새까만 거. 집에서는 진짜 그런 배추 보지도 못했습니다. 새까만 배추 절인 거 주고 무 염장 주고. 풀만 세 가지. 배추 갖고도 꼭 짜서 메워서 주고 김치를 해서 주고 배추로 세 가지. 그렇게 줘니다. 침에 들어가서는 진짜 못 먹었습니다. (이진향: 8)

기숙사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너무 배가 고프 낱에는 가까운 친구들끼리 기숙사 베란다에 나가 몰래 전기 코드를 연결해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 먹기도 했다. 공장의 기숙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힘든 공장일과 나머지 일상을 함께 나누며 동고동락하는 긴밀하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하다.⁴⁹⁾ 기숙사의 동료들은 돌아가면서 떡이나 국수 등의 음식을 외부에서 사다가 나누어먹기도 했는데, 돈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자리에 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국가 연구기관도 국가로부터 배급과 임금이 지급되는, 흔치 않은 직장이다. 김명철은 대학 졸업 후 2010년경부터 평양시에 있는 과학기술 계통의 연구소에서 일하였다. 북한에서 대학교수나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는 전통적으로 일반 노동자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뿐 큰 차이는 없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식경제’를 천명하면서 2012년 12월 국가과학원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과학기술체제를 첨단기술과 핵심기술 위주로 재편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을 적극 추진했다.⁵⁰⁾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

⁴⁹⁾ 이희영,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광주 전남방직 구술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4권 1호 (2008), p. 194.

⁵⁰⁾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 Insight』, 173호 (2015), pp. 1~29.

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이 조성되었고 과학자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확충되었다. 김정은은 과학자들을 ‘숨은 애국자’, ‘진정한 혁명가’로 추켜세우며 이들의 생활을 직접 보살피는 애민의 이미지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구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선물로 받은 과학기술자는 소수일 것으로 추측되며, 대부분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은 일반 기업소의 노동자들 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김명철은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는 월요일 아침에 연구소로 출근해서 일요일에 퇴근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 집에 다녀오는 생활을 계속한 것이다. 연구소에 기숙사 시설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주중에는 퇴근을 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연구실은 그의 직장이자 생활공간이었다. 그는 밤 2시까지 책상에 앉아 연구를 한 후, 컴퓨터를 옆으로 밀어놓고 책상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 세끼 식사도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직접 해먹었다. 조리실은 따로 없었지만, 조리도구를 갖다 놓고 책상위에서 식재료를 썰어 가스콘로로 국을 끓이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했고, 설거지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했다. 월요일에 출근할 때는 잘 상하지 않는 밑반찬을 가져왔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동료들의 도시락 반찬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김명철은 100% 쌀로 본인의 배급을 받았고, 기름, 채소, 과일 등의 부식물도 매달 정기적으로 배급받았다. 임금도 5천원으로 일반 노동자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지만, 일주일에 6일 이상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시장활동이나 부업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장과 일반적인 북한의 직장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북한에서는 임금만으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산다는 건 뻔한데, 그 외에는 다 불법이고. 공장 다닌다면 공장에서 뭘 채온다거나 진짜 계속 뭘 훔쳐오고 어디 밤에 가서 장사하고 해야지만 돈이 생기는데. (중략) 우리 같은 거는 시간도 없어. 뭐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도 않으면 뭐 누가 그걸 해요? 못하지. 굶고 일하는데, 다 굶어죽겠는데. (중략)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서 일 안 나오면 내보내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까 할 수 없죠. 자연히 끌려나오고. 강제적인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 회사. 다른 데 한심한 편의사업소, 뭐 한심한 공장기업소는 그런 거 엄청 많죠. 적만 걸어놓고 이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뭔가 다 대학졸업생들이고 그 다음 국가 중요과제 하는 그런 단위라서. (김명철: 39~40)

많은 주민들이 시장활동을 통해 임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상황에서, 배급이나 높은 임금이 시장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과학기술자들을 연구소에 묶어놓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인책이 필요하다. 김명철이 다녔던 직장에서 그런 유인책은 해외파견의 기회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었다. 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대부분이 젊은 미혼 남성이고 여성은 드물었다. 대학에서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직종의 특성상 여성을 이런 연구소에 잘 배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소에 근무하는 젊은 남성 기술자들은 시장활동이나 부업으로 따로 돈을 벌 궁리를 하기보다 직장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기술을 익혀서 장기 해외파견을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면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파견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업무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실 내에서 실적 경쟁과 이에 따른 부담이 심했다고 김명철은 이야기한다.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 내가지고, 실적 등수 내가지고 1등부터. 그러니까 애는 꼴찌(여서) 한 500밀리 (기름) 한 병으로 시

작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네 통, 이런 거 20킬로 탈 때도 있고, 타거든요. 기름 엄청 타가지고. {그럼 팔겠네요, 좀?} 저는 안 팔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팔아서 뭐 자기 용돈 쓰고 했는데. 그 5만원이거든요, 한통에. 뭐 한 달에 5천원 타는데, 5만원이면 뭐 많은 거죠. 많이 타면 파는데, 나는 어머니가 그 돈 자기가 계산해서 주겠으니까 이거 다 집에 가져오라 해가지고 나는 집에 다 가져갔어요. 내가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네 통을 받았됐거든요, 한 달에. (김명철: 37~38)

연구개발에 참가하는 인원을 실적에 따라 일렬로 등수를 매기는데, 이러한 실적관리 시스템은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 학력과 기술수준에 따라 여섯 단계의 국가기술급수가 있고, 각 급수별로 시간당 작업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연구과제는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섯 단계로 등급이 나뉘어, 어려운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는다. 개개인이 하루에 일한 시간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면, 업무 시간, 작업의 난이도, 기술급수에 따라 점수가 자동적으로 계산되고 누적된다. 이 실적에 따라 매월 식용유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승진이나 해외파견도 이 실적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임금은 5천원이었지만 김명철은 실적에 따라 매월 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기름으로 받았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 불리는 경제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의 핵심은 계획 수립부터 생산, 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한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개인당 임금 상한을 규제하지 않고 기업이 노동보수의 몫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¹⁾ 김명철이 다녔던 연구소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보수를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계산하여 현금이나 현물로 지불하는 ‘새로운 노동보수계산지불방법’⁵²⁾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⁵¹⁾ 양문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색: 현황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3호 (2014), p. 7.

나. 불법과 합법의 경계지대에서의 ‘외화벌이’

평양에서는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국가의 배급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불법, 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지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는다.⁵³⁾ 그러나 평양 출신 탈북민들은 대다수가 특권층이나 경제적 상류계층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평양의 일반 시장이나 소규모 상점, 불법으로 간주되는 인력시장, 가내 수공업 등에 참여했던 직접적인 경험담을 듣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이 절에서는 권력과의 연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큰 밀천을 들여 장사를 하는 ‘외화벌이’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직장 밖의 경제활동 무대를 살펴본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국가중심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시장메커니즘의 부분적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은 경제상황 안정을 위하여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 하는 것을 목표로 ‘6·28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어 일련의 시장친화적 조치들을 취했다.⁵⁴⁾ 2015년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는 공식 시장은 2010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⁵⁵⁾ 또한 개인 영농, 소유한 어선을 이용한 어업, 가내수공업, 운수업, 사금융, 도소매상, 수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면접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연령대의 북한 주민의 약 70%가 장사 경험이 있으며, 도소매업 등

52) 최진수, “현시기 기업관리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3호 (2015), p. 11.

53) 광인옥·임을출은 평양의 경우 가계 소득 중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유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광인옥·임을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3권 (2016).

54) 김근식·조재욱,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への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p. 174.

55) 이석기 외,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세종: 산업연구원, 2016), p. 174.

장사를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는 주민은 약 45%로 추정된다.⁵⁶⁾ 이 중 비당원이나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 장사를 하고, 친인척이나 지인의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특혜를 받아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뇌물을 제공하고 시장 기제에 접근하여 이익을 확보한다.⁵⁷⁾ 이 과정에서 사경제 활동의 합법과 불법을 규정하는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기에, 당 관료나 군 간부 등의 권력층은 시장화를 기획하고 이를 통제, 감시하면서 이득을 취한다.⁵⁸⁾

시장화가 가속화될수록 평양에서도 계층별 시장 활동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시장에서 매대를 얻을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시장 부근이나 아파트 단지 입구 등지의 ‘메뚜기장’⁵⁹⁾에서 장사를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물건을 내놓고 팔다가 경찰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을 피한다. 한편, 상인 계층 중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본을 형성하여 신흥부유층이 된 돈주들이 급성장하였다. 현재 북한 당국은 식당, 상점, 소규모 공장, 소규모 탄광, 버스 등 생산수단의 사실상의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기관 또는 국영기업의 산하로 편입시키면서 개인 사업체로서의 자율성은 최대한

⁵⁶⁾ 천자현,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7.08.30.), pp. 116~117.

⁵⁷⁾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p. 193.

⁵⁸⁾ 박세훈 외,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 과제』 (서울: 국토연구원, 2016), p. 29. 홍민 등은 시장활동 수준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중상위 계층의 네트워크들은 자원, 물자, 운송, 에너지, 기술, 정보 등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들어 내는 시장 활동의 주역들이다. 핵심 엘리트와 군당 비서급 이상의 고위 간부, 외화벌이 기관 간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공식시장에서 매대 장사를 하는 계층은 주로 중간계층이라고 분류하였다.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14.

⁵⁹⁾ 메뚜기장은 공식시장 주변에 좌판 등의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 소규모의 시장을 의미한다. 이를 메뚜기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속원이 단속을 나올 경우 상인들이 이리저리 자리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모습이 메뚜기를 닮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201.

보장한다. 이렇게 국가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부분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가 사실상의 세금을 수취하는 ‘불완전한 합법화’ 정책을 통해, 돈주들은 자본의 규모를 늘려나간다.⁶⁰⁾ 그러나 합법적인 보호막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돈주들은 권력에 의해 자신의 사업이 언제든지 불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결탁을 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돈주는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여 출세한 자생적 돈주와 당·군·정의 권력자가 무역회사와 외화벌이 사업으로 자본을 축적해가거나 기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권력형 돈주로 구분된다.⁶¹⁾ 중앙당 소속의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참고사례_평양 2)은 본인이 일했던 곳은 ‘특수’라고 말하며, 특수는 ‘와크’라고 부르는 무역허가 할당을 크게 받을 수 있고, 검열도 심하게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장사는 뭘 뭘 하겠다, 그러자면 중국에서 나는 무엇을 들여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걸 승인해 줘야 되겠는데, 또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고 아, 이 사람이 무조건 요걸 들여오고 싶어하는구나 하면은 단가도 올려놓고. 그러면 요거는 들여오라, 요거는 들여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군부는 조금 폭이 넓다 보시면 되고, 당 산하에서는 제한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도 톤수가 제한돼 있지. 폭대기에 있는 그 간부들이 어느 정도 팔이 길은가에 따라서. 저희 북한에서는 이거 보고 와크라고 그러거든요. 네, 계획을 와크라고 하거든요. 이 와크를 위에 있는 간부가 많이 떼주는가에 따라서 애네 단위는 특수로구나, 세구나 이거. (중략) 검열을 다 받는 건 센 조직이 아니예요. 저희, 제가 있던 기업소라고 하면은 검찰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보위부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나니까 사회에서, 또 군부, 보위부에서 저희를 못 다쳤거든요. 딱 우리 기관에서만 우리를

⁶⁰⁾ 양문수, “시장화 측면에서의 김정은 체제 5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6), p. 126.

⁶¹⁾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p. 194.

다치다나니까 일하기가 훨씬 쉬웠는데. (참고사례_평양 2: 5~6)

군부 계통의 외화별이 회사에서 일했던 한 탈북민(평양_사례 5)에 의하면,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좋은 직위를 얻어야 권력을 등에 업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비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붙이고 떼이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 윗선과 그 위에 있는 위의 윗선을 만족시켜야 자리를 보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자와의 결탁은 불가피한 일이다. 신흥부유층은 정치적 후원이 수반되어야만 지속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하고, 권력층은 권력을 이용해 신흥부유층과의 동거 관계 하에 이익을 추구한다.

군부대 산하 외화별이회사에서 대규모 상점으로 상품을 조달하는 일을 했던 40대 여성 탈북민 신정옥의 사례는 외화별이의 하부 단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생활을 잘 보여준다. 신정옥은 전국에서 꿀, 도라지, 버섯, 산나물 등의 상품을 받아 포장한 후, 본인의 상호를 붙여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에 납품했다. 그는 고유한 상호를 얻기 위해 국가계획위원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뿌렸다. 상호와 제품 디자인이 판매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판매대금 중 국가 납부금 30%와 소속 외화별이회사가 소속된 기관에 납부금을 내고 남은 돈을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이 중 일정한 비율의 돈은 늘 사업과 관계된 중간 관계자들에게 건네주었다. 평양에서 장사를 하려면 “적을 크게다 걸고 와크를 쥐고 나가는 사람 등을 업어야” 하기 때문에 장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신정옥은 2009년까지 상당한 돈을 벌고 거래선을 넓혀나갔다. 그러던 와중에 2009년 11월 30일에 화폐개혁이 단행되었다. 북한 정부는 가구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구화폐 100원을 신화폐 1원으로 교환해주었다. 교환하지 못한 돈은 은행에 저금한 후 신화폐로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했

는데, 은행에 저금한 현금은 실질적으로는 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몰수된 것과 마찬가지였다.⁶²⁾ 북한 주민들은 “돈이 물이 되었다”고 표현했다. 신정옥도 화폐개혁으로 큰 돈을 잃었고, 시장 경제를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힘을 실감했다.

납품했던 기관이 중앙당 소속이니까, 그런 산하에서 다 알았으니까, 거기 국돈(북한돈) 처리 못하니까 국돈을 나한테 주고. (이전에는) 달러하고 유로 주렸는데 왜 그렇게 주나 했는데, 저는 몰랐죠. 돈을 한꺼번에 가뜰 받았는데, 다음 다음날 화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방승으로 나오고 화폐(개혁)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1,000원씩이니까 100대 1이잖아요. 그거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정신 나가게 뛰어다니던 생각하면 지금도…. (신정옥: 9~10).

4. 학교

가. 교육특별시 평양

평양은 북한의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육중심지이기도 하다. 대학, 특히 종합대학이나 전국 단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는 중앙대학은 평양에 밀집해있다.⁶³⁾ 고등교육 기회가 지역적으로 평양시에 집중되어 있음은 북한의 교육 통계에 잘 드러난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유엔인구

⁶²⁾ 문성민·이동현, “북한 금융의 특징과 제도·정책 변화,”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p. 61.

⁶³⁾ 북한에서는 전체 대학의 입학생 숫자를 고려하여 도별로 대학 응시자 지표를 정해주고, 지역에서는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별로 대학입학 지표를 정해준다. 이때 전국적 범위에서 대학 응시자 지표를 결정하는 대학을 ‘중앙대학’, 도 범위에서 결정하는 대학을 ‘지방대학’이라 부른다. 각 고급중학교에서는 예비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학교에 배정된 지표에 따라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중앙대학의 졸업생들은 국가 수준의 주요 분야나 각지역의 주요 관련 분야에 배치받으며,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에 배치받게 된다.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p. 105의 내용을 보란.

기금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의 재학률은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100%이나, 15~19세 집단에서는 62%, 20~25세 집단에서는 16%로 감소한다.⁶⁴⁾ 즉, 14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교육기회의 차이가 발생한다. 북한은 2012년 학제개정을 통해 취학전 1년과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6년, 총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학교 졸업 연령인 만 17세 미만 연령집단에서 성별, 지역별 교육연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⁶⁵⁾ 그러나 고등교육 수혜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의 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최종교육수준을 보면, 남성의 5.2%, 여성의 5.0%가 전문학교, 남성의 10.9%, 여성 7.3%가 대학 이상이다. 이에 비해 평양시 거주 5세 이상 인구 집단 중 남성의 4.7%, 여성의 8.0%가 전문학교, 남성의 21.6%, 여성의 12.0%가 대학교육을 받았다.⁶⁶⁾ 남성의 경우, 평양시의 전문학교 졸업자 비율은 여타 지역과 비슷하지만 대학 이상 졸업자는 다른 지역의 2배 이상이며, 여성의 경우 전문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모두 다른 지역의 1.7배 수준이다.

평양 주민의 고등교육 수혜율이 높은 것은 평양에 대학이 밀집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의 대학을 졸업할 경우 평양의 직장에 배치를 받아 평양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평양시 이외 지역의 거주자들이 평양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양에 있는 직장에 배

⁶⁴⁾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37.

⁶⁵⁾ 북한의 기본 학제는 5-3-3-4제로, 5년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 4~6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된다. 취학전교육기관으로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다.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이며, 중등교육기관은 남한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초급중학교와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3년제 고급중학교이다.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높은반 교육과 11년간의 초중등교육이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진행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4~6년제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교와 2~3년제 전문학교가 있다.

⁶⁶⁾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39.

치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경우 평양에 적을 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다. 평양 이외 지역의 거주자가 평양에 있는 직장에 배치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동강도와 규율이 센 공장의 근무를 자원하거나, 평양시 소재 대학을 졸업한 후 평양에 있는 직장에 배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평양시 소재 대학의 졸업자들이 모두 평양에 있는 직장에 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평양에서 외화벌이로 큰 돈을 벌었던 50대 남성(사례_평양 5)의 삶은 평양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준다.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난 그는 토대가 매우 좋지 않았고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군복무 중이었던 1980년대 중반에 강동군이 평양시에 편입되었는데, 당시 고향사람들은 “환성을 올렸고” 군대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주었다. 그는 고향이 평양시에 편입된 것이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그저 하바닥에서 썩어야 될 처지”였던 자신에게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평양시민권을 받아 평양시내에 자유롭게 오갈 수는 있게 되었지만, 거주지를 시내로 옮길 수는 없었다. 제대 후 평양시 외곽의 탄광에 배치되었던 그는 어떻게해서라도 평양시내로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중 경미한 탄광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사고 때문에 부상을 입었고 모범노동자라는 점을 내세워 평양 소재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탄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전문학교 졸업 후 평양시 삼석구역에 위치한 직장에 배치받아 일하다가 낙랑거리 건설과 통일거리 건설에 자원한다. 그는 “입당은 포기했어도 평양시 중심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하여 통일거리로 거주 이전을 한다. 이후 외화벌이 기관에 들어가 지도원을 하면서 인맥을 넓히고 돈을 벌어서 평양시의 중심인 중구역의 아파트를 사서 평양시 중심가에 입성하게 된다. 이 남성이 평양시 중심구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그중 고등교육기관 졸업은 평양 시내에 있는 직장

을 배치받아 거주지를 옮길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평양시 소재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을 배치받는 방법 이외에도, 평양에 거주하는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평양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이 평양 출신 남성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혜산이나 청진과 같은 지방 도시에서도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이 형성되면서 재력이 있는 신부감이 그 지역 출신 남성 중 평양의 대학을 졸업하여 평양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신랑감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결혼의 대가로 대학 공부 뒷바라지와 평양의 주택이 오고가기도 한다. 여성이 경제력이 있으면, 경제력은 없지만 토대가 괜찮고 똑똑한 군필 남성과 결혼하여 대학에 다니도록 뒷바라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혜산 출신의 한 50대 여성은 혜산에서 아들을 평양으로 유학 보내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평양에 집을 사줄 수 있는 혜산 출신의 재력 있는 여성을 신부감으로 선호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양 시집가는 게 또, 정말 잘 가는 게 평양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있는 여자들이 결국은 그 가시집(신부집)에서 집을 사주기로 하고 평양을 가고, 평양에 거주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분들은 또 아들을 공부시켜서 평양에서 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집까지 다 사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혜산여자를 다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황해도쪽 내륙) 사람들은 이 세간살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혜산여자들은 생활력이 있고 깨끗하고 그런 거는 있어요, 북쪽여자들이. 청진이라든가 뭐 이쪽 북쪽여자들이 대체로, 저기서도 말하는 게. 그래 이 혜산에서 아들을 공부시켜서 평양에 배치 받게 한 부모들은 다 혜산여자를 얻으려고 해요. 평양여자를 얻으려고 아니해요. 그래서 혜산에서 리 여자를 얻는 게 조건부를 그렇게 걸거든요.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 (사례_혜산 5: 51)

나. 평양 대학생의 일과: 행사와 동원의 일상화

북한의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평양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던 20대 남녀의 사례를 통해 평양 대학생들의 일상에 대해 알아보자.

김명철과 강은희는 북한에서 해당 부문 최고로 꼽히는 평양의 대학을 비슷한 시기에 다녔다. ‘수도건설’ 동원이 없었던 때 김명철의 평일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오전 7시 반까지 등교해서 30분간 독보와 수업 준비를 하고 8시부터 수업을 한다.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대학 근처의 간이식당에서 점심을 사먹고 오후 5시 정도까지 오전 강의 내용을 자체학습 형식으로 복습하는 수업에 참가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 무렵 귀가하여 저녁을 먹고 책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고 10시쯤에 잠자리에 든다. 토요일은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생활총화나 강연회가 진행된다. 규찰대, 사적관 참관, 기념행사 및 각종 대회 등 청년동맹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도 자주 참가한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집에서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유희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놀러다니겠지만 돈이 없어서 집에서 “그저 텅굴고 잔다.” 강은희의 하루 일과도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강은희는 평양시 건설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아리랑공연에도 참가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거의 수업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더 많았다고 기억한다. 행사와 동원이 없을 때에는 오후 수업이 이루어졌고, 간혹 ‘1일 농장지원’을 나가기도 했다.

김명철과 강은희는 2011년 여름부터 2012년 가을까지 진행되었던 수도 건설 사업에 전 기간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는 평양시의 모든 대학이 수업을 전폐하였다. 대학생들은 적위대복을 입은 ‘군인건설자’가 되어 평양시 단장을 위한 건설노동에 총동원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은 등교시와 마찬가지로 7시 반경에

건설현장에 모여 점호와 독보를 하고, 학급별로 작업을 할당받아 일을 했다. 점심시간에는 학급별로 모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대여섯시경 할당된 작업과제가 끝날 때까지 일을 했다. 대학생들은 서포아파트 건설, 하천정리, 창전거리 아파트 건설, 능라인 민유원지 건설 작업 등에 투입되었다. 수도건설에 참가한 대학생 중에 선발하여 화선입당⁶⁷⁾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강은희는 일을 마치고 7시 30분에 귀가했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야간돌격대에 나가 밤 10시까지 조선혁명박물관 개건축 작업에 참가했다.

두 사람의 평양시 건설 기간의 일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기간을 기억하는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한 사람(김명철)은 휴식 시간에 친구들과 주패놀이를 하거나 장기를 두고 놀았던 기억과 공부하는 일보다 즐거웠던 육체노동의 재미를 이야기한다. 다른 한 사람(강은희)은 MP3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모자와 수건으로 가리고 한국가요를 들으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과 노동을 하느라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수도건설 할 때 또 재밌었죠. 우리는 돈 없는, 돈 안 쓰는 일이라면 다 재미있는 줄 알고. 나가서 하루 종일 공부 안하고 우선, 그 다음에 뭐 일하고. 공부하는 게 재미없고, 일하는 게 힘들면서도 그 추억이 되고. 또 자기 육체노동, 왜 그랬는지 그때 협동정신도 좀 강해지고 서로 돕고. (중략) 일하는 과정도 힘든 것도 있지만, 여자들은 막 힘들어했는데, 남자들은 뭔가 그 노동을 한다는 거, 왜 그런지 난 재미있었습니다. 일하고, 뭐 암반 함마질 하고, 뭐 하는 일들이 다 재미났습니다. (김명철: 16~18)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땀을 두두두둑 흘리면서 진

⁶⁷⁾ 전선이나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검열 받은 사람이 입당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용어 사전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termDicaryList.do>> (검색일: 2017.09.25.).

짜 실 새 없이 일했던 거 같아요. (중략) (머릿속이) 아예 새하
 앵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자체로 자기개별 공부할 거,
 외국어공부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죠. 이거는 대학생이야 로
 동자야, 막 이런... 진짜. 평양시하면은 거의 아침저녁 지하철
 에 원래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 입은 대학생들로 붐벼야
 되는데, 검은색 옷 입은 건설자들 사람들이 새까맣게 움직이
 는. (강은희: 17~18)

강은희는 평양시 건설 이외에도 아리랑축전에 참가하게 되어 6개월간
 아리랑축전 준비훈련을 하였다. 아리랑축전 준비 기간에는 수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 7시경까지 훈련을 했다. 8시 40분까
 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 모여 출석점검을 한 후 경기장이나 경기장 주
 변 광장에서 연습을 진행하였다. 점심시간에는 각자 싸온 도시락을 먹거
 나 인근 식당, 경기장 내 매대에서 점심을 사먹고, 근처 나무 밑에 매트
 깔고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 때로는 더위를 먹어 쓰러지면 주사를
 맞고 그늘에 누워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훈련을 하기도 했다. 본공연
 때는 저녁에 간단한 간식을 먹고 8시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전체 공연 인원 중 수십명을 뽑는 데 선발되어 대열의 앞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아리랑 나가면 저는 더 좋았던 거 같아요. 대학 때보다 자유롭
 고. 대학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대학생화에 쫓겨서
 이런데, 다른 애들은 아리랑 때 조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요. (중략) 그래도 아리랑 때는 쉽죠. 훨씬 쉽죠. 그냥 생활총
 화라는 것만 하고 그냥 훈련만 했다가. 조금 더 자유롭죠, 대
 학생활보다는. 그래서 아리랑 때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해도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거 연습할 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괜찮았었죠. 그런데 되게 애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거 같아요. 금지라든지 아무래도... 그리고 맨 앞에
 나가가지고. (강은희: 9~10)

아리랑축전 준비는 힘들었지만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 축전 종료 후에 대학으로 돌아가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과정은 또 다른 면에서 어려웠다. 평상시에는 오후 수업이 복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축전 종료 후에는 아리랑축전 준비로 인한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했다. 복습도 없이 하루종일 강의를 듣고 숙제를 해야 하는 일은 동원노동 못지않게 힘든 과정이었다.

다. ‘놀타리 대학’과 ‘뺏심으로 공부하는 대학’

평양 주민들은 돈과 실력이 다 있어야 평양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난 시기에는 돈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서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대학 선발이 실력이 아닌 ‘안면관계’와 ‘뇌물’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만연하였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은 만성적인 사회주의 병리인 안면관계에 의한 부정입학을 생계형 비리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경제난 시기에 국가적 지원이 중단되자 대학당국은 자체적으로 학교 유지와 교원의 식량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했는데, 부정입학을 통한 물자와 식량 확보도 그 한 가지 방도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입시비리의 규모가 커지고, 금전적 거래의 성격이 명확해졌다.⁶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에서는 입시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신문에는 대학 부정입학 등의 관행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⁶⁹⁾ 2011년 12월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

⁶⁸⁾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83~184.

⁶⁹⁾ 예를 들어 2004년 7월 15일자 교육신문에 게재된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대학 교원들이 “교수사업에서 교정의 룰리를 터끌만치라도 어긴다면 그 후과는 당과 국가앞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주는 엄청난 죄로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며 량심적인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신문』, 2004.07.15.

공화국 고등교육법」 제67조, 제68조에서는 “학생모집 및 입학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와 “학생의 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과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 고위층 탈북민(사례_평양 8)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이러한 법이 적용되어 대학의 학장이 처벌 받은 사례도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대학이 필요에 따라 뇌물을 주고 입학생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특히 인기 있는 중앙대학은 실력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다. 즉, 대학이라고해서 다 같은 대학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야 조금... 그런 거는(부정입학) 좀 되겠죠. 평양에서 아무 대학이나 보게 되면 이런 걸 자기네가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 요구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가 안 된 거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건 제기되게 되면 그 사람이 목 날아나죠. 단적인 실례로 평양상업대학같이 하다가, 학장이 그거 디젤유 15톤 받아먹고 점수 낮은 거 올렸는데, 대학시험 칠 때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온 애들도 학부모들도 가만있습니까? 신소합니다, 중앙당에다가. (중략) 선호도가 높은 종합대학, 상업대학, 경공업대학, 김책공업대학, 이런 대학은 돈 주고 못 들어갑니다. (중략) 중앙당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끼우지 못하니까 그 학장한테 선을 놔서 하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말해요, 학장 한 번 떨어진 다음에는. “점수가 돼야 됩니다, 점수가.” 그 끝난 다음에 후열사업하는 거는 중앙당 과학교육부에서 나와서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사례_평양 8: 28, 36)

평양의 대학에 관한 탈북민들의 이야기 속에는 ‘놀타리 대학’과 ‘뺏심으로 공부하는 대학’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는데는 경제력과 실력이 다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 경제력이 기본이 되는 대학은 ‘놀타리 대학’, 돈이 많지 않아도 실력이 뛰어나야 하는 대학은 ‘뺏심으로 공부하는 대학’이다. 두 종류의 대학의 학생들은 경제적 수준에서

그림 11-7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자료: 연합뉴스 제공.

차이가 나고, 대학 내에서도 학부별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상업 부문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은 돈이 많아야 다닐 수 있는 대학이다. 이 대학은 소수의 제대군인 출신 학생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여학생들이거나 중앙당 간부의 자녀들로, “패션의 선두대학”이기도 하다. 평양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대학의 학생들은 지갑에 몇백불씩 용돈을 넣어가지고 다니며, 1,000달러짜리 명품 책가방을 한 학생이 들고 오면 다음날 다른 학생들이 다 그 가방을 들고 나타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 식당을 빌려서 학급 친구들의 생일파티를 할 정도로 씩씩이도 크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잘 해도 돈이 없으면 다니기 힘든 대학이다.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간부집안에서 신붓감으로 선호하는 대상인데, 이는 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일종의 ‘봉사’이기 때문이다.

상업대학은 뭘 배워주냐면 관광도 배워주고 봉사도 배워주고. 그 봉사라는 게 서비스 아십니까? 이걸 배워줘요. 하여간 손님 만날 때 “오세요.” 뭐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손님을 대할 때, 같은 여자라도 대할 때 억양이라든가 해서 사람을 끌고, 손님이 요 물건을 딱 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다 이거... 이거를 이론적으로 배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가서 애들이 시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하니까 남자 가진 집에서는, 아들 가진 집에서는 보게 되면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대 나왔대.” “너 탈락.” 북한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이 돼놔서 부모들이 자기도 남편한테 당했지만은 자기 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딸 가졌다 하게 되면 내 딸이라 해도 나는 남편한테 당했지만 우리 딸은 당하지 않길 바라는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보면 상업대학 졸업했다 하면 어느 학부 졸업인가 물어 안 봅니다. 요리학부 졸업했나, 뭐 이거 물어 안 봅니다. 상업대학 졸업했다 하게 되면 그저 한 마디로 평양에서 간부 집 자녀는 1등이예요, 신부감으로. (사례_평양 8: 30)

주로 부유층 여학생들이 많은 상업대학과 달리, 공업계열이나 이과계열의 종합대학에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닌다. 이런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경제적 수준이 ‘놀타리 대학’에 비해 낮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더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인기가 없는 학부나 학과에 배정된다고 한다. 이런 대학들은 해당 부문에서 최고의 대학이지만 학생이나 교원들의 경제적 형편만을 놓고 보면 상업계열이나 외국어 계열 대학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종류의 대학에 다녔던 20대 탈북민은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대나 종합대학은 진짜 너무 뭐 힘들어가지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대학 못 다니겠다 하는 거 있는데, 정확히 우리 대학 우리 학부는 서민들이 모인 학부, 그러니까 진짜 뼉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대학이라도 좀 돈 없어 뵈고 가정환경 보고서는 좀 경제적으로 딸리겠다 하면 보내는 그런 학부라서 우리 학부가 다 못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못 살면 교원들이 못살게. 네, 그래서 대학에서 잘사는 학부하면

학생 잘살고 교원 잘살고. 이게 클래스가 틀리니까, 완전. (사례_평양 9: 16)

학생들의 ‘클래스’의 차이는 학교 내에서 경험의 차이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예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농촌지원활동과 같은 동원노동 참가이다. 경제력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두 ‘평양건설’과 같은 국가적 동원에는 참여해야 하지만,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동원활동의 경험은 동질적이지 않다. 먹고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있는 집안 출신은 아니었던 20대 남성(사례_평양 9)은 매년 한달 반 정도 계속 참가했던 농촌지원활동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농촌지원은 내 한 번 기절했거든요. 농촌지원 힘들어가지고. 아니 새벽 4시에 일을 나와가지고 보릿단을 나르는데, 지게 지고 나르는데 너무 많이 담아줘가지고 가다가 쓰러졌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난 농촌지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뜨기하는 것도 다 사람 손으로 하니까 모뜨기하면 그 손 물질 생기고. 아직도 손에 물질이 남아가지고. 너무 못살고 하니까, 거기는. 먹는 건 잘 먹으며 하는데도 뭐 하루에 한 열 두시간 일하나? 모내기철에 딱 나와가지고, 계속 아침에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작업 나오고, 저녁에는 날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과제 못하면 불전지 켜고 또 하니까 힘들죠. 농촌지원. (사례_평양 9: 19)

그는 대학생들이 대학 기간 중 한 학기 동안 이수해야 하는 군사훈련인 교도대훈련 기간도 배고프고 힘들게 보냈다고 기억한다. 교도대훈련은 실제 병영에서 6개월간 숙식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군대에 뇌물을 내고 훈련을 면제받고 집에 가서 놀았다는 것이다. 남은 학생들은 빠진 학생들의 몫까지 일을 해야 했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동료들과 서리를 해서 먹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생활에

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옷을 사 입고 싶고 좋은 가방을 들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던 것이 힘들었다고 말한다.⁷⁰⁾

군사훈련도 배고팠습니다. 그때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돈 내고 다 집에 가서 놓고 하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 가지고 뭐 다 하니까, 몽땅 농사짓고 뭐 포 청소하고 하니까 완전 힘들죠. (중략) 진짜 돈만 있으면. 그때 부모 원망을 또 많이 했됐죠. 아 돈 좀 주지 않나. 돈 없긴 없는데 나 좀 살려주지 않나. 네, 진짜 그때 내가 도적질이라는 걸 해봤으니까, 강냉이. 배고프니까 그 남아 있는 친구들하고. 돈 있는 건 다 나가고. 한 개 포에 정원이 한 여덟 명인데, 한 다섯 명은 가고 두세 명씩 남는 거예요. 포에. 돈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남는데, 배고파가지고 그 개인 밭에 들어가가지고 강냉이를 밤새 쳤는데, 쳐가지고 또 아는 집이 있어가지고 삶아달라고 갖다 줬는데, 와 진짜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으니까. 거기서는 강냉이밥 주는데, 아야 강냉이밥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보리밥 주는데, 보리밥은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 국수 주고 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사례_평양 9: 20~21)

한편, 경제적으로 상류층 출신이었던 20대 여성은 비슷한 기간 평양의

⁷⁰⁾ 혜산시의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대학이 지금 꾸리기 하잖아요. 그럼 그 국가에서 대주긴 대줘요. 그런데 그 대주는 걸,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이거 국가에서 시멘트 100지대를 보냈다면 실지 쓰려고 보면은 한 60지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자기가 사취적인 그런 게 많죠. 개인 이익으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우는 게 학생들 자력으로 하는 거죠. (중략) 우리 학급에도 농촌에서 온 이런 시골에서 온 애들이 좀 많았어요. 가네는 진짜 막 학급에 나오면 웃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골에서는 진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안받침 돼서 대학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큼 먹고 얼마큼 학교비에 써라 이렇게 갈라서 보낸 걸 다 학교비에 거의 뒀다나니까 막 이렇게 먹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속이 좋지 않고. 진짜 불쌍하게 다니는구나.” (사례_혜산 5: 16~17)

다른 대학에 다녔는데, 한번도 장기간의 농촌지원을 경험하지 않았다. ‘1일 농장 지원’ 형태로 단기간 농촌지원을 하는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그는 이마저도 돈을 주고 빠졌고, 친구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꽤 여럿이 있었다고 한다.

오후에 원래는 뭐, 지방 학교 같은 경우는 일하러도 가고 토끼 풀인가 뭐가 뜯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은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밥 먹고 와서 학교에서 이런 자학습, 자기 공부 같은 걸 낚아서 하고. 아니면 무슨 근처 만경대협동농장 같은데 일 도와주러 1일 농장으로 나가고 하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얼마... 1일 농장을 나가도 거기 있는 분들한테 담배도 주고 술도 주고, 아니면 뭐 돈으로. 일하는데 트랙터 같은 거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또 애들이 나와서 일을 얼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안 나와도 되니까 차라리 기름으로 줘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주변 농장 직장 관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학급에서 좀 귀찮은 애들 몇 명 “니네들은 가지 말고 한 달에 기름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면 그냥 오전 수업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집으로 와서 자기 일. 뭐 기타를 배우는 애, 노래 배우고, 개별지도. (사례_평양 2: 6)

5. 놀이공간⁷¹⁾

가. 수도 단장과 놀이공간의 확대

최근 몇 년간 김정은 정권의 정책 키워드 중 하나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공식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먹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생활수

⁷¹⁾ 이 절은 조정아,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8호 (2017), pp. 3~21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보완한 글임을 밝혀둔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각주는 생략하였다.

준 향상은 현재 북한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생활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과 문화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신년사를 통해 살림집 건설,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인민생활 개선 관련 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평양시 고층 아파트와 은덕원 등 편의봉사시설, 주민 문화시설에 대한 현지도도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원산시, 신의주시, 혜산시 등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공원, 유원지, 체육시설과 문화·편의시설 건설과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은 주로 평양시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양시에서는 시가지 정비,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문화시설, 위락시설의 개보수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개선청년공원 유희장 개관에 이어 2012년에는 대성산유원지, 만수물놀이장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었고, 능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원, 만경대유희장 개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팅장, 통일거리운동센터 등의 주민체육시설과 대규모 편의시설도 완공되었다. 2013년에는 만수대지구 화초·분수공원과 편의사점 건설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7월에는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이 준공되었다. 이중 평양 능라인민유원지는 대동강 가운데 1km² 넓이의 섬인 능라도에 위치한 유원지로, 곱등어관(돌고래관), 물놀이장, 유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라인민유원지에는 2013년에 4D 영화관인 ‘입체올동영화관’도 개관하였다.⁷²⁾ 평양민속공원은 ‘민속전통과 미풍양속’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역사종합교양구역, 역사유적전시구역, 현대구역, 민속촌, 민속놀

⁷²⁾ 이후 4D 영화관의 신설이 계속되어, 2016년 현재 원산시, 신의주시 등 전국적으로 12개 이상의 4D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에 4D 영화관 최소 12개…김정은 오락시설에 관심,” 『연합뉴스』, 2016.06.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0239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9.12.).

이구역, 백두산·금강산공원구역 등으로 조성되었다.⁷³⁾ 류경원은 목욕, 이발, 미용, 안마, 치료체육 등의 시설을 갖춘 1만 8천여㎡ 넓이의 위락시설이다.⁷⁴⁾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평양의 문화시설이 확충되면서 평양의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문화·위락시설은 평양을 북한의 다른 도시와 격이 다른 곳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 도시에서 살다가 평양의 중앙기업소 노동자로 자원해서 왔던 20대 여성(사례_평양 4)은 “평양에 올라오는 게 다 그런 걸(문화시설을) 보려고 올라온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대도시, 특히 평양시에 집중되어 있어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시설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함경남도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다 2016년에 탈북한 여성(참고사례_함남 1)은 “북한에서는 그저 평양에서만 그런 (놀이)기구를 탄다. TV를 보면서 ‘저런 기구, 와 저건 그렇구나. 저 사람은 탔으니까 좋겠구나.’ 라는 생각만 했다.”고 말한다.

2000년대 이후 시장화의 과정 속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생겨나면서 평양에서는 확충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유명 유원지마다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고 압표장사도 성행한다고 한다. 2014년까지 군대 체육단 소속으로 평양에서 생활했던 20대 청년(사례_평양 7)은 상류층 출신 부대원의 부모들이 지원하는 표를 갖고 부대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 꼴로 개선청년공원에 놀러갔다고 말한다. 야간개장하는 공원에서 놀이기구 세 가지를 탈

73) “北 김정은, 준공 앞둔 주민 편의시설 점검,” 『연합뉴스』, 2012.09.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03759>> (검색일: 2017.09.12.).

74) “북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롤러스케이트장 준공,” 『연합뉴스』, 2012.11.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26060>> (검색일: 2017.09.12.).

그림 11-8 문수물놀이장



자료: 연합뉴스 제공.

수 있는 자유이용권으로 급강하탑(자이로드롭), 배그네(바이킹) 등의 놀이시설을 타고 쏘다니다 들어오는 것이 즐거운 일과였다고 한다.

그러나 각종 건설사업과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당국의 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체감되거나 여가생활의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크게 다른 듯하다. 경제적 여유가 없이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 후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배급에 의존하여 생활했던 20대 남성과, 평양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평양의 공장에 취업한 20대 여성은 평양의 놀이시설을 즐길 수 없었던 자신들의 생활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놀이시설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북한에서 나는 거기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케 가는지 난. 아니 어이가 없는 게, 한 달에 난 대학 땡길 때는 뭐 장학금이라고 500원씩 줬으니까, 그 뭐 쓸데도 없고 그걸. 사회 나와가지고 직장다니

때 (임금) 5천원 줬는데, 그 유희장 가고 뭐 하는 게 문수물놀이장 2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어떤 공연한다 하면 공연 보러 가는 돈이 야매로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아니 난 그런 거... 불법을 안 하면 아무 것도 못 가는 상황 이니까. 네, 그거 진짜 우리 집은 불법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머니가 일 나가고 불법할 시간도 없었고, 어머니가. (사례_평양 9: 15)

일주일마다 교대를 하는데 낮 12시에 갔다가 밤 12시까지 하고, 다음 주는 또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렇게 교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만, 그냥 먹고 자고만 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려고, 어디 좀 놀러 나가야 되겠다? 그냥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짬시간에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자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어떤 애들은 몸도 좀 이렇게 마른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씻고 누우면 그 12시 일할 때까지, 일하러 나갈 때까지 자는 애들도 있어요. 깨어 못나서 깨워도 일어 못 나는 애들. (사례_평양 4: 5)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먹고살기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여가를 마음놓고 즐길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평양에서 장사를 했던 50대 여성(사례_평양 3)은 “장마당 상인들에게 주말은 없다”고 말한다. “이제는 놀면 안된다고 북한 사람들은 인이 박혀” 시간이 나더라도 일부러 문화시설을 찾아가서 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평양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2014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의 다음과 같은 말은 평양시 중심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북한 사회 내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평양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알다시피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건 이렇게 늙은이들도 말하거든요. “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렇게 짓냐? 뭘 물놀이장을 짓냐? 우리가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물놀이장에 가서 돈을 내고 물놀이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저거 지을 바 치고는 쌀을 풀어서 뭐 한 달이라도 주든가

이게 낫겠다.” 이거는 거의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노릇을 하니깐. 뭐 현지지도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무엇을 하나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즐길 만큼 북한의 생활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은 즐기지만 그건 극히 몇 사람인 거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70~80%이니까 그게 하등에 필요가 없잖아요. (참고사례_평양 2: 22)

나.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

북한 젊은이들의 여가생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 즉 데이트 방식의 변화이다. 기성세대들의 데이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공원이나 가로등 아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최근 청년들의 데이트 문화는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해졌다. 최근 탈북한 청년들의 증언을 통해 평양 젊은이들의 데이트 공간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평양 상류층 출신으로 2015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사례_평양 2)은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학급별로 놀러 다니지만, 3학년부터는 친한 친구들과 끼리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거나 이성친구와 둘이서 놀러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한 친구들과끼리 이성친구와 함께 몇 커플씩 짝을 지어 놀러다니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공간은 당구장, 볼링장, 빠짱코, 탁구장 등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봉사센터’, 롤러스케이팅장, 수영장, 국제영화관, 노래방 등 최근 들어선 놀이·문화공간이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영장이나 한증막 등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각각 최소 5~1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런 복합문화시설 중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밥을 사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려면 비용도 꽤 든다. 친구들과끼리 가면 비용을 나누어 내지만, 남녀 여러 명이 커플데이트를 가면 대부분 남자들이 돈을 낸다고 한다. 짝꿍이 내기를 해서 진 팀의 남성이 돈을 내는 일도 많다. 상급생들로부터

“고려호텔 수영장이 좋다더라, 대동강변에 뭐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좋다더라.” 등과 같이 인기있는 데이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기도 한다. 평양 출신의 20대 여성은 이런 문화시설에서 데이트를 즐겼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볼링관 가면 앞에는 볼링하고 그 뒤쪽으로 당구판이 짝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저는 볼링 했어요. 아니 당구를 했어요, 저는. 볼링이 있고, 당구 있고, 이 뒤판으로는 또 빠짱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빠짱코 하고 싶은 사람은 빠짱코 하고, 저쪽에 2층으로 올라가면 또 탁구장도 있는 거예요. 탁구, 빠짱코, 볼링, 당구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롤러스케이팅장도. 롤러스케이팅 타구.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놀러 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한 사람이 부담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 20불 정도씩 냈던 거 같아요, 나 뉘가지고. 친구들끼리 가면 그렇게 하고 또 남자들끼리, 아니 남자여자 이렇게 가잖아요. 남자가 다 내죠, 당연히. 매번은 아니고요. 그래도 남자가 내는 룰이 많죠. 세 커플이 가면 남자들이 알아서 무조건 내죠. 셋 중에서 누가 내도 상관없이. 여자들은 안 내요, 의례히. 그런데 둘이서 남자여자 갈 경우에는 많이 남자가 많이 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내긴 내도 많이 안 내죠. 평양은 노는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놀 정도로 놀 거리는 너무 많아요. (사례_평양 2: 33)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은 북한돈 몇 백원에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찾기도 한다. 평양에는 중앙청년회관,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등 달러가 아닌 원화로 국정가격의 이용료를 내고 즐길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도 있다.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중앙청년회관에는 극장과 각종 소조실 등 단체활동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는 오락관, 배드민턴과 탁구 등 체육시설, 북한판 댄스댄스레볼루션(DDR)인 ‘발운동오락기’, 노래방 등이 갖추어져 있다. 강당에 설치된

이곳의 노래방은 한곡을 부를 때마다 별도의 요금을 내는데,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사례_평양 7, 사례_평양 9).

호프집도 평양시 청춘남녀의 데이트 장소 중의 하나이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여성들이 호프집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없었다. 일부 주민들은 술을 마시는 여성에 대해 ‘질이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경제적 능력이 커지고, 외국 영화 등에 나타나는 여성 음주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이 음주문화를 조금씩 즐기는 경향이 나타났다.⁷⁵⁾ 위에서 언급한 평양 출신 20대 여성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호프집은 남성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되었지만, 2010년 즈음에는 여성과 남성이 섞여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한다.⁷⁶⁾ 평양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50대 여성(사례_평양 3)도 예전에는 여성들이 맥주집에 다니지 않았지만, 지금은 “발전해서” 맥주집에서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맥주를 즐기고, 일과 후에 맥주집에서 직장회식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적어도 평양에서 남녀가 어울려 가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장소는 없는 듯하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헤산시에 거주하다 2016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사례_헤산 4)은 헤산에서는 남녀가 같이 맥주집에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 보게 된다고 한다. 그는 지방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깨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젊은 남녀가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면 평양 출신인지 지방 출신인지 알 수

⁷⁵⁾ 서진선, “북한의 문화자본과 사회계급에 관한 연구: 술을 통한 문화적 실천과 소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 86~88.

⁷⁶⁾ 북한은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동강맥추 축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말까지 제2차 대동강맥주 축전을 개최한 바 있다.

있을 정도로 평양과 지방의 데이트 문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의 도시에서 살다가 취업을 위해 평양에 오게 된 20대 여성이 평양에 거주하는 자기 또래의 친척과 그의 이성친구들과 수영장에서 커플데이트를 했던 경험을 말해 주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의 문화에도 평양과 지방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는 처음에 수영복을 입었는데 너무 막 쪽팔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입지? 어떻게 입지?” 했는데, 친척 애는 좀 몇 번을 가봤으니까 그냥 입고 들어오라고 해서 타올 같은 거 쓱 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방 애라는 게 탁 보이는……. 아무리 내가 평양말을 한다 해도 내가 너무 이상하게 노니까 남자 애들이 고향이 어딘가 물어본 거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왔다니까 “아, 역시.” 하며 그러더라고요. (중략) (물미끄럼틀에) 앉아서 이렇게 쪽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탔는데, 이렇게 두 명씩 조를 무어서 타는 거거든요. 여자가 앞에 앉고 남자가 뒤에 앉아요. 그런데 아니 세상 보지도 못했던 남자들하고 그런 거 어떻게 타요? 그런데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우리 친척 애는 남자친구랑 둘이 타고, 친척 애 남자친구가 남자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 남자하고 내가 타게 됐어요. 저 앉았는데 엉덩이가 쓱 들어가는데, 타는데 너무 이상하게 뒤에 남자가 있지. 다라가 이렇게 엮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긴장해서 타는데, 그래도 탔거든요. 타서 내려왔는데, 이런 건 진짜 아니로구나 하면서 있잖아요. (사례_평양 4: 19~20)

청춘남녀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경관이 좋은 길은 어느 사회에서든 고전적인 데이트 장소인 듯하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평양 출신의 한 20대 남성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림 11-9 유원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북한의 청년남녀



자료: 연합뉴스 제공.

제가 마지막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집이 대동강구역이 었거든요. (중략) 만나기로 해서 가면, 평양산원 앞에 어린이전 문병원 생겼잖아요. 그쪽까지 가요. 그냥 쪽 걸어가지고 대동 강 문수 쪽으로 이렇게 쪽 걸어서, 그냥 그 궤도전차 길, 대로 로 그냥 걷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친해보질 않았어요. 손 도 겨우 잡아봤거든요. 걷다가 “배고프지 않습니까? 저기 들어 가서 밥 좀 먹고 갑시다.” 그러면 따라 들어와요. 그 식당 있거 든요. 거기 제가 많이 가본 데가 대동강구역, 문수토성 근처 궤도선로 있는데, 당탑 있고 그 앞에, 거기를 많이 걸었거든 요. 산원에서 이쪽으로 다시 옥류교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거 기에 식당이 좀 많았어요. 그 대동강 거기가 청춘… 청년거리 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식당이 많이 있고, 거기 외화 상점도 있고 해서, 올라가서 인형도 하나 사가지고 주고. (사 례_평양 7: 21)

강, 궤도전차, 토성, 탑, 다리가 있는 길을 마냥 걷다가, 평양의 청춘남

녀는 최근에 들어선 식당에 들러 같이 밥을 먹고, 상점에 들러 물건을 구경하고, 서로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평양의 젊은이들은 김정은 시대 들어 세련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거리와 명소, 문화와 소비의 장소들에서 평양의 새로운 장소감을 발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단장된 공원이나 길거리도 그 자체로 청춘남녀들의 데이트 공간이 된다. 2010년 이후에는 모란봉이나 공원에서 남녀가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감싸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흔하지는 않지만 나무그늘에 서로 무릎을 베고 누워 있거나 남성이 여성을 업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학교 밖에서는 규찰대도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을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한다(사례_평양 2).

다. 기호의 분화와 다양한 소비공간

‘여가’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⁷⁷⁾이다. 여가를 즐기려면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시간 이외에 ‘남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인 직업이 아닌 시장 활동 등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가를 즐길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다. 2000년대 들어 북한 경제 전반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시장활동을 통해 일정한 부를 축적한 집단이 생겨났다.⁷⁸⁾ 기존의 정치적 성분을

7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7.07.18.).

78)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주민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주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과 고기 섭취 횟수가 증가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의식주 수준이 일정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35.7%에서 2016년 60.1%로 증가했으며,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률 역시 2012년 24.4%에서 2017년 54.5%로 증가하였다. 정은미, “북한 주민의 생활과

대신하여 경제적 부에 의한 계층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계층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의식주생활은 물론 소비 생활과 정보환경에 이르기까지 계층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되었다.⁷⁹⁾ 상류계층의 경제적 능력 확대는 소비활동 다양화와 여가생활 확대로 연결 되었다.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이 있고 교통인프라가 잘 발전되어 있지 못한 북한 사회에서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서 여가를 즐기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체에게 가장 일상적인 여가 활용의 방식은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각종 문화·위락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평양에는 옥류관, 청류관, 선교각, 평남면옥 등 이름 있는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다. 식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런 국영식당은 음식 가격이 싸지만, 한 사람당 판매하는 식권이 제한되어 있고 길게 줄을 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옥류관 같은 유명 식당 부근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식권을 구매했다가 점심 무렵에 몇 배의 돈을 받고 파는 암표상이 늘 있다. 최근에는 ‘합의제 식당’이라고 불리는 식당이 시내 곳곳에 생겨났다. 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당국에 메뉴와 가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식당들은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가격은 국영식당에 비해 비싸다.

고급 식당으로 외화로 거래하는 호텔식당이 있고, ‘종합봉사시설’인 ‘해당화관’ 같은 최고급 식당도 있다. 해당화관은 류경원, 롤러스케이트장, 동평양대극장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위

의식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역음,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p. 193; 황정미,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 식 변화 자료집: “병진노선”의 두 얼굴』, p. 108.

⁷⁹⁾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통일과평화』, 제7집 2호 (2015), pp. 104~105.



자료: 연합뉴스 제공.

치해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종합시설로, 연건축면적 1만 7,700km² 규모이다. 내각의 해당화봉사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은 2013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을 하기도 했다. 1층과 2층은 식당가, 상점, 연회장 등으로 구성되었고, 식당에서는 200여 가지 한식과 외국 요리를 판매한다. 식당 이외에도 3층에는 목욕탕과 수영장, 4층에는 한증막, 한증방(찜질방), 휴게실, 청량음료 코너,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 미용실, 안마실, 미안실(피부미용실), 5층에는 요리전문 도서관, 요리와 관련된 전자도서열람실, 요리실습실, 6층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다.⁸⁰⁾ 달러를 사용하는 이곳 식당에서 갖추어진 식사를 하려면 1인당 3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식당

⁸⁰⁾ “종합봉사시설 ‘해당화관’을 찾다,” 『오작교뉴스』, 2015.10.05., <<http://ojakynews.tistory.com/190>> (검색일: 2017.06.12.). 최근 방북자의 전언에 의하면, 해당화관은 최근 류경회관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은 주로 사업상 사람을 만나거나 연줄을 이용한 청탁을 할 때 이용된다고 한다.

평양시 중심가에는 해당화관과 비슷한 형태의 여러 층짜리 복합위락 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민성센터, 금별센터, 인봉센터, 천지센터 등의 이름을 가진 복합위락시설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급격히 늘어났다. 개인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이러한 복합위락시설은 대부분 목욕탕이나 한증탕, 식당,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식당에 부설된 노래방 룸에는 남한의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번호를 누르는 노래방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골고객이 되면 USB에 들어있는 중국노래와 영어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평양에 거주했던 20대 탈북민은 이러한 복합위락시설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겼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하는 수영장, 1층은 뭐 상점 또는 식당, 2층은 목욕탕, 3층 4층 헬스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센터가 엄청 많이 평양에 생겨났거든요. (중략)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목욕탕에서 연결돼가지고 수영장으로도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수영은 또 5달러이거든요. 그래서 5달러 더 내면 다 씻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밑에 내려가서 수영도 하다가. 쪽 이게 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수영도 하고 배고프면 그때 카운터에서 컵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례_평양 2: 28~29)

Ⅲ. 혜산 주민의 삶의 공간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1. 혜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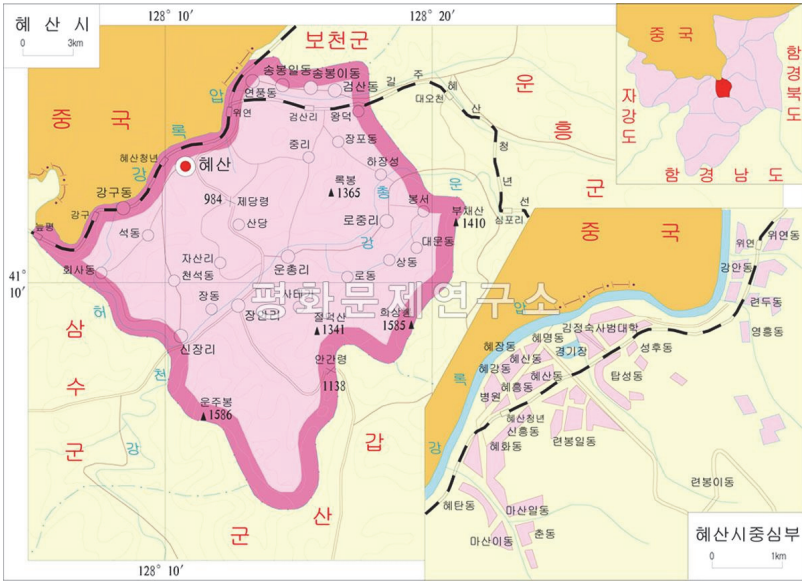
삼수갑산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메뇨
오고 나니 기험(崎險)하다
아하 물도 설고 산 첩첩이라

내 고향을 도로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지란(蜀道芝蘭)이 예로구나.
삼수갑산이 어디메냐.⁸¹⁾

위의 시는 김소월이 발표한 마지막 시로,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으로 1934년 11월 『신인문학』에 수록되었다. 김소월의 시에도 표현되어 있듯, 삼수갑산은 첩첩산중의 오지여서 한 번 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배지로, 현재의 양강도 삼수군과 갑산군을 일컫는 지명이다. 양강도의 도청소재지인 혜산은 중심부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멀고 가기를 꺼렸던 삼수갑산에 해당했던 지역으로, 1942년 혜산군이 신설되기 전까지 갑산군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혜산의 위상은 크게 변화되었다. 현재 혜산시는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백두산 혁명정신이 펼쳐진 혁명전적지의 관문도시이고, 경제적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변경무역의 중심도시이다.

⁸¹⁾ 김용직, 『김소월전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 96.

그림 Ⅲ-1 해산시 지도



자료: 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16: 량강도』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 p. 86.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양강도 해산시는 동쪽은 운흥군, 서쪽은 삼수군, 남쪽은 갑산군, 북서쪽은 보천군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마주해 있다. 1954년 10월, 양강도가 신설될 때 해산군은 해산시로 승격되어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해산시는 북부 내륙 지방의 행정, 교육, 산업의 중심도시이다. 2008년에 실시된 북한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해산시의 면적은 277km², 인구는 약 19만 2,680 명으로, 인구 규모로는 북한 도시 중 20위를 차지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혜산, 혜화, 혜흥, 신흥, 혜신, 혜강, 혜명, 탐성, 성후, 연두, 강안, 위연, 연풍, 연봉1, 연봉2, 영흥, 송봉1, 송봉2, 강구, 춘, 마산1, 마산2, 혜탄, 혜장, 검산 등 25개동과 장안, 노중, 신장, 운총의 4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삼림이 시 전체 면적의 3/4을 차지하며 임업과 광업이 발달하였으며,

방직, 제지, 신발, 화학 공장 등이 입지해 있다.⁸²⁾

혜산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도시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의 관문도시로 일컬어진다. 혜산시에서 나고 자란 40대 남성 탈북민(사례_혜산 3)은 혜산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 혁명전적지 관문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김일성이 그 빨치산을 하고 있을 때, 그 뭐 량강도 이 지역에서 많이 그러니까 전투를 했다고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게 보천보가 있고, 보천, 그리고 삼지연이 있고. 그 동상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동상들. 삼지연, 보천 일대. 그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고향도 백두산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백두산이 있는 량강도고.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량강도의 그런 중심도시. (사례_혜산 3, 1)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명전적지를 건설했다. 대표적인 것이 1967년도에 혜산시 중심부에 건립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으로, 이는 1937년에 김일성이 이끈 유격부대가 백두산 부근의 보천보에 있는 일본군 주재소를 기습한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보천보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양강도 일대에 김일성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동상, 기념탑, 사적비 등을 설치하여 “혁명, 전통, 교양의 대로천 박물관”으로 만들었고, 많은 수의 군인 및 학생들이 이곳으로 답사를 간다.⁸³⁾

혁명도시 혜산시는 최근 수십 년간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비사회주의 문화가 널리 퍼진 대표적인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혜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⁸²⁾ 이옥희, 『북·중 접경 지역: 전환기 북, 중 접경지역의 도시 네트워크』(서울: 푸른 길, 2011), pp. 160~161.

⁸³⁾ 연합뉴스, 『북한연감, 2016』, p. 1160. (<http://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2016/B/05_04.pdf> (검색일: 2017.08.22.).

조선족자치현 창바이와 마주 보고 있는데, 하천 상류지역이라 수심이 얇고 강폭이 좁아 일찍부터 양측 주민의 교류가 활발했다. 구리 등의 광물과 약초, 뗏목 등을 압록강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각종 생활용품과 의류, 약품 등을 가지고 들어오는 밀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북한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혜산은 변경 무역으로 인해 상업이 발달해 ‘리비아 혜산’으로 불렸다. 1980년대에 리비아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했던 북한 사람들이 구소련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살아 리비아는 부유함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리비아 혜산’이라는 말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혜산시의 생활수준을 표현한 말이다.⁸⁴⁾

혜산시는 중국으로부터 각종 물자, 정보, 문화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평양시와는 또 다른 성격의 국제도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평양시에서 유럽 및 세계 각지의 상품이 유통되고 달러가 통용된다면, 혜산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시장의 90% 이상이 중국 물건이며, 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위안화를 사용한다. 혜산시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개방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북한 주민들이 ‘짤다’, ‘머리가 텃다’라고 표현하는 개방성과 근대성은 옷차림, 자유로운 남녀관계,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 마약 등의 불법행위로 표현되기도 한다.

혜산은 위험하고 막 이렇게 함정 같은 곳이에요. 마약 같은데 많이 빠져 살고. 다음 중국의 연선이어가지고 성관계도 복잡하고 좀 그런 데인 거 같아요. 저희 혜산에서 대개 옷을 그렇게 짧게 입고 딱 붙게 입고 엄청 그렇게 입거든요. 그런데 평양 갔는데 그렇게 안 입는 거예요. 엄청 수수하게 입는 거예요. 더 비싼데 옷도 수수하게 입고 엄청 그래. 혜산은 나쁜데 많이 물들은 거 같아요. 젊은 애들은 빙두 같은데 많이 물든

⁸⁴⁾ 이옥희, 『북·중 접경 지역: 전환기 북, 중 접경지역의 도시 네트워크』, p. 62.

애들 많이 봤고. 엄청 나빠요. (사례_혜산 7: 18)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통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비공식적 무역인 밀수가 전면 차단당하면서 혜산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접촉의 장으로서의 국경의 기능보다 장벽으로서의 국경의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혜산시 출신 탈북민들은 중국과의 장사가 막히면서 혜산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꼭 막힌’ 도시가 되었다면서, ‘동트는 혜산’에서 ‘저물어가는 혜산’으로, ‘삼수갑산’ 시절의 혜산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경제난 시기에 타지역 주민들보다 앞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잘 견뎌 나갔던 혜산이 김정은 시대에 ‘고난의 행군’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남이 다 깨기 전에 장사를 했으니까. 다른 도 사람들보다 좀 그 머리가 트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못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트는 혜산이라 했어요. (중략) 그 전에는 좀 힘들어요, 생활이. 옛날에는 동트는 혜산이라 했는데, 지금은 저물어가는 혜산이라고 그래요. (사례_혜산 5: 5, 12)

2. 집

가. 거주지 변화와 주민 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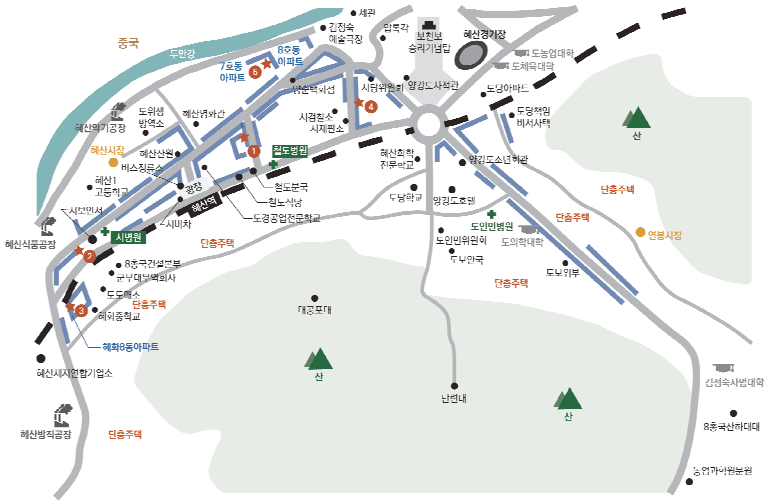
혜산시에서도 최근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중국 자본이 흘러들어와 아파트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한다. 다만, 평양시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혜산시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혜산 주민들은 ‘땅집’이라고 불리는, 여러 채의 단층집이 나란히 붙어 있는 주택에 거주한다. 혜산시는 평양시보다도 전기 공급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층아파트보다는 저층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한다. 혜

산시에 거주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해산시내 중심부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7층 이하로, 방 두 칸, 거실, 부엌, 욕실을 갖추고 있다.

해산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장사로 먹고살기 때문에 해산시의 일반 주민들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장사하기 편한 입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해산시의 중심부는 보천보 승리기념탑과 주변의 권력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정치 중심지와 해산역과 해산시장, 상점들이 밀집한 상업중심지를 아우른다. 이 중심부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을 마주하고 있다. 역전과 해산시장에 이르는 주도로 주변으로 환전상 거리와 무역관련 기관들이 입지해 있다.⁸⁵⁾ 이 지역이 해산 주민들이 주거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림 Ⅲ-2 해산시 중심부 지도

해산 지역 1



자료: 홍민(2016),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⁸⁵⁾ 홍민(2016),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 생략.

중심부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은 신흥동, 혜흥동, 혜산동 일대이다. 이 지역은 기차역과 혜산시장이 가까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차역에서 수하물을 받아 시장에 내다 팔기 편리한 이 지역에 살고 싶어한다. 이 일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역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신흥동과 혜흥동의 고급신축아파트들이 가장 가격이 높다고 한다(사례_혜산 3, 참고사례_혜산 3). 역전 주변 화물칸 앞에 있는 아파트들에는 물건을 도매로 넘기는 도매집들이 많이 입지해 있다. 혜화동에는 2000년대 초반 돈주들이 투자를 해서 아파트가 건설된 이후, 돈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주위의 오래된 단층 주택을 헐고 신규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도당위원회 주변의 혜명동, 보천보승리기념탑 부근, 혜산역 부근, 양순백화점 부근의 혜장동 등지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인기있는 거주지역이다. 최근에는 연풍동 일대와 같이 중심가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에도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다.⁸⁶⁾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롭게 택지가 조성되어 아파트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원주민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지지만, 평양시와 달리 건설이 계획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생활할 거처를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움막을 지어 산다고 한다. 살던 집이 철거되고 연풍동의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았던 30대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9)은 아파트 신축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해준다.

우리 지금 연풍동 같은 데는 지금 그게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뭐라는가? 개발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북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중략) 우리 집이 결국 철거됐

⁸⁶⁾ 위의 글.

거든요, (중략) 원래는 집을 줘요. 집을 주는데, 그 급작스레 하다나니까 없어요, 집이. 그러다보니까 그 연풍동 쪽에 한 10년 됐나? 한 8년 전부터 그 집을 아파트를 짓는다고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네 동인가 짓는다고 했는데 그걸 다 못 짓고 한 동만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두 동이 지금 기초만 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초를 주면서 이거를 건설해서 가져라. 자재는 대주고 건설도 해주는데 그게 지금 1년이 되겠는지 10년이 되겠는지 기약이 없어요. ((평양시의 고층아파트는 1년 만에 뭐 지었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야, 지어라” 해가지고 군대에다 임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국가투자를 완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암만 철거를 했어도. 뭐 김정은이 와서 “당장 이걸 올려라” 하면 1년에 돼요. 그런데 뭐 김정은이는 생각도 없어요. 그 인민들이 들고 안 일어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재가 다른 데 다 가고 나머지가 생겨야 여기를 주는데. 그러니까 돌격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너희들끼리 와서 지어라 하는데 그게 안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 갔어요. 뭐 동거하는 세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집이라도 사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막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별개 다 있어요. (중략) 나중에 건설하면 준다는 거죠. (사례_혜산 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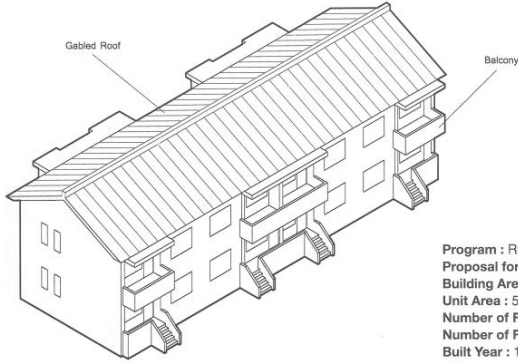
북한의 전형적인 살림집 구조는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실이 있고, 그 양 옆으로 거실과 부엌, 욕실이 있다. 두 개의 방은 전실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별도의 전실이나 거실이 있는 집은 상대적으로 큰 집이고, 방, 부엌, 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림 III-3 북한 살림집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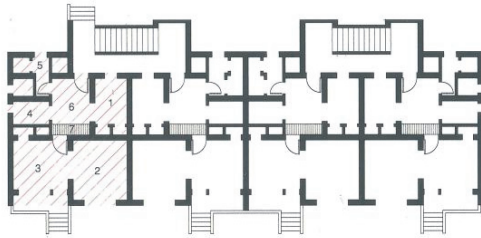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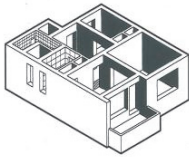
CHANGDONG-RI RESIDENCE



창동리 살림집



Program : Rural Residence
 Proposal for Sukchon-Gun
 Building Area : 260.1m²
 Unit Area : 57.32m²
 Number of Family : 8
 Number of Floors : 2
 Built Year : 1960's
 Reference : Chosun Architecture
 History III



- 1 Living Room
- 2 Floor Panel Heating Room
- 3 Wooden Floor Room
- 4 Kitchen
- 5 Bathroom
- 6 Fore Room
- 7 Wooden Floor



자료: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읽기』 (서울: 담디, 2014), p. 471.

2016년까지 해산시 중심가의 신축아파트에서 살았던 한 탈북민(사례 _해산 3)의 집은 방 두 개, 화장실, 부엌으로 구성된 구조였다. 그는 2010

년 이후 새로 지어진 신축아파트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규된 아파트들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좀 그래도 현대식이라고 해야 할까? 이전 옛날 지은 아파트들보다 방이 크고 세면장도 크고. 옛날 아파트들은 그저 세면장 들어가면 무슨 돌아설 자리도 없어요. (중략) (신축아파트는) 화장실 안에 무슨 물탱크도 있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세면도 하고. 여기처럼 샤워랑 그런 거는 없고, 여기처럼 부엌에 집집마다 가스가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은 없고). 아마 평양시쯤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사례_혜산 3: 9)

그는 수도물 공급은 원활하지 않아서 물탱크에 물을 받아놓고 썼는데, 물이 부족해서 직접 물을 길어오거나 물장수에게 사서 쓰기도 했다. 물을 아끼느라고 빨래한 물도 따로 받아두었다가 화장실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물을 50리터들이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어서 물장사꾼들이 또 다녀요. 이런 딸팔이에다 끌고 다녀요. 그럼 그것도 한 통에 또 북한돈 천원씩 주고 사요. 사서 먹죠. 우물 아니면 샘물이 나오는데 있어요. 그런 데서 이 장사꾼들은 자기 통을, 그 50리터짜리 통을 가져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아파트 밑에 내려와가지고 서 있어요. 그럼 아파트에서 물 없는 사람들은 한 통씩 한통씩 사 올려다가 쓰죠. (사례_혜산 3: 11)

또 다른 탈북민(사례_혜산 4)은 취사연료로 중국에서 수입한 15킬로 짜리 가스통을 사다 가스렌지에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가스는 가격이 비싸서 보편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방에는 온돌이 깔려 있어 아궁이에 나무를 때서 난방과 취사를 겸한다(사례_혜산 3: 10). 일반적으로는 여름에는 난로에다 구멍탄을 피워 밥을 하고, 추울 때는 탄이나 나무를 때서 난방과 취사를 겸한다고 한다(사례_혜산 5).

혜산은 평양보다도 전기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아, 면담했던 거의 대부분의 혜산 거주 탈북민들은 명절 며칠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

다고 말한다.⁸⁷⁾ 평소에는 전기는 꿈도 안 꾸고, 어쩌다 전기가 들어온 날에는 전기제품을 하나하나 다 켜서 동작을 시켜보며 신기해할 정도였다고 한다(사례_혜산 9).

혜산시 주민들은 국가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산 ‘태양빛판’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전력 사정이 어려워지자 북한 당국은 양강도 삼지연군을 비롯하여 곳곳에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자연에너지 개발을 적극 권장하며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가고 있다.⁸⁸⁾ 2013년 「재생 에너지법」 제정 이후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태양광 에너지 활용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⁸⁹⁾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서 태양광 에너지 확산이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 전력난으로 인해 가정용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혜산시 주민들은 집집마다 ‘태양빛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조명을 해결하고 소형가전을 구동시키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태양열 집열판은 접경 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촌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200위안 정도에서부터 1,000위안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⁹⁰⁾의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

⁸⁷⁾ 2016년 5~6월경 당대회를 전후로 하여 이례적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했다고 하는 증언도 있는데(혜산_사례 9),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발전소 건설 등으로 전기 사정이 좋아진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⁸⁸⁾ “북한, 풍력, 태양광 늘려 에너지난 돌파구 모색,” 『에너지경제』, 2017.07.19.,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0975>> (검색일: 2017.09.21.).

⁸⁹⁾ “北, 태양광 에너지 독려…전력난 대안 되나?,” 『KBS』, 2016.12.0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8096>> (검색일: 2017.09.21.).

⁹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되는 태양열 집열판 가격은 50W짜리 44달러(『로이터』, 2015.04.22.), 120W짜리 1,200위안(『남북의 창』, 2016.12.03.), 250W짜리 1,500위안(일본 관광객 취재, 2017년 4월) 등 수준이다. 김민관, “북한의 태양광 에너지 활용 현황과 전망,” 『주간KDB리포트』, 제737호 (2017), p. 21.

여 낮에 충전기를 충전해 놓았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조명이나 가전제품에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림 III-4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북한의 아파트



자료: AP/연합뉴스 제공.

나. 주택 부족과 확대가족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1990년대 중반 70%에서 경제난 이후 50~6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추정된다.⁹¹⁾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결혼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도 더 이상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화되었다. 혜산시에서도 평양시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개인건설업자, 돈주와 연합하여 신규 택지나 오래된 주택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 아파트나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직장이나 기관으로부터 새 주택을 배정받았어도 내부로

⁹¹⁾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서울: 선인, 2005), pp. 246~252 참조.

단장하거나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고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신에게 배정된 집을 판다. 새로 건축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려면 거주등록을 위한 서류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뇌물이 개입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주택을 매매하는 일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집이라는 거 지어 주면 이제처럼 사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벽만 미장만 해 줘요.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꾸릴 힘이 없으면 집을 팔아요. 내가 입사한 명의로 팔죠. 다른 사람한테 너 들어와라, 살아라, 내 이름으로 하고. 입사증은 뗄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동의하면 돈 내면 되거든요. 돈을 좀 고여 찢러 주면. 그렇게 돈을 받아서리 명의 변경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받은 다음에 건사하려면 또 힘들어요. 아파트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관리원들이. 관리원들이 그러니까 서이 앉아서 말해요. “이 사람한테 넘겨 준다는 거 아냐?” 그러면 관리원이 이 사람 명의로 된 입사증을 도시경영부 가서 다시 새로 오는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안 해 주거든요. 그 사람이 왜 가냐 뭐 어찌냐 하고 조사로 만들려니까 힘드니까 돈 톡 찢러 주면 그저 군소리 없이 이름 바꿔 줘요. 그렇게 입사증 하는 거 일반화되어 있어요. (참고 사례_혜산 3: 60)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살만한 경제력이 없는 주민들은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 집을 구해 분가하는 것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살기도 한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집의 거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살 집이 없어진 사람들도 월세를 주고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 한 칸을 얻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동거’라고 한다. 월세를 주고받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지만, 빈민층의 경우에는 작은 돈을 월세로 내고 다른 가구와 ‘동거’를 하는 방법 이외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집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동거로 들어가요. 여기 식으로 말하자면 월세. 방 하나 빌려가지고 월세를 내곤 하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위안화로) 50원. 월셋집이죠. 그런데 여기처럼 국가적으로 승인된 월세가 아니고 그저 동거로 살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단속해요. 거주가 없잖아요, 월셋집은. 거주를 한번 붙이는 게 완전히 힘들어요. (중략) 내가 승인 받은 원인이,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소를 옮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군사, 이 적이가 많잖아요. 식량 적, 군사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라 하면 기업소에서 하는 건데, 그건 괜찮은데 군사 적 있잖아요. 민방위, 여기서리. 우리가 다 전민복무제라 해가지고 내가 나이 55세 되기 전에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옮기자하면 문건이 힘들고 하니까 안 옮기고, 가서 동거로 해서 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고 돈 받고. “아니, 생활이 힘들어서 왔는데 집도 없고 하니까 그저 몇 달을 우리가 같이 있자고 한다.” 하면 보안원 아들도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고 그 생활이 힘든 거 아니까 소리 안 나게 있으라고 돈 좀 받고. (참고사례_혜산 3: 56~57)

국가적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은 결혼 후에도 상당 기간 분가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때 집을 사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은 최고의 신붓감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는 결혼할 때 신랑측에서 집을 준비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쪽에서 살 집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신부 측이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친정 근처에 집을 마련해주고 결혼한 딸을 가까이 두고 살기도 한다(사례_혜산 2). 이와 같은 현상은 주택 부족과 주택 매매 확대가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경제력의 힘이 가부장적 사고를 압도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 가지집에서 집을 사 뒀어요, 집을. {신부 쪽에서 집을 사주는 게 선생님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가리지 않아요. 물론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집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원칙은 원칙이죠.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서로 합의해서. 그러나 마음에 든다, 서로. 남녀간에 서로 맘에 들고, 가시부모나 시집부모나 서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너네 남자 쪽에 힘들고…. 다 그것도 저희 새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례_혜산 6: 27)

여자 쪽도 집을 많이 사 줘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집을 사 주는 부모도 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딸을 더 중시하는 거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 부모들은 딸한테 더 의지하려고 하고. 며느리를 들여 봤자 딸보다 못하다고. (사례_혜산 2: 17)

주택 부족은 또한 확대가족 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난 시기에 부모의 사망과 여성의 탈북,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해체 현상이 만연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혜산시에서는 오히려 결혼한 자녀와 부모세대, 친척 등이 확대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결혼한 자녀가 분가하지 않고 부모나 다른 친척과 함께 생활하는 이유는 앞서 서술한 주택 부족과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혜산시에 거주했던 한 60대 남성 탈북민(사례_혜산 8) 부부는 결혼한 딸과 사위, 손주, 아들과 며느리까지 3대가 다 함께 두 칸짜리 집에서 생활하였다. 사위는 타 지역 출신인데, 군 복무 중 혜산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집을 따로 얻을 형편이 안 되어 처가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아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이 탈북민은 많은 식구가 좁은 집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면도 있었지만, 함께 살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고 장사나 농사일, 손주 양육 등 가족 간에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 등 좋은 점도 많았다고 말한다. 그의 확대가족 내에서 경제생활을 책임졌던 사람은 딸이다. 딸이 돈을 벌어 확대가족의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자신의 남편의 대학공부 뒷바라지를 했고, 부모는 집안 살림과 손주의 양육을 도맡았다.

(분가해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돈이 없고. 국가가 집을 내놓았지만은 다 개인이 돈을 쥐서 사야지만은 자기 들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합해서 살게 되면 좀 생활하기도 조금 험하고. 불편한데는 있지만은 먹고 살고 하는 일에서는 멍쳐서 이렇게 장사랑 같이 해서 같이 먹고 살고. (사례_혜산 8: 19)

다. ‘손오공’과 결혼제도의 이완

집을 단순히 시멘트와 골조로 이루어진 물리적 구조물만이 아니라 부부가 중심이 되는 생활공동체, 즉 ‘가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혜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집과 관련되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집의 의미에 대한 생각과 집의 구속력일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시장화 추세가 더욱 확산되고 계층 간 격차가 증가하면서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현재 경제적 능력은 혜산 주민들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결혼은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에 기반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공동체를 선택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혜산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손오공’이라는 신조어는 결혼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이다. ‘손오공’은 배우자로 이상적인 여성을 의미하는데, 혼수품으로 손전화(휴대전화)와 5장6기⁹²⁾를 해올 수 있고, 남편 대학 공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여성이라는 뜻이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경제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이 되면서, 여성의 많은 나이나 재혼 사실은 더

⁹²⁾ 5장6기는 북한에서 결혼을 할 때 가져가는 기본 혼수품을 뜻한다. 북한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장만하는데, 이 5장6기의 질과 양에 따라 경제력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5장6기는 북한의 가정에서 쓰이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장’이나 ‘기’로 끝나는 것이 많다는 데 착안한 말이다. 꼭 5개의 ‘장’과 6개의 ‘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장으로 옷장, 이불장, 장식장, 책장, 찬장 등을, 6기로 냉동기, 세탁기, TV수상기, 선풍기, 녹음기, 재봉기 등을 꼽는다고 한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104.

이상 결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지금 북한에 보게 되면 뭐 ‘손오공’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오공이라는 게 ‘손’자가 손전화예요. 손전화를 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택할 때 여자가 손전화를 사줄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오’자가 오장육기 해줄 수 있는 여자. ‘공’은 공부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 이렇게 해서 손오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주는 여자를 선호하거든요. (중략) 내가 돈이 많은 여자예요. 손오공을 준비해줄 수 있는 여자니까. 그 남자가 못 살아요. 돈도 없고 경제도 없어요. 그런데 똑똑하고 또 뭐 갖출 거 갖췄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요구해요.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내세워줘요. 토대만 좋으면,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러니까 남자도 내가 집이 형편없이 못살아요. 못사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잘생기고 똑똑해요. 하면 잘사는 집에서 끌어요. 사위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공부시키고 내세워줘요. {언제부터 막 이렇게 손오공 얘기가 돌았어요?} 손오공은 한 5년 전부터고, 10년 전부터는 여자들이 경제력 있으면 못사는 남자라도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를 끌어요. (사례_혜산 9: 43~44)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혜산 출신의 젊은 여성 탈북민들은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형태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말한다. 특히 이삼십대 젊은이들 속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문화도 확산된다고 한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이혼을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동거를 하고, 동거를 하다가 결혼하거나 헤어지기도 한다고 말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은 손가락질받을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 나가는 ‘깡 사람’의 행동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등록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굳이 너 왜 등록을 안하냐고 이렇게 안해요. {그것도 한 10년이나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혼하기가 어려워서 등록을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첫째 이유는 이혼하기가 힘들어서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등록을 하는 게 내가 이 사람하고 무조건 살아야되겠다 하면 결혼 등록을 무조건 해요. 그런데 좀 긴가민가하죠? 그러면 안 하고 그냥 살아요. 대개 걀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하면 등록을 해주는 거고, 뭐 잘못하면 갈라지는 거고, 지금은. 그전에는 뭐 한번 갔다 오면 막 엄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엄중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굳이 자기가 똑똑하면 총각한테 갈 수도 있고 뭐 처녀한테도 갈 수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내가 굳이 결혼하고 애 낳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막 구박을 받는 건 아니예요. 내가 돈 잘 벌고 잘 나가요. 그러면 총각하고도 살 수 있어요. 굳이 뭐라고 안 해요. (사례_혜산 9: 41)

이혼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조선, 그 서류로 이혼하기가.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저 언니 오빠들 결혼 제대로 하고 이혼 제대로 하고 사는 거 못 봤어요. 주위에 사람들, 저 오빠들도 결혼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혼 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살았고. 그런 게 불가피한 거 같아요. (사례_혜산 7: 11)

북한에서는 경제난 시기 가족 해체 현상이 만연하면서 가족이 국가적 통합구조에서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경제난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묶여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면서 전국 각지로 장사를 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8·3 부부’라고 하는 일종의 ‘불륜커플’이 생겨났고, 사실상의 이혼이 급증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북한 당국은 사회의 ‘세포’인 가족 단위를 안전하게 확립할 때만이 유기체로서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기초로,⁹³⁾ 경제난 이후

⁹³⁾ 박현선, “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334.

국가의 실패를 가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재가족화를 강화하는 담론에서는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⁹⁴⁾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적어도 혜산시에서는 세 포로서의 가족을 구성하고 결속시키는 결혼제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난 시기부터 시작된 가족관계의 변화는 시장화 확산과 물질주의, 중국의 영향으로 인한 이성관계에서의 개방성 등의 요소와 결합되면서 생활공동체로서의 집의 의미와 결혼제도와 관련된 주민들의 행위양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일터

가. 가동을 멈춘 지방공장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과 독려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부 중앙공장·기업소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방기업소는 현재 가동을 멈추거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혜산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혜산시 출신의 탈북민들은 혜산에는 “굴뚝에 연기 나가는 공장이 없고” 공장들은 다 ‘폐허’라고 말한다(사례_혜산 3, 참고사례_혜산 4). 지방공장 중에서도 몇 개 유형의 공장들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가동률이 높은 공장들도 있다. 지역 경제 운영에서 중요도가 높은 공장, 원자재 공급이 원활한 공장, 기본적인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업종, 합영기업소의 하청공장 등의 유형의 공장이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들이다.⁹⁵⁾ 혜산식료공장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공장으로서, 된장, 간장, 과자, 사탕 등을 생산하는 4급 규모의 공장인데, 혜산 주민들의 명절 공급을 위해 명절을 앞두고는 정상가동되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2주 정도 가동된다

⁹⁴⁾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 (2016), p. 59.

⁹⁵⁾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pp. 123~124.

고 한다. 혜산 일대에 임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 부문에서 목재를 들여와서 가공하는 목제일용공장도 일정정도 생산이 유지되고 있다.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으로서 혜산신발공장이 있다. 혜산신발공장은 혜산시에서 규모가 큰 공장으로서, 노동자들이 정상출근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신발의 디자인은 예쁘지 않지만 중국산 신발보다 튼튼해서 돌격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많이 공급된다고 한다 (참고사례_혜산 4). 1급기업소인 혜산청년광산은 중국과 합영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에게 배급과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⁹⁶⁾ 이 이외의 대부분의 지방공장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동 중인 공장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능력과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몇 개의 공장·기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급과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으로 배급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세대주’인 남성과 미혼여성은 반드시 직장에 소속되어 조선직업총동맹,⁹⁷⁾ 청년동맹 등의 사회단체활동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장·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직장에 출근해서 몇 시간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해서 장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생계활동을 한다.

오전에서 오후까지 하루종일 일을 안 해요. 일을 할 필요가 없

⁹⁶⁾ 위의 책, p. 87.

⁹⁷⁾ 조선직업총동맹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노동당 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모든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북한 지식 사전』, pp. 596~597.

어요. 오전만 일해요. 대체로 오전만 일했어요, 대체로 우리 오전만 일했어요. 다른 게 제기되는 게 없으면. 뭐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이제처럼 제절로 벌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오전이면 또 할 일이 충분해요. 자재 구입이나 그런 때는 나가다니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와 다니기도 하는데, 오후에는 자기 절로 매 가정에서 자기 그 장사를 하죠. (사례_혜산 6: 16~17)

한 40대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2)은 2000년대 중반까지 행정부서의 사무직으로 일했다. 배급은 받지 못했고 임금만 받았는데, 한 달 임금으로는 쌀 몇 킬로밖에 살 수 없었다. 그는 직장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전에만 근무를 하고 점심 전에 퇴근을 해서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그는 직업이 두 개였냐는 연구자의 말에 공식직장은 “별이가 너무 안돼서 직업이 두 개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공식적인 일자리는 직업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경에 그는 큰 별이가 안 되는 시장 장사를 그만두고 밀수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밀수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오후 시간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무직 직종은 할 일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공장으로 이직을 한다. 그 공장에서 그는 직장에 매달 20 위안씩을 납부하고 출근 자체를 면제받고 밀수와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업소에 납부하고 출근과 사회적 동원노동, 생활총화, 정치학습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장에 돈을 내는 대신에 시장활동에 참가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직장 소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직’일 경우에 받게 되는 각종 통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⁹⁸⁾ 지방공장은 가동률이 낮고 일감이 없기 때

⁹⁸⁾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p. 137.

문에 자재와 전기 등 생산 여건이 충족될 경우만 일부 노동자들에게 생산 노동과 국가적 동원노동을 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8.3노동자들은 출근시키지 않고 대신 이들에게 돈을 받아 기업소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운영방식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지만, 자체 수익을 내서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공장들은 8.3노동을 적극 활용한다. 혜산 출신의 한 탈북민(사례_혜산 1)은 혜산시 지방공장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북한 공장기업소들이라는 게, 그 원료, 자재, 전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서 외화벌이를 해오라. (중략) 국가가 운영을 못하니까 다 자력갱생에 들어간 거죠. 그때 자력갱생 구호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회사 자체도 회사 관리자 분들이 직원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물론 비법적이었어요. 합법적인 거 한 건 아니에요. 명색이 사회주의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없는 걸 비법으로. 야, 이거 너도 먹고 살고 회사사장인 나도 먹고 살고, 국가도 먹고 살고. 이런 방향에서 하면서 내가 벌어서 오면은 그 관리자는 그냥 회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것도 없으면서 나와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나와서 환경정화활동 같은 거 하든가 뭐 건물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좀 그렇게 외화를 벌어들여올 수 있는 직원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례_혜산 1: 4)

나. 국경 밀수와 유통

경제난 이후 혜산 주민들의 주된 생계수단은 중국과의 밀수 및 이와 연관된 상행위이다. 시장상인과 같이 직접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이 외에도, 장사 밀천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돈장사와 환전상, 밀수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는 하급관료와 간부, 군인 등 많은 혜산 주민들이 밀수의 혜택을 본다. 혜산 주민들은 김정은이 집권하여 국경통제를 강화하기 이전 시절에는 “밀수하는 사람이 열세 명을 먹여 살렸다”고 말한다.

밀수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열세 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밀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저 뒤에 사람 열세 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다가 밀수품을 넘기면 내같은 거간꾼이 또 하나 뒤에 있죠. 또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죠. 또 물건을 땅에서 캐는 사람이 있죠. 또 그걸 또 거기에서 거간하는 사람 있죠. 어쨌든 줄줄이 줄줄이. 그 다음에 안전원, 아닌 게 아니라 보위부, 무슨 거, 그런 사람들까지 어쨌든 열세 명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데 밀수를 딱 막아놓으니 까 그 열세 명이 다 직업을 잃었어요. (사례_혜산 5: 11)

혜산 주민들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내걸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1980년대 초부터 밀수를 시작했다. 1960년대에 혜산에서 태어나 성장한 탈북민(사례_혜산 5)은 경제난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인들이 혜산으로 건너와 시장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1983년 북중 양측이 화교와 조선족들의 조국방문이나 귀국을 위한 통관세 면제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부터 화교와 조선족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시작했다. 국경 일대의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통제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도강증만 있으면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⁹⁹⁾ 이런 상황 속에서 혜산시장은 중국 동북지방 상인들의 판매시장으로 자리매김했고, 일찍부터 중국물건들이 거래되었다. 혜산 주민들 중 ‘트인’ 사람들이 일찍부터 변경무역에 눈을 떴기 때문에 경제난 시기에 혜산은 대중 민간 교역의 교두보가 되었고, ‘동트는 혜산’이라 불렸다.

경제난 시기를 지나면서 “남자라고 생겼으면 밀수를 안 해본 사람은 축에도 못 끼우는 추세가 됐다”고 말할 만큼 밀수는 혜산주민의 보편적인 생존방식이 되었다. 혜산에서 태어나 1990년대 초반부터 밀수를 시작한 최광일도 그들 중 하나이다. 처음 밀수를 시작했을 때 그는 사계절 내내 집을 메고 압록강을 건넜다. 북한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중국 상인

⁹⁹⁾ 강은주, “국경 없는 국경도시, 혜산시장,” 『월간북한』, 533호 (2016), p. 98.

에게 건네고, 중국 상품을 지고 와서 혜산의 소매상들에게 넘겼다. 강을 건너는 밀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졌으며, 국내에서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은 여성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최광일에 따르면, 1990년대에만 해도 밀수로 적어도 네 배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으나, 2000년대 전후로 ‘너도 나도’ 장사에 참여하면서 이윤폭이 점차 감소되었다. 최광일은 초기에는 금속류나 약초를 중국으로 보내고 담배와 당과류를 받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밀수를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내보내는 물건은 줄고, 대신 돈을 주고 녹화기나 의류 등 중국 상품을 사서 들여오기 시작했다. 장사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소규모 장사로는 이윤이 남지 않자 그는 2톤 트럭을 사서 장사 규모를 늘렸다.

(저도) 차를 하나 샀어요. 두 톤짜리 트럭. 그래 트럭 사가지고. 북한에는 이렇게 개인차를 장려 안 해줘요. 법적으로 그건 금지예요. 개인 사유, 사유재산 이거 금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차를 샀지만 이게 내 차가 아니예요. 어느 국가기관에다 등록해야 돼요. 그래 어디다 등록할까 이래 보다니니까 OO병원에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등록해놓고 그거 그 다음부터 운전기사로 그거, 그래갖고 내 별이를 다녔죠.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 차를 좀 쓸 일이 있다 할 때는 휘발유고 뭐이고 내가 다 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일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체 내 자유죠. 그 차를 가지고 그거 전문 밀수하고 밤낮으로 밤잠 자지 않고 돈 벌었죠. (최광일: 9)

장사 규모가 늘어나자 사람이 직접 상품을 지고 국경을 통과하는 대신 뗏목에 짐을 가득 실어 강을 건너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뗏목이 강기슭에 도착하면 대여섯 명의 일꾼을 써서 짐을 끌어올려 트럭에 실었다. 밤새 여러 번을 그렇게 강을 오가며 짐을 나른 후 상품을 트럭에 싣고 가서 국내 도매상에게 넘겨주었다. 물품대금과 일꾼들의 품삯, 국경경비대 뇌

물을 제하고 남는 것을 이윤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국내의 물건값이 내려가서 트럭으로 크게 장사를 해야 이윤이 남았다.

처음에는 중국쪽으로 물품대금을 보내기 위해 위안화를 비닐에 싸서 강 너머로 던져주는 방법을 썼지만, 차츰 ‘돈장사’라고 불리는 송금중개인을 통해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송금 방법이 바뀌었다. 북한 상인에게 돈을 받아야 할 중국인과 돈을 줘야 할 중국인 간에 중국 현지에서 돈을 주고받고, 중국 상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북한 상인과 돈을 받아야 할 북한 상인 간에 북한 내에서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취하면, 중국과 북한 간의 송금 없이도 물품대금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혜산시의 ‘돈장사’들은 중국과의 통화가 가능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북한과 중국에서 각각 돈을 주고받아야 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¹⁰⁰⁾ 2000년대 이후 중국산 휴대전화가 혜산지역에 널리 보급되면서 밀수꾼들은 중국의 거래처와의 계약과 상품 반입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송금중개인을 끼고 거래대금 지불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밀수를 통해 북한 내부로 반입된 상품은 혜산시장에 집결되고, 여기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북한 내륙 지역으로 유통된다. 상품이 유통되는 방식도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혜산 출신의 한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5)은 경제난 시기에 혜산에서 기차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물건을 가져다 파는 ‘달리기’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기차가 일반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전국 각지를 오가며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인해 기차는 매우 붐볐다. 서로 먼저 기차를 타려고 다투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단속원들에게 담배 등의 뇌물을 주며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힘들

¹⁰⁰⁾ 구체적인 송금 방식에 대해서는 박영자, “북한의 사금융시장,”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역음, 『북한의 금융』, pp. 205~208 참조.

였지만, 부지런히 일한 만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19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달리기’에서 ‘짐쏘기’로 장사 방식을 바꾼다. ‘짐쏘기’는 직접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화물로 짐을 부쳐 장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남포에 있는 지인과 연결하여, 혜산에서 기차 화물칸에 짐을 실어 보내면 남포에서 지인이 받아서 팔고, 남포에서 다른 물건을 실어 보내면 혜산에서 받아서 파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다.

2000년대 들어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개인운영 버스가 등장하면서 기차 대신 운송 시간이 짧고 다양한 지역으로 운행하는 장거리버스가 ‘짐쏘기’에 활용되었다. 중국에서 상품을 들여와 전국으로 직접 보내는 상인들도 많이 생겨났다. 운송시간이 단축되고 운송망이 넓어지다보니 상품 가격이 전국적으로 균질화되고 이윤폭이 줄어들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상품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화물차가 등장했다. 자본이 있는 돈주들이 유통업에 뛰어든 것이다. 이제는 상인들이 판매지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화물차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식품, 의류, 공업품, 건축 자재를 실어나르기 위해 혜산에 집결한다. 15톤, 20톤짜리 차를 여러 대 소유한 자본가들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나르다 보니, 개인이 직접 물건을 지고 이동하여 팔던 ‘달리기꾼’이나 ‘짐쏘기’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일을 했던 한 탈북민(사례_혜산 5)은 지난 이삼십 년간의 상품유통 방식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차에 한 번 부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게 빨리 나가야, 같은 물건이지만은 자기가 보내는 물건이 빨리 나가야 온전한 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저 뇌물 먹여서라도, 돈을 먹여서라도 빨리 그걸 싣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컨테이너, 10톤짜리, 20톤짜리 무슨 그런 큰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 차가 이젠 직접 다니거든요. 너무나도 이젠 차가 다니지 않으니깐 사람들 이젠 머리를 써가지고 그 큰 차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그 큰 차를 가지고 짝 전국 각지로 나가요. 평양, 평성 무슨 짝 다 나가요. 그렇게 해서 평

성 같은 데서는 다시 이렇게 이관해서 또 이렇게 그 가지들이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기차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례_혜산 5: 9)

화물차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게 되자, 짐들을 하역하는 노동자와 운
전기사가 증가하고 창고업도 발달하였다.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물건 가
격도 낮아졌다. 반면, 무역업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물건을 직접 실어 나
르며 장사를 하는 중개상인들은 사라지고 있다. 화물차와 창고를 소유한
이들은 서로 팀을 이루어 장사를 하면서 자본을 불려나가는 반면, 작은
자본을 가진 개인 장사꾼이 이윤을 내기는 어렵게 되었다. 혜산 주민들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북한 시장의 모습이 자본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한다.

저들은 위에서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밑에 백성들
은 이미 전에 벌써... 이제는 자기네 방식으로 몽땅 자본주의
가 다 들어갔어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그룹이 형성
되고, 장사꾼들끼리 그룹 팀을 형성해가지고 가족끼리, 아는
지인들끼리 이렇게 세분화가 돼가지고 전문화로, 전문화 쪽으
로 나가요. 중국에서 세관으로 짐 끄는 놈은 전문 짐 끌어서
장사꾼한테 넘겨주면 또 장사꾼들은 또 계속 소매꾼들한테 넘
겨주고, 또 전국으로 내보내는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내보내
주고 그래요. 이젠 딱 정말 자본주의예요. (사례_혜산 3: 20)

다. 국경통제와 일터의 변화

혜산 주민들은 김정은 시대를 “국경통제의 시대”라고 말한다. 북한 당
국은 2015년경부터 압록강변에 2미터 이상 높이의 철조망을 설치해서,
탈북과 밀무역뿐 아니라 강으로 빨래를 하러 내려가는 주민들의 일상생
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가시적인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중국산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상인들이 중국 상인들과 통화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국경 통제와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

제가 강화되면서 직간접적으로 밀수와 연결되어 먹고 살던 대다수의 해산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되었다. ‘동트는 해산’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산은 지금에 고난의 행군 들어갔어요. 최근에 확률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 최근에 해산에서 오는 사람들, 량강도에서 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전에는 다 함경도, 함경북도나 함경남도 이쪽에서 많이 왔지 않아요? 해산시는 이전에는 별로 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 2013년도에 군림 하면서 올라서가지고 국경경비대를 국가보위성에 다 배속시켰어요. 예전에는 그 무력부 소속이 됐는데, 군대 소속이 됐는데 이제는 군대가 아니고 보위성이다가 다 배속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력부에 있을 때는 이 사회보위원들이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해도 이 사람 잡아 못 갔어요. 지금은 같은 보위성에 있으니까 일반 사회보위원들도 자료만 있으면 바로 와서 잡아가요, 이제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밀수가 꼭 막혔거든요. 밀수가 막히면 해산시는 못 살아요. 과일도 안 나와 쌀도 안 돼, 그 다음에 이 밀수도 안 하면 해산시는 산신령이 예요. 뭐라고 말할까? 딱딱 이렇게 갇힌 곳이에요. 전기도 없어, 뭐 평양하고도 거리가 멀어. 뭐 정말 힘든 고장이예요. (사례_해산 3: 13)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검열이 강화될 때를 제외하고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 밀수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2012년경 국경경비업무가 군 인민무력부¹⁰¹⁾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관할로 넘어가면서 국경통제가 강화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 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 국가보위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¹⁰²⁾ 이전에는 밀수행위 적발 시 경찰과 검찰

¹⁰¹⁾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2016년에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역음, 『북한 지식 사전』, p. 512.

에 뇌물을 주면 어느 정도 무마가 가능했지만, 국경통제가 국가보위성 관할이 되면서 뇌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밀수와 도강 등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여러 기관의 교차검열이 강화되고, 적발 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었다. 헤산시에서는 인민반¹⁰³⁾에서 주민들이 ‘자위경비’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국경지대를 순찰하도록 하였다(사례_헤산 6). “돈이 힘이고 돈이 배짱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헤산주민들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경험하면서, 돈을 능가하는 국가 권력의 힘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권력과의 연계가 가능한 이들은 당·군·행정 기관 산하에서 무역 허가를 받는 공식적인 외화벌이회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계속해나간다. 국경통제 강화는 국가의 통제권 밖에 있던 밀무역을 공식적인 무역의 범주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력과의 연계가 어렵거나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밀수꾼과 도매상들은 국경통제가 강화되고 도매·유통업에 대형 자본이 집중되면서 기존에 하던 일을 접게 된다.

헤산 출신의 한 여성 탈북민(사례_헤산 5)은 밀수품 중개 도매상을 하다가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2014년경부터 생계가 막연해져서 거리에서 음식장사를 하게 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채소로 소를 넣은 큰 만두인 ‘남새빵’과 순대를 만들어 점심때 시내의 아파트단지 앞에 나가 팔았다. 오후에는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손질을 해놓고 저녁 무렵 다시 아파트 앞에 나가 9시까지 저녁장사를 했다. 시장처럼 자릿세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인민반에 청소비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지불했고, 아파트 앞마당 청소도 매일 했다.

2014년까지 헤산에서 중국으로 약초와 가죽을 보내는 밀수일을 했던

¹⁰²⁾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2016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p. 337.

¹⁰³⁾ 인민반은 북한의 최말단 행정 통제조직으로, 모든 북한 주민은 20~40 가구 단위로 편성된 인민반에 소속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북한 지식 사전』, p. 521.

또 다른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9)은 2015년부터는 아예 밀수가 막혀 몇 달간 “이전에 번 돈을 푸드러 먹으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뜨개질로 만든 모자와 가방을 중국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가내 하청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뜨개질 하청일을 시작했다. 출근은 하지 않고, 하청일을 관리하는 ‘회원’에게서 실을 받아다가 집에서 작업을 하고 완성품을 가져다주었다. 납품한 물량은 품질에 따라 단가가 책정되었고, 작업량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뜨개질 하청일로 쌀 1kg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일당을 벌 수 있었다. 당시 밀수가 막히면서 시장에도 상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성 상인들도 다들 장사를 하면서 앉아서 뜨개질 부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2015년에 청진시에서도 몇 달 거주했는데, 그곳에서도 여성들이 뜨개질 하청일을 했고, 재단한 천을 가져다가 재봉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가내수공업도 성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어 중국과의 밀수길이 막히고, 유통·판매의 전문화와 자본의 집중으로 인해 소규모 소매업 이외의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밀수와 장사로 삶을 유지해왔던 혜산 주민들은 새로운 생존방식을 다양하게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방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밀수와 장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직은 가내하청일이나 영세한 음식 장사 같은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대외무역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민간 부문에 화폐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내수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장이 여러 분야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수시장의 형성은 시장화를 더욱 진전시키면서 국내의 산업연관을 일부 복원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¹⁰⁴⁾ 혜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새 일터는 북한의 내수시장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지방 산업

104) 양문수, “시장화 측면에서의 김정은 체제 5년,” p. 130.

시설의 재가동으로 연결될 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

가. 공교육 개선과 학부모의 선택권

1990년대 경제난은 북한의 사회 인프라 전체의 질을 저하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 부분의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난 시기 학교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다.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북한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 왔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학제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 변화는 학교 현장과 그 안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최근 혜산시에서 중등학교를 다니거나 자녀를 초중등학교에 보냈던 탈북민들은 대체적으로 북한 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이 개선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은 2013년에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새 교과서를 편찬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한 탈북민(사례_혜산 9)에 의하면 학제 개편 이후 컬러판으로 인쇄된 새 교과서가 혜산시의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되었다.¹⁰⁵⁾ 개정 교과서는 내용과 외형 면에서 이전 교과서보다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교육내용이 구조화되고 계열성이 강화되었으며 서술 방식은 간략화되었다. 조판, 삽화를 개선하고 활동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였다.¹⁰⁶⁾ 교육 당국은 평양시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¹⁰⁵⁾ 함경북도의 농촌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한 탈북민(참고사례_함북 2)도 2014년 새 교과서의 보급률이 100%였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발간과 보급이 큰 차질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¹⁰⁶⁾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252~253.

과목별로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입각한 시범수업을 촬영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였고 방학 때는 지역별로 교원들을 선발하여 시범수업을 조직하고 교원강습을 진행하였다(참고사례_함북 2).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학생 출석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산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나 교사들에 의하면, 해산시 중등학교의 출석률은 지역과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80%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¹⁰⁷⁾ 해산시에서 중학교 교원과 개인교사를 하다가 2013년에 탈북한 한 탈북민(참고사례_해산 8)은 당시 학생들의 출석률이 80% 정도였다고 증언한다. 2014년까지 고급중학교를 다녔던 한 탈북민(사례_해산 7)은 재학 당시 학교 출석률이 70% 정도였는데, 그 중 10%는 완전히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고, 20%는 자주 결석하는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석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학생 중에는 남자를 사귀면서 “다른 사회생활에 물 젖어서” 결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2013년까지 해산시에서 중학교 교사를 했던 한 탈북민(참고사례_해산 5)은 학급에서 20~30%의 결석생 중 장기결석생이 5% 정도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장기결석을 했다고 한다. 경제적 하층 집단 주민들에게 생존은 공부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사례_해산 2). 한 탈북교사(참고사례_해산 5)에 의하면 장기결석생 이외에도, 취학자 명단에는 있지만 아예 학교에 등록조차 안하는 미취학자도 상당하다. 이들은 대부분 입학등록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둔 시기에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면 학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주고 졸업을 시킬 수밖에 없다.

¹⁰⁷⁾ 2014~15년경 함경북도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함경북도 군 지역에서는 일반 중등학교의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70% 정도였고, 농촌지역에서는 50%까지 내려가는 학교도 있었다고 한다(참고사례_함북 2).

학교 다니면 아들이 뭐 내라 뭐 내라. “조선말만 알면 되지, 니 뭐 수학박사 되겠냐, 니 무슨 물리박사 되겠냐. 그러지 말라.” 하는 부형들이 소수가 있고, 그래도 부모로서 “너는 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걸쳐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다수가 차지하죠. 소수는 좀 타락적으로, 지금 제 생각에 한 10% 가량은 될 거 같아요. (참고사례_혜산 5: 57)

오직 공부만, 글뉘주만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 있어서 자식을 내세워주겠다고서리 이렇게 하는 이런 부모들 있고. 이렇게 자기 자식을 내세워주겠다 하는 이런 아이들 비율 놓고 보면 불과 그저 한 20%. 네, 학급에서 열 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저 꺾렁꺾렁 할 수 없이 그저 학교에 목 매여서리 그저 출석률이라도 보장해야 된다 하고서 꺾렁꺾렁 하고 나온 아들 있고. 그냥 완전히 엄마들이 완강하게 선생하고 막 싸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선생이 돈 내주겠소? 나는 돈이 없소. 선생이 내주겠다면 내 보내겠소.” “공부 못해도 좋고 그저 돈 계산만 잘하면 돼요.” 하고서리 엄마들이 막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 나는 그저 데리고 장사하겠소.” 이러면서 막 노골적으로 선생하고 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비율이 많습니다. (참고사례_혜산 5: 57)

특히 혜산지역은 밀수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에는 다른 지방 도시들에 비해 주민들의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이 높았고 장사로 큰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환경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게도 교육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한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7)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름난 수재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애써서 간부 자격을 갖추었지만 지금은 공식적인 직업이 아닌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돈 있는 게 낫다. 돈이 있으면 학력 있는 사람을 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

다. 이를 보여주는 일화로 학부모였던 한 탈북민은 학부모들의 담임교사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선생님도 계속 보게 되면 강습도 하고 그 자체 공부도 엄청 하 거든요. 어쨌든 못하면 밀리게 생겼으니까. 학급이 다섯 학급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5개 학급이다 하고 교원들을 배치해요. 부모들이 그 교원에 대한 평가를 해요. 글썄 언제부터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중학교 톱 올라오니깐 그 학부모들이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한 60% 정도는. 누구는 몇 반에 가고 누구는 몇 반에 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학부모들이 자기 차려진 선생님을 봐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애 손 쥐고 교장선생한테 가요. “선생님, 나는 이 선생이 이래서 이 학급에 못갈 거예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 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그만큼 이제는 쌓아요, 평가를. 자기가 그 평가가 있어야 아이들을 거둬 잡을 수 있거든요. (사례_혜산 9: 20)

이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에서 배치해주는 대로 학부모가 학급 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들의 평판을 보고 선호하는 교사가 아니면 학급 재배치나 담임교사 교체를 교장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지는 못하지만 권력과 부를 가진 학부모,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잘 다루고 잘 가르치는 교사, 방과 후 학습지도를 잘 하는 교사, 주요 교과 담당 교사를 선호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당국에서 입학시 학생의 주거지를 고려해서 학교를 배정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얼마든지 전학을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 수준이나 담임교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 많아졌고, 일선학교에서는 힘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히 1학년 담임교사 배치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

아무리 당에서 뭐 하래도 학교 교장이나 부교장은 다른 학교보다 인원수가 더 많아야 그래도 그 학교 위상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여기도 중학교, 여기도 중학교인데 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본인 그거란 말입니다. 일정하게 소학교에서는 갈라는 낯지만은 막 옮겨간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그걸 데려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만약 1학년에서 아를 데려온다 하면, 1학년 선생님이 진영이 좋아야 되단 말입니다. 1학년 1반 수학교원, 2반은 물리교원, 3반은 영어교원, 이렇게 편성 톡 해주면은 소학교에서 들어온 아들이 “야 ○○중학교에서는 1반 선생이 수학생이고, 영어선생이고, 물리선생이고 있지, 야 이런 선생이라제. 야 그 학교 좋겠다. 이 학교는 역사 배워주는 선생이고 있지, 실습 배워주는 선생이고, 체육 배워주는 선생이구, 아우…” 부모들도 이제 인식이 그래도 제 새끼 공부 못해도 거기를 선택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참고사례_혜산 5: 48)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권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임을 맡을 학급을 배정받지 못하고 “밀리게 된다.”

교원들을 학교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혜산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전문적으로 사교육을 했던 한 탈북민(참고사례_혜산 1)은 같은 혜산시 내에서도 시내의 중심구역 학교와 외곽에 위치한 학교의 교원들 간에는 실력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거주하는 중심구역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실력도 좋다.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¹⁰⁸⁾ 졸업 후 초중등교원 배치 시 예비 교원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중심구역에 있는 학교에 배치

¹⁰⁸⁾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은 북한의 교원양성 교육기관이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양성하며, 교원대학은 3년제로,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2017 북한이해』, p. 204.

받고자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중심구역 학교에 가서 교사생활을 지속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힘도 좀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중심구역 학교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어떤 학교에 배치되는가에 신경을 쓰고 학부모의 교사선택권이 강화된 것은 경제난 이후 교사들에 대한 배급이 중단되었고, 배급의 일부와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교사들이 이에만 의지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배우자나 집안의 다른 가족이 장사 등의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력과 권력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의존하여 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롯한 생활상의 편의를 얻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¹⁰⁹⁾ 교사가 학부모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받는 행위는 비판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장사 등의 부업을 하지 않고 학교생활만 하는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생계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모든 학교에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게(교사가 학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당생활총화 시간에 비판을 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뭔가 그 교권을 흐린다고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도 인간인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뭐 수업 하루 여덟 시간 근무를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부모님들도, 인식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담임교사가 더 챙기는 거죠. 공부도 좀 따로 방과 후에 더 시키고, 뭔가 노력동원에서도 좀 면제를 시켜주고, 노력동원 하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인 노력동원에서 담임교사 권한으로 면제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면제시켜주는 대신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례_혜산 1: 18)

¹⁰⁹⁾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155.

나. 학교 내에 존재하는 계층간 격차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사회 계층은 부의 규모와 생활수준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으로 재구성되었다. 배급제도의 기능마비와 시장 경제활동에 따른 부의 재생산으로 인해 '권력-부 공생'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흥 부유계층이 생겨났다.¹¹⁰⁾ 대다수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자본, 정치자본, 사회관계자본을 시장교환 관계에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과 수완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식생활은 가장 빠르게 계층적으로 위계화되었으며, 의복과 주거양식에서도 사회적 구별짓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¹¹¹⁾

이와 같은 북한 사회의 계층화 추세는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도 투영되고 학생들의 일상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혜산의 학생들은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점점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체감한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혜산 출신의 20대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7)은 2010년대 중반 자신이 중등학교를 다닐 때 교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았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 때 보게 되면 빈부차이가 심하거든요, 저희가. 심한데, 어머니가 일단 돈이 있으니까 저는 완전 학교에서 선생들한테서도 못해도 칭찬 받고 막 엄청 이랬거든요. 결국 그런 게 엄청 많이 느끼게 해요, 북한에서 생활하게 되노라면. 뭐 아무데나 같지만 돈의 필요성을 엄청 많이 느껴요. (중략) 저는 학교에서도 막 일단 아무 것도 안 해요. 무슨 학교 제기되는 농촌 동원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일체 모든 걸 다 빠져요. 하다 못해 책상 들 일 있다든가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선생님이 시

¹¹⁰⁾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pp. 180~181.

¹¹¹⁾ 정은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57권 4호 (2014), pp. 171~172.

키지 않아요. “얘는 할 줄 모른다. 집에서 곱게 자랐으니까.” 학교에서 안 시키는 거예요. 선생이 감싸주는 거예요. 나를 일도 하나도 안 시키고 빼주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도 일 못해 봤고 학교에서도 못해 봤어요. 농촌동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 그리고 어머니가 학교에다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돈으로도 지원해 주고, 학교꾸리기 되면 학교자금 어머니가 통 거 대 주고, 선생 생일에 엄청 넣어 주고 막 이러거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청 아무래도 막. (사례_혜산 7: 35, 42)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공간에서 경제적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의 차이나 교사-학생 관계의 차이가 나타난다. 학교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유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발언권이 세고 교사들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교사가 반 친구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의 직업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교사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북한 교육의 실정 때문이다. 경제난 시기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경제난이 어느 정도 복구된 이후 공교육 정상화가 추진되었지만, 일반 학교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지원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공부할 하기 위해 학생 개인이 소모하는 비용으로부터 학교의 책걸상과 시설의 개보수, 컴퓨터 등의 교육 기자재 확보 등 학교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떠안게 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¹¹²⁾ 2011년 1월에 제정된 「보통교육법」에서는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부담(세외부담)’, ‘꾸리기’ 명목의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학교를 정

¹¹²⁾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155.

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특히 제1중학교나 외국어학원¹¹³⁾과 같은 특수학교나 시내 중심부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산 출신의 20대 남성(사례_해산 4)에 의하면, 특수학교는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이 일반학교보다 우수한데, 시설 확보와 유지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학부모들에게 의지한다.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자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교사 회의에서 토의해서 학생 일인당 부담액을 산출한다. 교원들이 학급에 가서 학생 일인당 부담액을 알려주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를 부담한다.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그런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킨다. 시설비 명목의 큰 돈 이외에도 꼬마자죽, 토끼가죽, 장갑, 파철, 파지, 공병, 뿔감, 퇴비 등 다양한 종류의 ‘과제’가 연중 부여된다.¹¹⁴⁾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축시키고 결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업 수행’을 중용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 그 학생의 몫을 나머지 학생들에게 나누어 분담시키거나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경제적 계층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교우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산 출신의 한 20대 여성(사례_해산 7)은 중학교에 다닐 때 반 친구들이 ‘패’를 형성해서 놀았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1 때부터는 완전 갈라져가지고 자네(가난한 친구들)는 끼지도 못하고. 남자애들도 딱 그런 애들 그룹이 갈라져가지고, 가

¹¹³⁾ 제1중학교는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를 대상으로 한 특수중등교육기관으로 중앙과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다. 외국어학원은 외국어 특기자를 위한 특수중등교육기관이다.

¹¹⁴⁾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22.

네는 다 집이 잘살거든요. (중략) 그리고 친구애들끼리 다 푼 푼 몽쳐가지고 애네들끼리 그냥 패를 지었어요. (중략) 개네는 일단 돈을 못 대는 거예요. 저희가 한 집에서 놀면 얼마면 얼마씩 비(위안화)를 대는데 개네가 돈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놀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 돈을 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없이 간 애가 우리하고 놀 수야 없으니까. 저희도 돈 다 똑같이 내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돈이 있어야 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개네는 개네 정도에서 놀 수 있는 애들하고 놀았고. (사례_혜산 7: 43)

‘패’는 학급 또는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종의 비공식적 관계문화의 일종이다. 육체적 힘, 성적, 집안, 성별 등의 우열과 구분, 배경을 통해 형성되는 그들만의 구별짓기 또는 관계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패문화는 이전 시기에도 있었지만, 2000년대의 학생 패문화에는 개별 학생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구별짓기와 위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 명확하게 학생들을 가르는 패의 경제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¹¹⁵⁾ 위의 인용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친구들이 모여서 노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모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술은 친구 집에 모여서 놀거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방식의 돈이 안 드는 놀이가 아니라 돈을 들여 즐기는 방식의 놀이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 사교육 공간의 출현

경제난 이후 교육 공간의 변화 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는 국가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학교교육이 아니라 ‘개인교사’가 학생 개인에게 돈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교육 공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개인교사’에

¹¹⁵⁾ 위의 책, p. 177.

의해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1990년대 이전에도 예체능 분야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난을 계기로 눈에 띄게 늘어났고, 2000년대 중반경에 ‘사회적 흐름’을 타면서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서는 2013년 경까지 해산에서 사교육을 전문적으로 했던 두 명의 탈북민(참고사례_해산 1, 참고사례_해산 8)과 해산에 거주했던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해산에 등장한 사교육 공간의 모습을 살펴본다.

북한에서 사교육은 남한의 학원과 같은 별도의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 교사’라고 불리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경제난 직후에는 생계가 어려운 교사나 이공계 대학생들의 겸업 형태로 사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일정 정도 직업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전문적 ‘개인교사’가 지역마다 생겨났다. 학교 교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개인교사로 나서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직접 개인교사를 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해산시에 수학, 과학, 영어 등 학과공부를 가르치는 개인교사가 대여섯 명 정도, 손풍금과 피아노 등 음악 교사가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는데, 이들 계층은 시내 중심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교사가 주변부 지역에 살 경우에는 중심지역으로 이사를 하든지 학부모 집에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한다. 수학, 과학과 같은 주요 교과목의 개인교사는 중심가를 벗어나면 구하기가 쉽지 않다. 과목당 사교육비는 한 달에 화폐개혁 이전에 100위안 정도였으나, 화폐개혁 이후에는 150~200위안 정도이다.¹¹⁶⁾ 시내에서는 다 ‘공통된 가격’이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시내 중심가가 조금 더 비싸고 주변부는 조금 더 싸다. 지금은 수학, 영어

¹¹⁶⁾ 평양시와 해산시의 사교육비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시에 거주했던 탈북민들(사례_평양 2, 사례_평양 3, 사례_평양 8)에 의하면 평양은 사교육비를 달러로 지불하는데, 과목당 대체로 3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등 주요 교과목만이 아니라 댄스, 악기, 컴퓨터, 글씨쓰기까지 ‘일체 모든 것’에 대한 사교육이 가능하다. 소학교 학생들은 악기나 수학, 영어, 중국어 등을 주로 가르치고, 중학생들은 제1중학교 편입이나 대학 입학의 목표로 수학, 물리 등 주요 과목의 교과공부를 시킨다. 중국어 교습은 중국과의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역의 필요성 때문에 늘어났다고 한다.

교원생활을 하다가 경제적 이유로 교원을 그만두고 수학과 물리 과목 사교육을 하는 개인 교사가 된 탈북민(참고사례_혜산 1)의 경우, 혜산시 중심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팀에 대여섯 명 씩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총 세 팀을 가르쳤다. 아침반 학생들은 학교에 아예 안 가고 개인 교사 집에서 사교육만 받는 학생들이다. 아침에 사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에 등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반 학생들은 혜산 시내 중심 구역에 있는 두 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두세 명 정도에 불과하다. 오후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은 받고 나서 오후 활동이나 동원을 빠지고 사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다.¹¹⁷⁾ 저녁반은 주로 제1중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다. 이 학생들은 하교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사교육을 받으러 와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한다. 같은 공간에서 학년과 학습 수준이 다른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개인교사는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별 지도를 해야 한다. 수업은 각 학생마다 주요 개념이나 이론 등의 학습

¹¹⁷⁾ 혜산에서 사교육 교사를 했던 탈북민(참고사례_혜산 1)에 의하면, 중심구역 초급중학교의 경우 제1중학교로의 편입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반에서 열 명 이상이고, 고급중학교로 올라가면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로 줄어든다. 중심구역 학교 이외에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반에서 손꼽힐 정도이고 시 외곽의 학교에서는 거의 없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혜산시 내에서도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혜산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다녔던 한 탈북민(사례_혜산 4)은 반에서 70% 정도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개인 지도를 받았다고 말한다. 최근에 탈북한 한 탈북민(사례_혜산 9)은 자녀가 다녔던 소학교에서 학급 인원 40명 중 5명 정도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말한다. 혜산시 중학교 교원 출신의 탈북민(참고사례_혜산 5)은 학급에 두 명 정도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말한다.

내용을 설명해주고 문제풀이를 시켜놓고 또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시키는 식으로 진행된다. 교재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른데, 일반학교나 도제1중학교 교과서를 쓰기도 하고, 참고서를 쓰기도 한다. 수학 과목은 “풀면 수재”, “수학문제 2200문제”, “뛰어난 학생을 위한 수학참고서” 등 북한에서 출판한 문제집을 활용하고, “수재들을 위한 수학참고서” 같은 중국 참고서의 번역본을 쓰기도 한다. 중국 문제집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학 입시 준비용으로 중국을 드나드는 학부모들에게 중국 참고서 구입을 부탁해서 개인교사가 직접 번역해서 교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학적 측면에서 북한의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학교교육이 집단적인 지식전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사교육의 경우 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개인교사의 평판을 들은 학부모들이 개인교사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자녀를 맡기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개인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몰리고, 학습효과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그만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하려고 노력한다. 혜산시 교원 출신의 한 탈북민(참고사례_혜산 5)은 자신이 인식했던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교육방법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교육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딱딱하지 않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가를 어디를 뽑아가지 않게끔 하느라고 아주 그 뭐... 우리 한국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얼렁얼렁하고. 우리 이쪽의(북한의) 학교교육은 딱딱하고 무슨 원칙 갖대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나도 그때 좀 생각했죠.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아마 심리학적으로 맞출 것이다. 우리는 그 한 명 맞추는 게 아니라 많이 맞추니까 그럴 수 있겠다. (참고사례_혜산 5: 3~4)

대가를 받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교육은 북한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북한에서는 2011년 1월에 제정된 「보통교육법」에 의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해산과 같은 지방의 도시는 사교육을 많이 받는 시내 중심가가 넓지 않고 사교육 교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교사가 누구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 탈북민(참고사례_해산 8)은 해산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개인교사 활동을 하다가 학생 규모가 커지고 소문이 나서 감시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상 사교육 행위도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너무 눈에 띄게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사교육 행위로 인해 큰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적발된다고 해도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모들 중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되죠. 단속되고, 그 다음 그 선생님들 명단은 다 도에서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한다,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없애라, 이거는 말하자면 돈 많은 아이들만 오니까 사회주의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오는 아이들이 다 간부집 아이들. 그 통제하는 분들이 제 아이를 다 공부시켜 줄라 하니까 그저... 우에다가 “우린 다 통제합니다.” 그저 이래 놓고는 그저 다 무마해줍니다. (중략) 그저 사람들의 인식이, 단속하는 사람들도 차마 이런 것까지 단속하겠냐. 자기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공부를 하겠다는데 공부를 시키지. 그럼 그 사람의 보수를 줘야지. 그분들 자체가 그런 걸 통제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통제는 하고 계속 방침 내려옵니다. 방침은 내려오는데... 그저 “네, 합니다, 합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 놔뒀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그러겠냐 이렇게. (참고사례_해산 1: 26~27)

이와 같은 사교육 현상은 현재 헤산뿐만 아니라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도시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학원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사교육 교사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형태이지만, 북한에서 학교가 아닌 별도의 교육 공간이 출현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북한에서 교육은 해방 이후 줄곧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가 운영하며 사립학교나 사설 교육기관이 존재할 수 없었다. 교육당국은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며, 교육과정 운영이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즉 북한에서 교육은 국가가 후속세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공적으로 길러내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교육의 등장과 확산은 교육이 부분적으로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개인의 영역, 즉 개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교육 교사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선다. 다음 인용문에 나타나는 헤산시 학부모들의 사례는 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교육에 집중할 것이냐 사교육에 집중할 것이냐를 선택하고, 후자를 선택할 경우 교사나 학교측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사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보여준다.

거길(사교육) 또 가자면은 담임선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학교라는 게 엄청나니까, 오후에는 과외활동 참가해야 하지 하니까. 오전반이 그거란 말야. 학교 당국 헤치구 막 용감하니까 하는 거고, 학교는 뒤전 하고. 오후에는 그 다음 선생 승인을 받고. 또 선생님도 뽑아준 (오후 활동 면제) 대가로 또 뭐 줌 있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든간에 실력 높이면 좋은데, 오후에도 계속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도 있고 무슨 행사도 있고 하는데, 이거이 다른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

겠나? 그럼 학교에다 뭐 해라. 무슨 학교 꾸리기 할 때 에나멜, 이런 도색감, 이만한 칠을 하겠냐? 그래야 선생님, 아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말하지. 야, 어떻게 하겠냐? 너네도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 하고 가도 돼. 그럼 부모들이 타당하다 그럼 보내죠. 나도 좋고, 너도 실력 높아가고. (참고사례_혜산 5: 3)

(아침반에 오는 학생들은) 어머니들이 1고등 안 보내고 그냥 일반학교에, 일반학교도 대학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학교에다 이름을 걸고, 일반학교는 가면은 잘 배워 안 주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하고 말해가지고 통째로 학교 안 가고 이름만 걸어놓고 (개인교사) 집에서 이렇게 사교육 받습니다. (중략) 학교 가면은 오후에는 작업을 해야 되고 오전에는 선생님들이 배워주는 게, 다 그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젠 공부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대충 배워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부차적인 과목이 많고 혁명(과목)도 많고 하니까 부모들이 아예 보내지 않고. 개별교육은 수학, 물리, 화학, 영어 네 가지를 합니다. 요거만 우선 성적 끌어올리고. 국어문학하고 혁명역사는 교재를 얻어가지고 집에서 자체로 암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교과서를 학교에 가면 45분씩 나누어서 1년을 배워야 된다면 집에서 공부하면 한 일주일이면 다 암송시키거든요. 그 체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절약도 하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시간 뺏기는 거 같으니까 집에서 공부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참고사례_혜산 1: 11~12)

첫 번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개인지도 교사의 오후반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오전에 진행되는 학과수업만 하고 오후의 과외활동이나 행사 등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교 또는 교사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돈을 제공하는 뇌물거래를 통해 가능하며, 혜산시 학교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입학이 어렵고 입학 후에도 경쟁을 해야 하는 제1중학교보다 일반중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부모들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준다. 일반중등학교는 제1중학교에 비해 대학입학지표가 적게 할당되지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낮다. 따라서

일단 일반중학교에 들어간 후 높은 학업 성적과 경제력의 뒷받침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학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뇌물을 제공하고 학적만 유지한 채 실제 공부는 개인교사의 지도와 가정학습을 통해 해나가는 것이다.

5. 놀이공간¹¹⁸⁾

가. 놀이공간으로서의 집과 집 밖의 장소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주된 공간은 집이다. 사회적으로 문화시설이나 다양한 소비공간이 많지 않고, 그런 시설에서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지방 도시의 일반적인 주민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동료들과 누군가의 집에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거나 주패(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놀이의 방식이다. 혜산 출신 탈북민들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혜산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가활동 방식을 보여준다.

북한은 아직도 여기(남한) 70년대처럼 집안에 들어앉아서 노는 거죠. 그 재미가 더 좋은 거죠. 술잔 놓고 음식 놓고 상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증폭기에다 대고 정신 나가게 새벽 대여섯시까지 놉니다. 형제들끼리는 남한 노래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 모였을 때는...(못 불러요). 그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노는 거죠. 한달에 세 번일 수도 있고, 일년에 두 번일 수도 있고. (중략)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이럴 때, 여기는 힐링이라고 하죠. 풀어헤쳐 놓고 오늘은 만사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한번 놀아보자, 그 심정에서 노는 거예요. (참고사례_혜산 10: 8~9)

¹¹⁸⁾ 이 절은 조정아,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8호 (2017), pp. 3~21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보완한 글임을 밝혀둔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각주는 생략하였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카드게임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저희는 주패하고 하죠. (중략) 돈 탄 사람 있고 못 탄 사람 있잖아요. 탄 사람이 이제 그 음식… 자기 거는 안 내, 자기 뭇은 챙기고 탄 뭇을 가지고 술이라든가 음식을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헤어져가고. 다 집에, 그 동료들 집에, 한 명을 정해가지고 한 집에 모여서 하거든요. 그렇게 막 제가 살던 지역은 좀 지방이라 외부 시설에 나가서 오락을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에는 볼링장도 있고 좀 여러 식당 망들도 있고 하니까 외부에서 오락 같은 걸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살던 지역에는 그렇게 막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지역에 그런 게 있었는데,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에 나가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었고. 저는 그래도 장사를 좀 했었는데, 교직에 그냥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다 어렵거든요. (사례_혜산 1: 16~17)

젊은이들도 명절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 앉아 음식과 술을 나누거나 주패놀이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낸다. 친구 생일날 돌아가면서 생일 모임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모이면 금지된 남한 노래를 틀어 놓고 놀기도 한다. 또 마땅한 집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걷어서 놀 수 있는 집을 하나 빌리기도 한다. 한 20대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7)의 증언에 의하면, 혜산시에는 돈만 내면 음식까지 제공해주는 크고 조용한 곳에 있는 방을 빌릴 수 있다고 한다.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청소년들은 끼리끼리 돈을 모아 그런 장소를 빌려 생일파티를 하기도 한다. 이들이 집에 모여 노는 것은 놀이 공간,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위의 시선을 피해 가장 안전하게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이 집이기 때문이다.¹¹⁹⁾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뿐만 아니라 혜산시를 비롯한 지방의 도시들에서도 도시 정비와 주민문화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이외에 모여서 놀 수 있는 사회적 공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북한

¹¹⁹⁾ 조정아 외, 『새로운 세대의 탄생』, p. 204.

에서는 2014년경부터 각 도의 주요 도시에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건립 하면서 주변 광장을 정비하고 있고, 혜산시에서도 동상 건설 사업과 함께 동별로 공원과 문화시설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혜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혜산시 정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²⁰⁾

혜산에 보게 되면 우선 매 동별로 공원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다 김정은이 들어서서 이 사업이 지금. 김정은이 들어서가고 노인 복지, 육아 복지사업, 문화 후생 시설들, 놀이장들을 꾸리는 사업, 이걸 좀 김정은이 많이 했죠. 김정은이 들어와서 많이 하라고 지시를 줬거든요. 혜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 공원이 꾸려졌습니다. 제일 크게 꾸려진 데는 혜산에 동상 있는 데,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라고 하는 거 그 밑에 제일 크게 꾸려져 있었고, 시내 곳곳에 꾸려져 있습니다. (사례_혜산 6-2: 18)¹²¹⁾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적 시책으로 주민 문화시설 확대를 꾀한 것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개인 자본이 투자된 영리 목적의 문화·위락시설, 편의시설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북한은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공장·기업소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자출권을 부여하고, 공장 자체적인 원료의 조달과 생산물 제조와 판매, 대외무역 권한을 부여했다. 식당, 상점, 위락·편의시설 등에도 국가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즉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 주면서 부분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가 사실상의 세금을 수취

¹²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 연구원은 2014년과 2016년 6월 촬영한 혜산시 사진 비교를 통해 “혜산시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정 중심지인데도 많은 투자를 앞세워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北, 中 가까운 혜산시 집중개발…김일성·김정일 동상도,” 『연합뉴스』, 2016.08.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1/0200000000AKR201608110405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8.29.).

¹²¹⁾ 사례_혜산 6-2는 사례_혜산 6의 두 번째 면담의 녹취록이라는 의미이다.

하고 있다. 시장화 정도에 관한 양문수(2016)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산업공장 중 사실상 개인 투자·운영 비중은 약 25% 정도이지만, 상점 중 개인투자 비중은 57%, 식당 65%, 서비스업체 55% 등으로 서비스업 관련 부분의 개인투자 비중은 상당히 높다.¹²²⁾

서비스업 관련 부분에서 개인투자 사업이 확대된 결과,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소비와 문화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탁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팅장,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오락장, 맥주집, 식당 등이 그러한 공간이다. 헤산시에서 2016년까지 거주했던 탈북민(사례_헤산 3)에 의하면 헤산시의 경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식당이 엄청 많고”, 이제는 그런 시설들이 “생길 수 있는 곳에는 다 생겼다.”고 한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 특히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문화공간의 주된 고객이다. 이 장소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북한 주민들이 머물면서 여가를 보내고 사적인 관계들을 맺고 공동의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정거장’이 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주민들은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과 함께 좀 더 멀리 휴가를 간다. 헤산시 인근 지역에서는 발전소가 있는 삼수 지역이나 온천이 있는 보천 지역이 유원지나 휴양지로 유명하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도 경계를 벗어나 함경북도에 위치한 칠보산, 명천 지역, 함경남도 함흥의 마전해수욕장, 강원도 원산 인근의 송도원 등지로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한다. 북한은 장거리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업소 등에서 자동차를 빌리거나 개인영업을 하는 자동차를 대여해서 이동을 한다. 헤산 출신의 탈북민들은 이렇게 먼 지역으로 이동해서 휴가를 즐기는 풍조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한다.

¹²²⁾ 양문수, “시장화 측면에서의 김정은 체제 5년,” pp. 127~128.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개인 차를 하나, 북한에서 차를 하나 가지고 가요. 차 서비스(이용료) 이렇게 해서. 우리 동무가 차를 본다 하게 되면 더 좋죠. 동무 차를 가지고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몇몇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루 가서 즐겁게 놀고 와요, 재밌게 놀고 와요. 그게 그저 한 3, 4년 전부터 풍미가 세졌어요. 3, 4년 전부터 많이. (중략)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즐겨요. 돈이 많을수록, 잘 살수록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생활이라는 게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한 3, 4년 어간에 지금 급진적으로 그래요. 북한에서 부유층이 차이가 늘어나면서 부유층은 축적한 돈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실제 그래요. 이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 걱정이 있어? 증명서라는 게 돈이 있으면 증명서도 다 떼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사례_혜산 6-2: 17)

나. 출판과 출신생

최근 혜산을 비롯한 국경지역의 도시에서 눈에 띄는 집 밖의 놀이 장소는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출판’이 벌어지는 광장과 공원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기념일이나 정치적 축하행사가 있을 때 집단적으로 광장에 모여 춤을 춘다. 이는 조직단위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가생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사이자 의무로 인식된다. 최근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춤바람’은 국가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춤을 즐기는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 성격의 기존의 집단적 출판과는 다르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중국을 통해 녹음기가 대거 들어오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발적 출판은 최근 접경지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혜산시의 예를 보면, “혜산은 춤추며 논다”고 할 정도로 최근 들어 주민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주로 나이가 든 중년, 노년층이 수십 명씩 휴일에 경치 좋은 곳에 모여 증폭기를 연결해 음

악을 크게 틀어 놓고 남녀가 같이 어울려 춤을 춘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더러는 조선춤, 더러는 디스코를 춘다. 어떤 경우에는 복장을 갖춰 입어야만 춤판에 낄 수 있다고도 한다. 동네에는 그런 춤판에 고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종일 춤을 추고 먹고 즐기다 돌아온다고 한다. 혜산에서 가끔씩 이런 춤판에 따라다녔던 한 50대 여성 탈북민(사례_혜산 5)은 춤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림 Ⅲ-5 들놀이 나온 북한 주민



자료: AP/연합뉴스 제공.

최근에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랬는데, 거기서도 지금은 그 노인들이 조직을 묶어가지고 일요일이라든가 첫 달, 첫 주 일요일, 그 다음 명절, 어쨌든 이렇게 명절이 끼는 날마다 이렇게... 저도 거기 가서 춤도 춰봤어요. 저고리를 입고, 조선저고리를 입고. 왜 그런가 하면 그저 이렇게 입고 가면 (춤판에) 들어 안 보내요. 거기 책임진 그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 할머니가 저고리를 입어야 들여놔요. 이 옷 이렇게 입고 거기 가도

저기 나가서 옆에 가 추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춤추고프거나 집에서 노는 늙은이들이라든가 또 그 춤을 즐기는 분들이라든가 그건 거기 가서. 저도 여기 오는 동안 5월부터는 장사를 안 했거든요. 네, 5월부터는 장사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막 심심하고 이러니까 저기도 한 번 가보기도 하고. 자꾸 가보니까 또 구경만 하는 게 머저리같아 보이더만요. 그래 들어가 춤춰보니까나 저도 또 춤출 수 있겠더구만요. 그래 같이 춤도 추고. 저녁 늦게까지, 점심도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함께 먹으면서. 이만한 증폭기 있어요. 증폭기로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노래도 하고. (사례_혜산 5: 40)

열린 광장에 모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오가는 사람들까지 끼는 춤판을 벌이며 노는 사람들은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고, 젊은이들은 아는 친구들끼리 따로 집 같은 다소 밀폐된 공간에 모여 춤을 춘다. 부녀자들은 특히 북한의 공식적인 명절이나 3월 8일 국제부녀절, 11월 16일 어머니절 같은 특별한 날에 인민반별로 모여서 춤추고 먹고 논다고 한다. “모여서 놀자” 하고 광장이나 공원에 나가 증폭기로 음악을 틀면 음악 소리를 듣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과 구경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고 한다. 남한 노래나 외국 곡같이 금지된 음악을 틀지 않는 한 모여서 춤추는 것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춤은 ‘돈돌라리’ 같은 북한 고유의 춤을 추기도 하고 서양식 ‘디스코’를 추기도 한다.

열린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고 노는 문화가 최근 들어 성행하게 된 데에는 태양광 충전기와 증폭기 등 기술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루 충전을 해놓으면 다음날 전기가 없는 야외에서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기와 넓은 공간에서도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고성능 증폭기가 1990년대 초반의 소형 녹음기를 대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춤판으로 불러 모으게 되었다.¹²³⁾

¹²³⁾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접경도시에 거주하다 2015년에 탈북한 남성

또한 해산시에서는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이 유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춤 선생에게 춤을 배우는 춤교습도 유행하고 있다.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2010년대 초반에 춤선생이 생겨났고, 최근 춤판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상업적 춤교습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행위가 아니지만, 이삼십대 젊은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춤선생에게서 춤을 배운다. 한달에 50위안 정도의 교습비를 주고 중국춤과 남한춤을 섞어놓은 듯한 중국식 디스코를 많이 배운다고 한다. (사례_해산 6, 사례_해산 7)

(춤연습을) 필름 보고 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해산에 지금 완전히 급격히 상승해요, 개별교사라는 게. 공부만 배워주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음악도 배워주고 이런 악기도 배워주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춤을 배워주는 게 시세가 땀어요. 그게 시세가 돼가지고, 그게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중략) 제 친구들이랑 보편은 놀음판에 가면은 뭐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자리를 했을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6개월 후에 턱 와서 먹고 이렇게 노는 거랑 보니까 “어째서 이렇게 춤 잘 춰?” 이렇게 하면 “어디 가 배웠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배워주는 게 엄청 잘 배워줘요. (중략) 2012년, 13년 그때부터 조금씩 요런, 위연지구에 뭐 그런 게 한 집이 있을 정도였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햇수가 지나면서 16년도 초에는 막 우리 뒷집에도 있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자기가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데 알아보면 많아요. 그 정도로. (사례_해산 4: 34~35)

우리 량강도 같은 거는 진짜 잘 놀아요. 계기가 없어서 못 놀거든요. 그래갖고 계기 가서 끼우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할 줄

(참고사례_함북 1)은 2010년경부터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아파트마다 ‘경쟁적으로’ 춤추고 노래 부르며 노는 모습을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곳뿐만 아니라 함흥 등의 대도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평양에 살다가 청진으로 이주한 60대 여성(사례_평양 1)도 경제난 시기를 벗어나면서 명절 때마다 공원에 주민들이 녹음기를 들고 나와서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이 유행했다고 증언한다.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왜 못하는데?” 하고서 배
우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어떤 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
면?} 그 보게 되면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 디스코. 네, 우리
한국 보게 되면 비슷해요. (사례_혜산 9: 28)

다. 진화하는 전자기기와 외부 문화

혜산 주민의 여가 활용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종 전자기기와
매체를 활용한 외부 문화의 향유이다.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남한 영상물을 비롯한 외부 문화는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혜산시와 같은 접경지역 도시 주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은 더욱 크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USB 등 저장매체, 소형 전자기기와 태양광
에너지 등은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이러한 외부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손쉬운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태양열 집열판과 태양광 충전기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양광 충전기는 조명을 밝히는 데 쓰일 뿐만 아
니라, 12볼트용 액정 TV, EVD 플레이어의 일종인 ‘노트텔’, 음향증폭기
등에 연결되어 여가생활에 활용된다.¹²⁴⁾ 요즘에는 인기 혼수품으로 태
양열 집열판이나 12볼트용 가전기기가 꼽힐 정도라고 한다. 낮에 충전해
놓았던 태양광 충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12볼트 노트텔, 액정
TV의 보급과 USB 등 저장매체의 소형화는 당국의 검열을 피해 외부 영
상물을 시청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2016년 제5차 당대회를 전후
하여 혜산 지역의 전기공급 사정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혜산 주민들은

¹²⁴⁾ 통계적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참조해 볼 만한 조사 결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원에서 2015년 이후 탈북자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이 조사
에 의하면 설문대상자의 47.8%가 북한에서 노트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은
미,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
집, 2016.08.24.), p. 79.

“빛판에 의지해서 다 산다”고 말한다.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는 충전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TV가 중국으로부터 대량 유입되어, 국경 인근의 주민들은 전기 공급에 구애받지 않고 시시때때로 중국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TV 채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소형 노트북과 저장매체만 있으면 다양한 외부 영상물을 접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중국과의 국가무역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밀수가 증가하면서 외부 사회의 정보와 중국과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 사회 내로 유입되어 확산되었다. 국경을 통해 유입된 문화콘텐츠는 초기에는 VCR에 담겨 들어와 녹화기를 통해 재현되었고, 이후 저장매체 발전에 따라 ‘알판’이라고 부르는 CD 형태로 유입·보급되었다. VCR과 CD는 부피가 클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영상물 시청 단속 시 적발이 용이한 단점이 있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고 있는 USB는 부피가 작고 저장용량이 커서 반입과 보관, 소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 저장매체의 진화가 외부 영상매체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혜산에 거주했던 한 30대 남성(사례_혜산 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는 CD알판으로 봤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단속이 심해지니까 그 기능도 높아진 거예요. USB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SD칩에다가 잡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보관하기도 쉽더라고요. 보관하기 쉬우니까 그때부터 유통이 더 빠르죠. 마음대로 컴퓨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유통도 확산됐던 거 같아요. CDR로 돌아갈 때는 그거 하나만 봐야 되잖아요. 다른 걸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칩이 나오면서 그걸 복사하다 보면 한 개가 들어오면 거기에 뭐 열 개, 백 개가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출처를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통도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_혜산 1: 25)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

었다. 북한은 형법에서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93조) 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184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해 최고 형량을 늘려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혜산시의 경우 시장마다 있던 CDR 장사가 김정은 집권 후에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5년경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대신 북한 당국이 CDR을 판매하는 매점들을 시내 곳곳에 만들어 놓고 북한의 영상물과 중국 영화, 러시아 영화, 인도 영화 등 일부 승인된 외국 영화 CD를 판매하고 있다. 외부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남한 영상물을 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고 시장 등에서 영상매체를 공공연하게 판매할 수 없어졌지만, 그래도 국경지역 등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가면서 남한 영상물을 비롯한 외부 영상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⁵⁾ 탈북 전 평양과 혜산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한 20대 여성(사례_평양 4)은 평양에서는 주민들이 단속을 무서워해서 중국 영화를 못 보지만 혜산에서는 “돌아다니는 게 다 중국알”이었다고 두 지역의 차이를 얘기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었지만, 혜산시 주민, 특히 젊은 이들 중 ‘불 사람들’은 통제의 눈길을 피해 이러한 영상물들을 ‘가만가만’ 돌려 보는 것으로 보인다.

혜산에는 그런 게 많이 돌아요.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이런 게 많이 돌아가지고. 단속은 세계 하는데 세계 할수록 아무튼

¹²⁵⁾ 매년 직전년도 탈북자 100~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 문화 유입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확산과 정보유통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57.1%, 2011년 76.7%, 2012년 90.9%, 2013년 88.0%, 2014년 85.9%, 2015년 88.4%, 2016년 88.4%로, 남한 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대체로 80% 중반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역음,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104.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 총살까지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국 영화) 보면 죽는다. 마약을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 심리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하고 더 세계 보고 하는 게. 아무튼 계산은 막지 못해요, 그걸. (사례_혜산 4: 34)

국경지역의 일부 도시에서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외국 소설 등의 금서도 유통되고 있다. 혜산시에서 거주했던 한 40대 남성(사례_혜산 6)은 북한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금서를 대여해서 봤던 경험에 대해 증언한다. 그에 따르면 혜산에는 개인집에 책장 두 개 정도를 놓고 여러 종류의 책을 대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탐정소설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외국 소설, ‘야설’이라고 불리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많은 소설도 몰래 대여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보급은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기존의 영상기기의 기능에 이동성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부과하였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2002년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이 평양과 라진-선봉 경제특구에서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때까지 고위 간부들에게만 허용되었다. 2004년 4월 용천 폭발 사건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2008년 12월에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코프와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의 합작회사인 체오사가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3G 서비스를 시작했다.¹²⁶⁾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08년 1,694명에서 2014년 1월 170만 명, 2017년 1월 377만 3,42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¹²⁷⁾ 이는

¹²⁶⁾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VOA, 2014), p. 11, <<http://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4/08/Kim-Yonho-Cell-Phones-in-North-Korea-Korean.pdf>> (검색일: 2017.10.30.).

¹²⁷⁾ We Are Social·Hootsuite, “Digital in 2017: Global Overview,” 2017.01.24., <<https://wearesocial.com/special-reports/digital-in-2017-global-overview>> (검색일: 2017.06.3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탈북자 중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영유아, 아동, 노년계층을 제외한 청년 및 중장년층 중 휴대전화 보유비율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¹²⁸⁾

북한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데이터 전송과 인터넷이 금지되어 있다.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그 이외의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는 주로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주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 동영상 보기, 음악 듣기, 게임 등 오락용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한다.¹²⁹⁾ 주민들은 마이크로 SD카드에 영화, 소설, 음악을 저장했다가 휴대전화에 이를 삽입하여 재생시킨다. 남한 노래와 용량이 크지 않은 텍스트파일 형태의 남한 소설, 뮤직비디오 등을 주로 즐긴다. 보안원¹³⁰⁾들이 거리에서 휴대전화 검열을 하지만, 보통 SD카드를 뽑아서 따로 갖고 다니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다.

SD카드에다가 일단 잡은 걸 핸드폰에다 넣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는데 단속하니까 저희가 안 넣고 보거든요, 저희가 일단. 그 삼촌들도 자기가 이제처럼 야동 같은 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 삼촌들이 보는 게 있거든요. 가지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일단 잡히게 되면 총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세계 해요. 그런 거는 진짜 엄청 세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어디다... 이런 데다, 핸드폰에다 안 하고

46.4%가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보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정은미,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p. 79.

¹²⁸⁾ 물론 휴대전화 보급률은 지방에 비해 평양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매체는 평양에 거주하는 20~50세 주민의 60%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평양 20~50세 시민 60% 휴대전화 보유 <홍콩지>,” 『연합뉴스』, 2013.02.03.,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2/03/0619000000AKR20130203025300074.HTML>> (검색일: 2017.09.12.).

¹²⁹⁾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p. 28.

¹³⁰⁾ 보안원은 인민보안성 소속의 치안 유지인력을 의미하며 우리의 경찰에 해당한다. 인민보안성은 치안 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구로, 국가보위성, 인민무력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체제보위기구 중의 하나이다. 2016년에 인민보안부에서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역음, 『북한 지식 사전』, p. 516.

이렇게 핵대고리이다, 핵대고리 딱 주머니 만들어 그거만 딱 들어가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례_혜산 7: 24)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한 영상물 속의 남한 말투나 복장 등이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학생들은 ‘인마’, 여학생들은 ‘오빠’, ‘자기야’ 같은 남한식 말투를 따라했는데, 그런 말투를 쓴다는 것은 자신이 ‘좀 놀고 있다’, ‘좀 깨 있다’는 표현이라고 한다.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글귀나 남한 노래 곡조의 신호음,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유행하기도 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없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저장매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보와 영상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핸드폰을 이거 인터넷을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남한 이런 문자, 사랑에 대한 문자도 엄청 많이, 남한 글, 남한에서 사랑의 문자가 많거든요. 사랑에 대한 걸 글로 이렇게 쪽 쓴 거 문자에다가 많이 저장시키거든요, 저희가.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남한에서 했대요. 남한 어디 있대요. 북에 있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한 애만, 컴퓨터에서리 한 애만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다 서로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보낼 때 그거 이렇게 뽑아서 간략(하게)하고 딱 보내고. 그 재미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노래가 이렇게 핸드폰에 많이 있고. 시처럼 만들어가지고. 화면은 일단 컴퓨터로 자체로 애들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가락지도 넣고 그런 거 넣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노래를 잡았었거든요. 그냥 시처럼 쪽 나오거든요, 문자가. 그런데 그런 게 알판으로 유래돼가지고 알판의 거 다 떠 넣거든요. 공개적으로 못하고 알판으로 비법으로, 알판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중국으로 해서 남한 말이 저희 조선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알에서 결국 뽑아서 핸드폰한테. 하나만 가지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거든요. (중략) 남한에서 유래됐대요. 그래가지고 보지 말래요. 북한에서 사랑이라는 표현 엄청 잘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표현 잘 안한다기보다 문장을, 이렇게 노래랑 사랑에 대한 노래랑 없듯이 없거든요. (사례_혜산 7: 21)

김정은 집권 이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휴대전화로 남한 문화를 즐기는 것은 쉽지 않아졌다. 최근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영상 시청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검열 기술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업데이트된 휴대전화에는 ‘트레이스뷰어’(Trace Viewer)라는 검색 내역을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스크린 샷을 찍는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SD카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의 서명이 없는 어떠한 파일도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강제 접속 시도 시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 ‘서명시스템’을 탑재하였다고 한다.¹³¹⁾ 탈북민의 증언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USB, USIM칩 등 메모리 기기를 불법영상물 단속 조직인 ‘620상무’에 등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¹³²⁾ 최근에 출시된 휴대전화 기기는 SD카드를 손쉽게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SD카드를 내장형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한다.¹³³⁾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물을 돌려 보는 것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일상생활 촬영과 개인 촬영 영상 돌려 보기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주로 결혼식, 생일, 들놀이 등 특별한 행사나 노는 모습을 많이 찍는다. 이렇게 찍은 개인 촬영물은 ‘생일알’, ‘환갑알’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빌려서 보고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 간에 유통된다. 이는 외부 영상물 유입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자기기의 발전이 초래하는 일

131) “‘北정권 정보통제 기법 갈수록 정교화’…외부정보 차단 안간힘,” 『연합뉴스』, 2017.03.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2/0200000000AKR20170302008100071.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9.21.).

132) “北, USB·USIM칩 등 메모리 기기 등록제 실시,” 『연합뉴스』, 2016.11.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9/0200000000AKR201611190355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9.21.).

133) “북한 최신형 스마트폰 단독 입수…외장메모리 기능 차단,” 『TV조선』, 2016.09.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5/2016090502787.html> (검색일: 2017.07.15.).

상생활의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정마다 대부분 USB와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볼 만한 영상이 있으면 USB에 저장해서 친구들이나 이웃과 서로 교환 복사해서 노트북으로 즐겨 본다고 한다. 남한 영화를 비롯한 외부 영상물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북한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일상의 행사나 사는 모습, 유명 배우나 악단의 공연 모습 등은 주민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가 된다. 혜산시 출신의 한 탈북민은 친구집에 놀러 가면 “뭐 재밌는 거 볼 거 없어?”가 인사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을 혜산에 거주했던 20대 남성과 여성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소학교보다도 어린 애들, 유치원 애들이 디스크를 추면 막 짹 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촬영해가지고 USB나 기억기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보겠으면 복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복사하고, 또 이렇게 쪽 퍼지는 거죠. 뭐 인터넷 이런 건 없으니까. (중략) 어디에서 이런 뭐 국가공연단이 우리 직장에 와가지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그걸 찍어요. 카메라나 핸드폰 같은 거 가지고. 그런 것 도는 게 TV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유명한 여자들, 그런 배우들이 그런 지원을 해가지고, 그 선전선동이라 하죠, 북한에서. 북한에서 발전소 건설한다면 거기 가서 웃기는 개그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만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TV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냥 사람들 자유롭게 막 이렇게 웃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아무튼 뭐 정식적인 그런 틀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재미나는 것만 찍잖아요. 그런 것도 또 많이 들고. 아무튼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런 게 좀 많이 돌아요. (사례_혜산 4: 37)

노래도 부르고 무슨 막 자기가 기타 잘 치면 기타도 쳐서 부르고 노래도 불러요. 그거 공유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일단 이걸 보는데, 그러니까 “야 그게 엄청 재밌다. 개가 엄청 노래 잘 하더라. 개가 춤 잘 추더라” 하면서. 누구네 생일집 가서 파티

놀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랑 다 (영상을) 잡거든요.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그 USB 넣어갖고 많이 공유하거든요. 빌려주거든요, 다 친구애들한테다. (중략)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USB에다도 많이 잡거든요. USB에다 잡으면 친구애들이 빌려가거든요. 그럼 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다가 또 다른 애들 보면 “야, 그거 재밌데.” 그럼 옮기는 거예요. 선 자리에서도 옮길 수 있거든요. 애 카드에다 내 카드에다 옮길 수 있거든요. 애 카드 거 내 카드에다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다보면 이렇게 해서 또 이거 멀리 공유되거든요. (사례_혜산 7: 26~27)

그림 III-6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북한 주민



자료: AFP/연합뉴스 제공.

기존에 북한 사회에서 영상물 등의 문화컨텐츠를 창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은 당과 국가, 이를 대리한 창작집단에만 허용된 것이었다. 개인에 의해 촬영 및 유통되는 영상물들은 주민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화컨텐츠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북한 사회 내부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를 대신하여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실어 나르고 사람들 간의 감정의 공유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IV. 공간경험의 변화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1. 시장화와 공간 분화, 시공간 압축

경제 위기 이전에 시장은 제한적이고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북한 경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북한이탈주민 면담과 구글 어스 위성사진 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2016년 현재 북한의 합법적인 공식시장은 총 404개이며, 이중 176개가 27개 도시에 위치해 있다.¹³⁴⁾ 공식시장이 2010년 이후 5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¹³⁵⁾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북한 당국은 시장과의 타협·공조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시장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¹³⁶⁾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북한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을 서서히 높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평가된다.¹³⁷⁾

북한에서 시장화가 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방식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계층별 공간 분화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차별을 없애는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국가 계획을 통해 도시 공간 위에 구현하고자 하였다.¹³⁸⁾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시장화 추세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는 일상생활 경험의 차별화를 경험하였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짓기는 도시공간에서 거주지 및 주거공간의 분화

134)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 17.

135) 커티스 펠빈에 따르면,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장은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 10월 현재 406개로 증가하였다.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비공식 장마당도 많아,” 『연합뉴스』, 2015.10.2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5/0200000000AKR201510250080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9.11.).

136) 이석기 외,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p. 162.

137) 위의 책, p. 166.

138) 김성원, “평양의 공간구조 변화와 통일 후 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 7.

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와 혜산시 모두 신축고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유층 거주지역이 분화되어 있고, 이제는 출신성분이나 직업이 아닌 경제적 능력이 거주지역과 자신이 살 집을 결정할 수 있는 데 기준이 된다.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방 세 칸과 거실을 갖춘 넓은 최신식 아파트에 입주하여 유행하는 남한식 인테리어로 집안을 꾸미고, 가전제품을 두루 갖추고 생활의 불편 없이 산다. 반면, 서민층은 낮은 주택보급률로 인해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동거하거나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더욱 가난한 주민들은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도시빈민으로 살아간다.

시장화로 인한 주민들 간의 경제적 격차는 거주지역이나 주택과 같이 물리적인 공간의 분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여가생활 양상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계층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학생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구별짓기와 위계의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농촌지원활동과 교대대훈련같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활동이나 동원노동의 경험은 이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 운영과 교사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관심과 편의를 제공받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경제력을 반영한 방식의 여가와 놀이를 즐기며 논다.

소비와 여가생활에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분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 대형 편의·문화시설들이 건설 또는 보수되었고, 개인투자 사업의 확대로 크고 작은 소비와 문화 공간이 많이 생겨났다. 국가적 동원에 의한 행사 참여나 기업소, 인민반 등 공식적 단위로 조직된 여가생활 이외에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생활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이들만의 공간이며, 경제력에 따른 공간 배제는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돈이 날 데가 없으니까 안 쓰고, 무조건 쓸 일은 없고 안 써도 되는 일들이라서 그저 집에서 노는 일뿐. 진짜 나 그게 소원인데, 진짜 가보고프기도 하고 남들 가면 막 부럽기도 한데 돈이 없으니까. 진짜 거의 2만원도 없어 못 가... 한 번도. 진짜 그 개선공원, 청년역 개선공원이요, 뭐 모란봉악단공연, 은하수악단공연이요, 가고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사례_평양 9: 15)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그 안에 속한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유대와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평양에는 개인투자 형식의 위락시설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한증탕과 같은 목욕시설은 주민들에게 인기있는 시설이다. 그런 시설의 이용요금은 대부분 달러로 지불되는데, 동네 한증탕이 2~3달러, 큰 복합위락시설이나 호텔 부설의 한증탕은 5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시설의 단골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부유층 여성들은 이런 공간에서 '외화목욕'을 하며 자녀들의 사교육 정보나 미용서비스, 배달음식 등에 관한 '고급정보'를 교환한다.

혜산시와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평양시에서 볼 수 있는 대형 문화시설이 드물다. 놀이공원, 물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물놀이장, 돌고래쇼를 볼 수 있는 유원지 등은 평양시와 북한의 다른 곳을 구분해주는 랜드마크이다. 혜산시와 같은 지방 도시에서 상징적인 문화시설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혜산시 주민들 속에서도 경제적 계층에 따른 놀이공간의 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부 주민들은 명절이나 휴가철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멀리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지만, 돈과 연줄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 운전수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장사로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놀이공간은 자신의 집이나 광장과 같은 곳이다.

계층에 따른 공간 분화 외에 공간상에 드러나는 중요한 시장화의 영향

은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다. 시공간 압축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던 장소 간의 공간 폭이 시간적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특정 장소와 장소 사이의 절대적 거리가 아닌 이를 경험하는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것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시공간 압축을 후기 자본주의 또는 유연적 축적체제의 상부구조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면서였다.¹³⁹⁾ 하비는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적 거리가 줄어드는 속도에 주목하였다. 전지구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과 공간의 변화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과거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본이 유통되며 순환하는 기간을 줄어든다 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하비는 전지구적 범위의 후기 자본주의의 특성을 이러한 유연적 축적 체제로 설명하였지만, 북한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완전히 편입된 공간이라기보다 오히려 핵문제로 인해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어 가는 것과는 달리, 북한 사회 내부와 변경 지역은 시장화의 영향으로 시공간 압축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본 축적의 속도는 유례없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시공간 압축은 운송수단의 사유화와 통신의 발달로 탄력이 붙었다. 시장화로 선박, 광산, 상점, 식당, 공장, 봉사 업체 등 다양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유화 되었는데, 그중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분야가 운송수단이다.¹⁴⁰⁾ 돈주들은 버스와 화물차를 구입한 뒤 국가 기관 산하 기업소에 편입시키고, 당국에 일정한 돈을 상납하는 방식으로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별이버스’라는 사실상 개인 소유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컨테이너와 대형트럭을 이용한 물자이동이 이루어

¹³⁹⁾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비드 하비 지음, 구동희·박영민 옮김,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참조.

¹⁴⁰⁾ 양문수,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8권 1호 (2016), p. 22.

지고 있다. 경제난 직후 직접 물자를 들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달리기’가 전화 연결을 하고 택배를 부치는 ‘짐쏘기’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 시스템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화물차나 창고를 소유한 돈주들은 서로 팀을 이루어 빠르게 물건을 유통시킴으로써 지역별 상품가격 차이를 줄이고 있다. 북한 내부가 하나의 시장망 속에 빠르게 포섭되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 자본의 축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무역업자와 소매상 사이에서 물건을 직접 실어 나르며 장사를 하던 이들은 줄어들었고, 대신 돈주들 밑에서 일하는 신흥 노동자 계층이 생겨났다. 유통망의 발달로 상품 순환과 자본 축적 속도는 가속화되고, 이를 통한 거대자본의 형성 속에서 북한 주민의 계층별 차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아요? 다양한 물건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나니까?) 더 작아지죠, 일자리가.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 개미들이 다 요만큼씩 가지고 다 요렇게 떼갔는데, 지금은 큰 돈주들이 다 이렇게 직접 중국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포장 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콘테이너로 보내주니까. 이 어간 다리들이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나 중국에서 직접 건너온 물건이기 때문에 이 어간 중개인들, 어간다리들이 결국은 이렇게 버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물건 값이 녹어요, 싸요. 자기가 직접 중국에서 받아마자 저쪽권으로 직접 보내주니까, 여러 명이 벌어들여야 할 돈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가격은 더 녹여져요. 싸져요. 잘사는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고 못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사례_혜산 5: 10~11)

2.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평양과 혜산 주민들의 생활공간의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사적 공간의 확대 및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간의 관계의 변화이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첫째, 사적 공간이 은폐되고 고립된 공간이라면, 공적 공간은 열려있고 드러나 있고 접근가능한 공간이다. 둘째, 사적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이거나 한 사람에게만 속한 공간이라면, 공적 공간은 공동의 공간이거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¹⁴¹⁾ 일터와 가정, 도시와 교외, 사적인 가족생활과 공적인 영역 간의 구분은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성립된 것으로, 19세기 도시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공간현상이다.¹⁴²⁾ 근대 도시 공간의 특징은 작업공간과 생활공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엄격한 분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기능 공간의 엄격한 구획으로 특징지어진다.¹⁴³⁾

과잉정치화된 사회인 북한에서는 국가의 정치권력이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을 압도한다. 기업소나 학교와 같은 공적 공간뿐 아니라 개인의 가정마다 벽에 걸려 있는 국가지도자의 초상은 가장 은밀한 사적 공간까지 투입한 국가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각종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 명목으로 북한의 공권력은 언제든지 주민들의 사적 공간으로 밀고 들어와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을 해집어놓을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북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은 공적 공간이 사적 공간을 압도해 온 북한 사회에서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집뿐만 아니라 일터, 학교, 여가공간에서도 사적 영역이 확대되고, 견고하던 공적 공간에 균열이 나타나고

¹⁴¹⁾ K. Gerasimova,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in *Socialist Space: Sites of Everyday Life in the Eastern Bloc*, eds. D. Crowley & S. E. Reid (Oxford; New York: Berg Publishers, 2002), p. 208.

¹⁴²⁾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파주: 한울), p. 290.

¹⁴³⁾ 강현수, 『도시, 소통과 교류의 장: 디지털시대 도시의 역할과 형태』 (서울: 삼성경제연구원, 2007), p. 84.

있다. 집 밖에서 주민들간에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적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간의 교차와 중첩, 개인들에 의한 공적 공간의 점유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공적 공간의 하나인 일터의 기능은 경제난 시기에 마비되었고, 이후 복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지역적 편차가 크다. 해산과 같은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터라는 공적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권력의 작용도 약화되었다. 생산이 이루어지고 노동자에게 배급을 주는 일터에서는 생활총화나 정치사상교양 등 국가권력의 통제가 강제되지만, 그렇지 못한 일터에서는 그러한 통제의 기능은 약화된다.¹⁴⁴⁾

대표적인 재생산의 공간인 교육공간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수행해 온 교육의 기능을 대체하는 사교육 공간이 생겨났다. 개인 교사가 일정한 비용을 받고 공부를 가르치는 사교육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교육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행위 당사자들만이 속해있는 교사 개인의 집이거나 학생 개인의 집이고, 무엇보다도 그 곳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성격이 국가를 대리하는 교사가 수행하는 공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사교육 공간

144) 평양 출신의 한 탈북민은 비당원인 30세 이상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조직의 생활총화와 정치학습 이완 실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실제 출퇴근을 해서 우리처럼 규율생활 이제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딱딱 지키는데요, 장마당 나가 앉는 사람은 아침에 장마당 끝나고 나서 강연 다 들어라, 그건 어떻게 되냐면 공유가 됩니다, 서로가. 여맹 조직이 있으니까 생활총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맹비서라는 거 있어요. (중략) 어떻게 공유하냐면 비서한테 내가 계속 얼마씩 주는 거예요. (중략) 세포비서한테 “누구 엄마, 나 이거 좀 해야 돼.” 그 사람도 양심 있게 부탁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걸 하나 기록해준다고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은 돈 여유가 있으니까 쌀을 뭐 5킬로 준다든가. 고맙죠. 그렇게 하면 여맹비서는 참가 안 한 것도 다 참가했다 쓰고 이 사람이 이거 안한 것도 그거 다 했다고 해 놉니다. 그거 검열 오면 어떻게? (중략)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비서가 기록하고, 전화 오면 “비서요, 이번에 나 잘못 뭘로 해났어요?” 그러면 “좌우간 학습 잘못해놓은 걸로 해났어.” 그럼 “알았어요.” 그럼 자기 학습...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사례_평양 8: 36~37)

은 부분적으로 사적 공간의 성격을 띠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질적으로 사적 공간인 집과 관련해서도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집은 개인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휴식을 얻는 사적인 재생산의 공간이지만, 공식적으로 국가 소유의 공급 대상이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로 시장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계층의 축적된 자본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북한 당국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 건설과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경제력을 갖춘 북한 주민들은 이제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이용허가증’¹⁴⁵⁾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는다. 국가가 임의로 배정해주는 공간에 들어가 사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여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고 사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북한 주민들이 집에 부여하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층이 거주하는 신축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닫아걸고, 가족과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친한 사람들만 집안에 들여놓으며,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서 확인한 후 문을 여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방문자와 국가의 감시통제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집을 자신들만의 은폐된 사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북한 주민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사적 공간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여가생활 영역이다. 직장 구성원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명절 야유회, 인민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기념무도회 등의 ‘행사’와 혁명전적지 방문은 북한 주민들의 전통적인 여가생활 방식이었다. 최근의 변화로 주목할만한 점은 개인의 시장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공식 직장이나 인민반과 같은 공적 조직을 대신하여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거나 야유회나 여행 등 여가를 함께 즐기는 사적인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

¹⁴⁵⁾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로 입사증이라고도 불린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2016 북한이해』, p. 313.

의 구성원은 순수한 친분관계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장사와 연결되어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망 등 시장 내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인들끼리 여가를 같이 보내는 현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평양과 혜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장사를 했던 함경북도 도시 지역 출신의 한 30대 남성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두 명 이상이 자주 모여 앉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은 “이삼일이 멀다하고 같이 모여앉아 시간을 보내는 패거리”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 패거리가 모여 앉으면 카드놀이도 하고 금지되어 있는 영화를 보거나 ‘빙두’라고 하는 마약을 흡입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 패거리 중에는 당일꾼도 있고 법관도 있고 전업 장사꾼도 있었는데, 그렇게 함께 모여 앉으면 “돈 벌 일이 생긴다”고 한다.

뭐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앉았다 하게 되면 “누구 내 친구인데 좀 살려주오.” 아니면 “어제 뭐 한국 영화 뭘 단속했다던데 그 걸 좀 가져다 봅시다.” 네, 이러기도 하고. 아무튼 모여앉아야 지 돈 벌 일이 생기거든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돈 벌 일이라는 게 뭔가요?} 그게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범일군인데 내가, 어제 불법하는 걸 단속했거든요. 단속을 했는데 이걸 자기가 상부에 보고를 안 한 겁니다. 했다 하더라도 요만큼을 보고하고 이만큼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어도 불편하거든요. 자기 무용지물이고. 그래 “나한테 이게 있는데 이것 좀 팔아 돈 좀 가져오라.” 그래 그거 보게 되면 반의 반값도 안 되거든요. {그거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마약 이런 거예요?} 마약도 될 수 있고 녹화물이 될 수도 있고, 네, 손전화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 그거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 달라 하고 그냥 가지기도 하고. 가지고 돌아앉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버리기도 하고. (참고사례_합북 1: 14~15)

위의 사례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경제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적인 여가공간이라면, 순수한 여가생활을 위해 취미가 같거나 마음이 맞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노는 모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춤판에 몰려다니면서 춤을 추는 춤꾼들이다.¹⁴⁶⁾ 춤판은 대개의 경우 동네에서 놀기 좋아하는 몇 사람이 연락을 해서 춤꾼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민반과 같은 공식적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소집 행위가 자발적이고 참가자들이 이를 ‘공식적 행사’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기존의 행정조직, 기업소 단위의 여가 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이 춤을 추는 곳은 공원이나 광장, 아파트 입구의 공터 같은 곳이다. 해산시의 경우에 춤꾼들이 증폭기를 틀어놓고 춤을 추며 노는 공간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근처의 경치 좋은 곳이다. 그 곳은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 자리한 곳으로, 멀지 않은 곳에 시당위원회와 양강도 사적관이 위치해있는 공적인 상징공간이다. 이 광장의 춤판은 북한 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공적 공간을 취미를 같이 하는 사적인 동호회 집단이 점유함으로써 그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전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함경북도 접경지역 도시 출신의 한 탈북민(참고사례_함북 1)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춤판은 해산이나 평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¹⁴⁶⁾ 평양 출신의 한 여성은 춤모임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가족 단위의 모임에 대해 주변의 탈북민들에게 들은 바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춤추는 그룹이 있대. 명절날만 되면 무조건 그 편들이 모이는 거지. 춤 잘 추는 놈들끼리 서로 다 알아보는 거지. 그답에 애네가 춤만 추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면서 길바닥에서 장구를 치면서 북 치면서 거리바닥을 다녀요. 여자들끼리 주로 다녀요. 그런데 거기서 춤 때는 남자여자 같이 춰요. 올 때 춤추는 유명한 패저리가 있어요. 개네는 춤을 추면서 거리바닥 소란스럽게 하면서 간다니까. (중략) 장사하다가 온 여자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뗏이 모이는 가족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직장사람이나?” 아니라는 거지. 이러저러하게 알게 된 사람들이 취미가 같고, 우리 여기 동호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명절 때 되면 모였다는 거지. 강가에 가서 밥 싸다가 같이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서로 알아?” 서로 직장은 상관없는 건데 이래저래 알게 되어 비슷하게 모이는 거지.” (사례_평양 1: 25)

보인다. 그는 2010년경부터 원산과 함흥 등 내륙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비슷한 춤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살았던 국경 근처의 도시에서 김정은 집권 직전 시기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단속하는 방침도 전달되었지만 여론이 안 좋아서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파트마다 골목마다 춤추고 노래 부르는 마당”이 생겼다고 한다.

평양시의 경우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문화·편의 시설을 확충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사적 자본의 서비스업 진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결합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술집, 식당, 수영장, 백화점과 같은 ‘유사공공 여가공간’들은 일터나 집과는 다른 종류의 공간¹⁴⁷⁾으로, 공적 공간임과 동시에 사적 공간으로서의 특성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런 공간들은 비용을 지불한 이들은 누구나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방적 공간이지만,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 간의 은밀하고 사적인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개방적인 공적 공간은 아니다. 평양시 곳곳에서 동네 깊숙이 자리잡은 작은 식당이나 한증탕 등이 이런 성격의 공간들이다.

평양에서 부유층 전업주부로 생활했던 30대 탈북여성(사례_평양 10)에게 한증탕은 “속을 서로 터놓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교의 장이었다. 그는 평양에서 생활할 때 이틀에 한 번 꼴로 집 부근에 있는 한증탕에 가서 두세 시간씩 머물다 왔다. 서로 안면을 트고 가까워지면 신뢰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들은 말을 다른 곳에 가서 옮기지 않는다. 몇몇 친해진 사람끼리 다음에 만날 시간약속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이곤 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탕 속에 앉아서,

¹⁴⁷⁾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p. 259.

사우나실에서 땀을 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식의 신변잡기를 나누거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정치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어느 집 교주(일본식 만두)가 맛있었다, 어떤 미안사(맛사지사)가 안마를 잘한다, 어떤 방문 장사꾼이 질 좋은 옷을 가지고 다닌다, 자녀 대학 보내는 데 돈이 얼마 든다, 어떻게 공부시켜야 종합대학을 보낼 수 있다, 어떤 개인교사가 실력이 좋다 등과 같은 생활 정보가 한증탕에서 만나는 모임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이다. 반면, 그는 “쌀값 얘기가 하지 고급정보는 얻을 수 없는” 인민반 회의에는 잘 참가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시장의 활성화와 개인단위 사업의 확대는 사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¹⁴⁸⁾ 사적 공간이 곧 대항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출발점으로서 지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젠더화된 공간

사회적으로 구축된 성역할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공간 경험을 다르게 만드는가? 젠더화된 공간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집 중심적이고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여성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성역할, 특히 여성의 가사노동이 남성과 여성의 공간경험을 차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런 과정이 젠더화된 공간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했다.¹⁴⁹⁾ 그러나 북한 사회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과 이에 따른 일상 공간의 경험이 서방 선진국 및 주변국들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48) 이우영,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1호 (2008), p. 135.

149) 김현미, “성역할, 접근성, 그리고 젠더화된 공간,” 『대한지리학회』, 제42권 5호 (2007); Mei-Po Kwan, “Gender differences in space-time constraint,” *Area*, vol. 32, no. 2 (2000); Hanson, S. and Pratt, G., *Gender, Work and Space*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5); Pickup, L., “Women’s gender-role and its influence on their travel behaviour,” *Built Environment*, vol. 10, no. 1 (1984).

북한에서는 남성 가장이 집을 지키는 ‘멍멍이’에 비유된다. 이는 경제난 시기에 만들어진 시대어로, 여성들이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할 때 집만 지키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 남성들의 무능함을 희화화한 표현이다. 경제난 시기 배급이 나오지 않는 직장과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남성들과 달리, 거주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며 경제 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한 여성들의 일상적 공간경험은 공간 점유와 공간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젠더화된 차이를 보여준다.

북한 정권은 해방 이후부터 견고한 성별 역할분담론을 제시해 왔는데, 남성은 국가의 위기 시에 전방을 맡아 군대를 앞세워 국방을 강화하고 여성은 후방에서 경제와 일상생활을 챙기도록 임무를 나누어 부여하여 왔다.¹⁵⁰⁾ 이러한 성별 역할 분담론은 북한의 여성관을 바탕으로 한다. 북한의 여성관은 사회주의 여성관과 가부장적 여성관을 합친 모델로, 사회적으로는 혁명의 주체이나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조력자인 ‘혁명적 현모양처’를 이상화한다.¹⁵¹⁾ 이러한 성차별적 담론은 역설적이게도 경제난 시기에 기혼 여성들에게 국가가 지정한 일터를 벗어나 새로운 일터인 시장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식적인 일터와 집을 벗어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이동성(geographical mobility)의 증가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확대의 가능성을 열었다.

경제난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활동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증가했고, 여성들뿐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시장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시장화 과정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 가부장제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한편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진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역할과 시장 경제의 책임자

¹⁵⁰⁾ 박영자, 『북한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pp. 542~543.

¹⁵¹⁾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 2003), pp. 142~143.

라는 여성의 이중노동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로 남성들이 일하고 있는 공식 직장에서 배급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장사나 부업을 통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중노동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¹⁵²⁾ 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 부양자 역할이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동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⁵³⁾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에서 공간별, 경제적 계층별, 지역별로 여성의 지위와 젠더관계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공간, 일부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대등한 관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또 다른 공간과 집단 속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가 온존되고 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혼종성 자체가 현재 북한의 젠더관계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진술을 비교해보자.

남편이 사우나 가서 씻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밥상이 딱 차려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막 혼을 내요. “그거 하나도 못해?” 하고. 그런데 거기다 반박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때리거나 이런 건 없는데 혼을 내요. 그러면 저는 딱 머리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 똑똑 흘렸어요. 그러면 욕도 못하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말대꾸 한번 못해봤어요. 반박하면 큰일 나요. (사례_평양 10: 46)

북한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쌀독을 처가 쥐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자기가 별 때는 정말 권한 있었어요. 자기가 처보다 많이 별 때는 처한테 막 큰소리도 치고 그랬는

152)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pp. 153~155.

153) 문장순, “북한여성의 역할 변화와 그 요인: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헌연구』, 제13권 (2008);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 제21권 1호 (2012); 배영애,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통일전략』, 제10권 2호 (2010).

데, 언제서부터인가 모르게 이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들한테 돈하고 쌀독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여자를 남자가 도와줘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남자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거는 뭐 따지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여성들이 힘들게 일하니깐 이게 남자들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북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례_혜산 1: 11~12)

위의 인용문은 ‘집’에서의 부부관계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평양의 30대 여성과 혜산의 40대 남성의 답변이다. 앞의 사례에서 남편은 처가의 생활비까지 대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권력층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다. 뒤의 사례는 교원이었던 남편이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내가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장사를 했던 경우이다. 혜산시 출신의 탈북민 중에는 여성이 밑수나 장사를 할 경우 가사노동을 부부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들은 경제난 이후 시장활동을 통해 가정 경제의 주도권을 여성이 갖게 되면서 달라지고 있는 부부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위의 첫 번째 사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경제적 의존을 하는 관계인 경우, 경제적 종속성은 관계의 종속성을 초래한다. 또 다른 평양 출신의 여성(사례_평양 6)은 전업주부들은 남편이 외도를 하더라도 “사랑과 경제 사이에서 타산을 잘 해야지 무턱대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북한에서는 이혼 후 여성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이 이혼한 여성은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집’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부부관계의 차이는 지역의 차이이기보다는 계층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터도 젠더화된 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 봉건적 가족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로 양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 당국은 여성에게 남

성과 대등한 법적 지위와 동등한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노동법령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규정하였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 계획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 그 중에서도 ‘여성의 특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배치되었다.¹⁵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장려된 부분은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규정된 영역이다.¹⁵⁵⁾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진출과 사회적 성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이 상업부문이다. 평양 출신의 젊은 여성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장부문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공식적인 상업망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주요 국영식당과 상점의 지배인을 여성이 맡아 여성들이 상권을 움지인다는 말도 회자된다. 상업 부문은 한편으로는 ‘봉사’라는 직업 부문의 특성이 여성의 특성과 잘 부합한다고 하여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상업 부문 내에서도 중요도가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리는 남성이 차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평천각 지배인이라든가 각들 보게 되면 여자들 많아요. 옥류관 같은 거는 왜 여자보다 남자를 시켰나? (중략) 지배인을 여자를 안 시킨 건 뭐냐면 여자는 생각이 좀 작다 그래요. 옥류관에는 생각 좁아가지고는 안 된다. 평천각은 된다 그래요. (평천각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옥류관은 국가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필요하다. 사업설계를 하고 이제같이 딱 지시 받으면 재까닥 재까닥 그 행사를. 이제같이 무슨 화성14호 쫓다. 무조건 옥류관입니다. 점심 국수 옥류관. 이제 그런 국가적인 행사 보장할 때 여자가 하게 되면 안타까워서 막 이러는데, 이 사람 시켜놓으니까 벌써 조직사업이, 이렇게 다 경

¹⁵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4), p. 185.

¹⁵⁵⁾ 박영자, 『북한 여자: 탄생과 굴곡의 70년사』, p. 356.

영 벌써 스타일이 다른 거죠. (중략) 중앙당 사람들 말해요. 여자를 간부 시켜놓게 되면 딱 막힌 데가 있다. 한 가지 딱 막힌 데가 있다. 요건 항상 말해요, 간부층의 인식이. (사례_평양 8: 32~33)

위의 진술처럼, 시장화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식적 일터 내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남성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 대학에서 외국어 실력과 전문성을 쌓고, 군대를 자원하여 가고, 결혼은 선택으로 여기며, 상업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¹⁵⁶⁾

공식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은 학교 공간, 특히 대학 내에서의 젠더 차이와 연결된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남성에게 보다 많이 주어진다. 2014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 중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은 남성이 10.9%, 여성이 7.2%로, 남성이 여성의 1.5배 정도이다. 2008년에는 남성이 11.2%, 여성이 6.7%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성비가 더욱 불균형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된 것이다.¹⁵⁷⁾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에는 성별 고등교육 학력 자격 소지자수가 나타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격 소지자는 총 1,655,067명이며, 이 중 32.9%인 544,456명이 여성이다. 이는 1993년 센서스 당시의 32.7%와 거의 유사하다. 2008년 기준으로 2~3년제 단과대학 졸업자격 소지자 총 1,317,785명 중 여성은 57.4%인 756,400명이다. 이는 1993년의 52.5%보다 다소 개선된 것이다.¹⁵⁸⁾ 고등교육 기회 측면에서 성별 격차

¹⁵⁶⁾ 예를 들어, 모란봉구역의 창고형 외화상점인 북새상점의 '치너지배인'은 상업망 진출을 희망하는 평양의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이라고 한다.

¹⁵⁷⁾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41.

¹⁵⁸⁾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O, 2014), p. 68.

가 크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 분야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커서, 공식적으로는 남녀공학이지만 학생들의 성별이 한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대학들을 평양 주민들은 ‘여자 대학’과 ‘남자 대학’으로 구분해서 부른다. 예를 들면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은 ‘여자 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남자 대학’이다. 대학 전공 분야별로 학생들의 성비가 다르다는 사실은 다음 <표 IV-1>과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IV-1 전공별, 성별 대학졸업 자격 취득 인구 비율

주요 학과	전체		성별 구성	
	수(명)	구성(%)	남성(%)	여성(%)
전체	2,972,852	100.0	100.0	100.0
교육	591,387	19.9	10.8	31.6
예술·인문학	124,940	4.2	4.2	4.1
사회과학, 법	317,790	10.7	10.0	11.6
자연과학	136,505	4.6	4.7	4.5
제조, 건설	812,522	27.3	33.3	19.6
농업	490,935	16.5	20.2	11.7
공공의료	274,040	9.2	6.4	12.8
사회복지	219,087	7.4	10.1	3.9
기타	5,646	0.2	0.2	0.1

출처: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O, 2014), p. 68의 내용을 근거로 연구자가 산출.

2008년 북한 인구조사에 기초해서 산출한 위 자료에 의하면, 대학 전공영역 구성에서 남성은 제조·건설, 농업, 사회복지 부문, 여성은 교육과 공공의료 부문이다. 북한의 대학별, 학과별 선발 인원은 해마다 각 산업 부문별 인력을 고려하여 국가 계획 지표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 산업부문별 젠더차이는 대학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상의 공간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공간 경험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요소는 정보통신기기의 유입과 확산, 발전이다. 당국의 전기 공급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전기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태양광 충전기, 소형 컴퓨터와 휴대전화,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은닉이 용이한 소형화된 저장매체, 이런 발전된 정보통신기기의 도움을 받아 북한 주민들은 물리적으로 단절된 영토인 북한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외부 사회에 접속한다. 이희영은 인간행위자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자기기라는 비인간행위자의 동맹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가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비인간행위자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탐구한 바 있다. 이희영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은 경제난의 상황 속에서 도강자들이 식량 대신 북한으로 가져간 아날로그 전자기기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작동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중국·남한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급속히 형성·확장되었다.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인간-비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계층이 형성된 것이다.¹⁵⁹⁾ 2000년대 이후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된 소형 저장매체, 휴대전화, 태양광 충전기, 낮은 전압으로 구동되는 TV와 컴퓨터, 새로운 전자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진화된 북한 내 인간-비인간 네트워크의 2세대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기술 복합관계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나 타인의 경험을 간접경험하고 상상의 공간을 체험한다. 북한 사회는 정치·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이 상당히 제한된다. 정치적 권력층이나 특정한 직업을 가진 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북

¹⁵⁹⁾ 이희영, “아날로그의 반란과 분단의 번역자들,” 『경계와 사회』, 통권 94호 (2012), p. 39, 74.

한의 영토를 벗어나 외국 땅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혜산 지역 주민들은 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용이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던 주민들의 경험이 다른 주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혜산시에서도 해외 공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비교적 소수의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외부 사회에서 생산된 문화적 생산물을 접함으로써, 물리적으로는 도달 불가능한 북한 외부의 세계에 순식간에 도달한다. 이러한 공간은 북한 주민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한 번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상공간¹⁶⁰⁾이며 상상 속의 공간이다. 지리적으로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북한 주민들이 진화된 정보통신기기의 도움을 받아 가상공간을 통한 탈영토화를 이루는 것이다.

외부 영상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가상공간을 경험하는 것은 '시공간 압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가상공간을 통한 이동은 이동의 시공간 거리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동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간을 압축시킨다. 기술적,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이라면, 가상공간에서 이동 거리는 세계 수준까지 팽창되고 이동 시간은 제로 수준까지 수축될 수 있다.¹⁶¹⁾ 일반적으로 가상공간을 통한 시공간 압축으로 인해 사람들은 한정된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이동 불가능한 넓은 공간을 동시에 경험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외부 세계와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영상매체를 통해 창출하는 가상공간은 그와

¹⁶⁰⁾ 가상공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기억, 몽상, 꿈은 심리적 가상공간이며, 그림, 사진, 영화는 영상적 가상공간이며, 테마파크, 모델하우스, 박물관은 물리적 가상공간이며,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게임은 전자적 가상공간이다. 물리적 현실 공간과 대조되는 전자적 가상공간은 점차 오늘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또 다른 장이 되어 왔다.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서울: 푸른길, 2013), p. 264.

¹⁶¹⁾ 위의 책, p. 269.

같은 실시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어떤 매체에 접속하는가에 따라 이동하는 시공간의 폭이 달라진다. 그 점에서 이것은 '뒤틀린 시공간 압축'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비롯한 외부 사회의 영상매체를 매개로 하는 가상공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사회로부터 유입된 영상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북한이 아닌 다른 사회에 대한 표상이다. 일반적으로 남한과 외국 영상물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자신들과 비교하고 그 사회의 생활환경이나 물질적 부에 대해 인식한다.¹⁶²⁾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의 물질적 조건만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영상매체를 통해 자유나 인권과 같은 추상적 개념과 그것이 구현된 사회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실존하는 사회의 반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상상

¹⁶²⁾ 이러한 표상은 남한이나 외국의 영상물에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양시에 살면서 일찍이 만수대 TV채널 등을 통해 소련, 중국, 동구권 영화와 드라마를 접했던 한 탈북민(사례_평양 1)은 80년대 이전에 소련과 중국 영화를 보면서는 북한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작된 일부 영화와 1990년대 초반부터 시리즈물로 제작된 영화 '민족과 운명' 등에 나오는 외국의 풍물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총련계 재일교포를 소재로 하여 1985년에 제작·방영된 '봄날의 눈석이'라는 북한 영화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영화 속에 일본 도시의 모습이 나오고 일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이 담겨있는 것이 인기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국이 멋있게 발전한데 대해서 관심을 돌린 건 '봄날의 눈석이'가 제먼저 처음이야. 그건 일상생활이잖아. (중략) 그전에는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상품밖에 없고 100프로 북한에서 생산한 것만 하다 보니 천도 다 투박하고, 기껏해서 데트론 나올 때 얇긴 하지만 데트론 지금 보면 별로 안 좋거든. 그런데 그때 보니 옷도 갖가지 천이 다 있고 물건도 아주 세련됐어. (중략) 제일 허술한 직업이 우유 배달, 그담에 무슨 신문 배달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껌 장사, 구두닦이. 거기 나오는 사람이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더구나 총련 신문 조선신보를 배달하고 있거든요. 하나까 수입이 안 된다는 건 뻔하죠. 그러니까 그 집 아주 어렵게 사는 집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집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집은 요란하지 않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제일 관심을 부르는 게 전화기. 전화기가 집에 다 있다. 개인집에. 그렇게 못 사는 집인데, 창고같은 집이 아니에요. 집이 괜찮거든. 그때 자전거. (중략) 야, 일본 진짜 잘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감동을 먹은 거지." (사례_평양 1: 2~5)

의 세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해산시 출신의 20대 탈북여성과 평양시 출신의 20대 남성은 외국 영화와 남한 영화를 보면 인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들은 북한 사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해 상상한다. 상상의 공간에서 자신이 그려낸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의 모습은 현실 사회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졸업하기 전에는 졸업해서 돈 벌고 이런 장사 이런 데로 나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학교 졸업하니까 거기가 제 인생의 다가 아닌 거예요. 일단 자유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일단 남한 드라마 보고 미국 영화 보고 다른 영화 보니까 자유가 북한에 없는 게 알리는 거예요, 제 눈에. 아, 북한이 너무 자유가 없구나.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그때 북한 영화, 인권에 대한 영화를 봤었거든요. 조선에 인권침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권침해인지 저는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미국 영화였었는데, 제목이 생각 안나요. 그런데 영화에서 인권에 대해서 막 나왔거든요. 그때 알면서 북한은 그걸 보다 상상하게, 대조하면서 자기 절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인권에 대해서 알았어요. (중략)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범위도 조금 커지고 다른 데도 막 댕기고 하니깐 ‘아, 이게 아니로구나.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좀 해외 다른 나라 여행도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게 조금씩 커지고 그 다음에 탈북까지도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모퉁이가 딱 튀어가지고 온 거예요. (사례_해산 7: 34~45)

자유롭다. 솔직히 교육을 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한국은 막 옆매여 살고 그렇다고 그런 교육을 받고 저도 그렇게 납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교육하고 말을 하는데, 그거(남한 영화) 보면서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_평양 7: 39)

가상의 공간 속의 의미 있는 장소들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다시 현실 세계의 공간과 장소에 영향을 준다.¹⁶³⁾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상의 공간에서 경험한 바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남한 여성의 옷을 재현한 옷차림을 하고, 남한 중산층 가정의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집을 꾸미고, 자신의 연인에게 상냥한 서울 말투로 얘기를 걸어보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다.¹⁶⁴⁾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의 정치적 특성은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도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상세계라는 공간 속에서 가상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상공간에 접속하는 많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접촉과 소통의 빈도를 높이고, 이는 때로는 현실공간 속에서의 정치적 코드와 의미를 생산¹⁶⁵⁾해내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적 사회공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억압과 통제의 질서는 가상공간 속에서 인간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자유로운 소통과 가상공동체는 현재의 북한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동체 내의 소통을 대체하는 것은 인간행위자들간의 직접적 네트워크이다. 통제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접속한 가상의 세계, 이를 통해 만들어낸 상상의 공간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

163)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p. 264.

164) 예를 들어 평양 출신의 20대 여성 탈북민은 남한 드라마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니까 아무래도 뭐 패션, 이런 데 되게 눈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제(드라마에서) 애들이랑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천국의 계단 봤어?” 그러면서 뭐, 그냥 그 다음날 여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뭐 수다 떨고, 대학 때도 같았어요. 누구 옷 예쁘고, 개 입은 옷 예쁘고. 누가 나오면, 일주일 후면은 그대로 카피해서 옷이 딱 판매가 되거든요.” (사례_평양 2-2: 21)

165)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 (파주: 한울, 2013), p. 194.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와 촬영기기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직접 찍고 소형 저장매체에 이를 담아 친구, 친지들과 이를 공유함으로써 삶의 재미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비록 이들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공간은 아직은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북한 주민들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공간들이 연결될 때 북한 사회의 현실공간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를 우리는 아직 상상해보지 못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경제난 이후 시장 확대와 김정은 체제의 출범이라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를 잘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두 도시, 북한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고 국제적 관문도시인 평양시와 양강도의 도청소재지이자 중국과의 변경무역의 중심지인 혜산시로 관찰범위를 좁혔다. 이 연구는 미시사 및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지리학적 접근의 연구관점과 개념에 토대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활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방식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의 주요 공간인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이라는 네 종류의 공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평양시와 혜산시를 관통하는 변화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평양과 혜산 출신 탈북민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연구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양시와 혜산시 및 여타 지역 거주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심층면접 자료 중 관련 내용을 참조하였다.

II장에서는 평양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을 다루었다. 평양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중심지이며 ‘혁명의 수도’이다. 북한에서 평양은 정치·사회적인 최종방어지이자 모범도시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평양은 ‘조선의 심장’, ‘김정은을 모시고 사는 도시’, ‘지도도시’, ‘최종방어지’로 인식된다. 평양 주민들에게는 타 지역을 능가하는 경제적 풍요와 물질문명의 혜택이 주어진다. 평양 주민들에게 평양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책임과 추방의 공포를 동반한다.

평양시 주민들의 ‘집’ 공간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와 거주지 분화, 평양

부유층의 살림살이와 가사노동 서비스 분화, 아파트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 공급의 대상이었으나, 경제난 이후 주택 거래가 시작되었고,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에는 북한 당국의 주택건설 사업과 그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경제적 상류계층의 주택 매매 욕구가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입지조건과 전기, 물, 온수공급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차별화되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화가 이루어졌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부유층과 일반 주민들 간의 경제적 차이는 급격히 벌어졌고, 이는 집의 형태뿐 아니라 살림 규모와 살림 사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류층 주민들은 한국식으로 아파트 내부를 꾸미고, 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며, 다양한 가전제품을 구비하여 놓고 생활한다. 반면, 도시빈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평양시 외곽지역의 단층 집 지역은 전기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일부 상류층 주민들은 가사도우미를 비롯하여 음식 배달과 세탁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업을 활용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사적 고용은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구조에 따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권력계층과 경제적 부유층이 거주하는 타워형 아파트에서 주민들간의 관계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복도형 아파트보다 폐쇄적이고, ‘집’ 공간은 사적 공간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띤다.

평양시 주민들의 ‘일터’ 공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직장과 권력과 결탁한 ‘외화벌이’를 다루었다. 경제난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공장의 가동률은 상당히 저하되었으나, 국가적 중요성을 띠는 일부 중앙기업소나 중요 연구기관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공식 직장은 노동강도가 높고 생활총화나 정치학습 등

조직 규율도 강하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배급, 높은 임금, 해외근무 선발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부 직장에서는 철저한 실적관리를 시행하고, 작업의 난이도와 작업량에 따라 임금과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김정은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각한 ‘노동보수 지불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평양시 주민들은 대부분 공식 직장 이외의 불법 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지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는다. 특권층이나 경제적 상류계층은 권력과의 연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큰 밀천을 들여 ‘외화별이’를 한다.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가기관, 기업소 명의를 대여해줌으로써 부분적인 합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통해 신흥부유층은 급성장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보호막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돈주들은 권력에 의해 자신의 사업이 언제든지 불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결탁을 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평양시 주민들의 교육 공간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측면에서 평양시의 특성, 평양시 대학생의 일과, 대학 간 및 대학 내의 학생들의 경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양시는 종합대학과 중앙대학이 밀집해 있는 북한의 교육중심지이다. 평양시 주민들의 고등교육 수혜율은 타 지역 주민의 두 배 정도로 높다. 이는 평양에 대학이 밀집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양의 대학을 졸업할 경우 평양 소재의 직장에 배치받아 평양시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평양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행사와 동원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평양시의 대학생들은 ‘수도 건설 사업’ 같은 국가적 노력동원과 아리랑축전 준비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대학별 동원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평양의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동원노동과 행사 참여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대신한 힘겨운 노동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 합

깨해 재미있었던 시간, 평양시의 대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대학 선발이 실력이 아닌 ‘안면관계’와 ‘뇌물’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만연하였으나, 이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평양시의 인기 있는 중앙대학 입학에는 실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평양 주민들은 평양의 대학을 경제력이 중요한 대학과 실력이 중요한 대학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두 종류의 대학의 학생들은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학생들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 간, 또는 학교 내에서 동원노동, 농촌지원활동, 교도대훈련 등 학과 공부 이외의 학교 생활 측면에서 차이를 경험한다.

평양시 주민들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도시정비사업과 놀이공간 확대, 젊은이들의 데이트장소, 기호의 분화와 다양한 소비공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 생활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과 문화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문화·편의시설 확충은 주로 평양시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문화·위락시설은 평양을 북한의 다른 도시와 격이 다른 곳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시장화의 과정 속에서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생겨나면서 평양에서는 확충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이 늘어났지만,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당국의 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체감되거나 여가생활의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크게 다르다.

북한 젊은이들의 여가생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춘남녀의 데이트 방식과 장소의 변화이다. 최근 청년들의 데이트 문화는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해졌다. 이들은 남녀가 함께, 또는 친구들과 여럿이 짝을 지어 새로 건설된 ‘봉사센터’와 수영장 등의 놀이·문화공간을 찾는다. 호프집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청춘 남녀의 데이트 문화에서는 평양과 지방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화 과정 속에서 경제적 계층 분화 못지 않게 계층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험의 분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의 차이도 확대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가족이나 친지들과 고급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거나 최근 건설된 복합위락시설과 유원지 등 놀이시설을 찾아가 여가를 즐긴다. 이와는 달리 시장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거나 빈곤한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위락시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혜산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을 다루었다. 양강도의 도청소재지인 혜산시는 지리적으로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변경무역의 중심도시이다. 혜산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의 관문도시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비사회주의 문화가 널리 퍼진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경제난 시기에 혜산 주민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이점으로 삼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적 수준을 누렸다. 또한 혜산시는 중국으로부터 각종 물자, 정보, 문화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평양시와는 또 다른 성격의 국제도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혜산시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개방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통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비공식적인 무역인 밀수가 전면 차단되면서 혜산시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혜산시 주민들의 ‘집’ 공간에 대해서는 거주지 변화와 주민 살림, 주택 부족과 확대가족, 결혼제도의 이완과 결혼관 변화 등을 다루었다. 혜산시에서도 최근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이 상승하고 있지만, 평양시에서와 같이 북한 당국이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단층연립주택에 거주한다. 많은 주민들이 장사로 먹고살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선택에 있어 장사에 유리한 입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난방과 취사용으로 나무나 탄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전기 사정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중국산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을 해서 조명과 소형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에서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살만한 경제력이 없는 주민들은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 이 때문에 확대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할 때 집을 사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이 배우자로 선호된다. 빈민층은 자신이 살던 집의 거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월세를 살거나 더부살이를 한다.

한편, '집'의 의미를 부부가 중심이 되는 생활공동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이해할 때, 집의 의미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집'과 관련된 변화 중 최근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혜산 주민들 속에서 결혼은 안정적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배우자 선택에 있어 경제적인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혼관이 변화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등 결혼제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혜산시 주민들의 '일터' 공간에 대해서는 지방공장의 상황과 공식 직장에서의 주민들의 일과, 국경 밀수와 유통 등의 시장활동을 살펴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혜산 주민들의 일터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하였다. 평양과는 달리 혜산시 소재의 공장·기업소들은 혜산청년광산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동을 멈추거나 부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직장에 출근해서 몇 시간 일을 하고 일

찍 퇴근해서 장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생계활동을 한다.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업소에 납부하고 출근과 사회적 동원노동, 생활총화, 정치학습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 '8.3노동자'도 보편화되었다.

경제난 이후 혜산시 주민들의 가장 주된 생계수단은 중국과의 밀수 및 이와 연관된 상행위이다. 시장상인과 같이 직접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 이외에도, 돈장사와 환전상, 하급관료와 간부, 군인 등 많은 혜산 주민들이 밀수의 혜택을 본다. 밀수를 통해 북한 내부로 반입된 상품은 혜산시장에 집결되고, 여기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북한 내륙 지역으로 유통된다. 2000년대 들어 개인운영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운송망의 발전으로 유통방식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창고업도 발달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업자와 소매상 사이의 중개상인이 사라지고 자본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작은 자본으로는 이윤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돼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혜산시 주민들의 일터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정책적 요인은 국경 통제의 강화이다. 특히 2015년 이후 국경 봉쇄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졌고, 이는 밀수와 연결되어 먹고 살던 대다수의 혜산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권력과의 연계가 가능한 이들은 당·군·행정 기관 산하의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외화벌이회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계속해나갔다. 한편, 권력과의 연계가 어렵거나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밀수꾼과 도매상들은 밀수를 중단하고 음식장사 등 작은 장사로 전환하거나 가내수공업 하청일 등 새로운 생존방식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혜산시 주민들의 교육 공간과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의 개선과 학부모의 선택권 증가, 경제적 계층에 따른 학생들의 경험의 분화 등 '학교' 공간의 변화와, 학교 이외의 교육 공간으로서 '사교육 공간'의 출현에 대해 다루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왔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학제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혜산 주민들은 교육과정 개편, 교수방

법 개선, 교과서 보급 등의 측면에서 학교교육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꼈다. 한편 학생들의 출석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의 결석은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 것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운영과 교사들의 생활을 경제력 있는 학부모들의 지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학교 운영에서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북한 사회의 계층화 추세는 학교 공간에도 투영되고 학생들의 일상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과외노동을 면제받는 등 교사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교우관계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집단을 이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육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교 이외의 교육 공간으로서 사교육 공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공간은 혜산뿐만 아니라 평양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북한에서 사교육은 남한의 학원과 같은 별도의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교사’라고 불리는 개인 사교육 교사들이 자신의 집 등지에서 몇 명의 학생들에게 개별수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시내 중심지역에 살고 있는 경제적 상층 계층의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교육 공간은 주로 시내의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사교육의 등장과 확산은 교육이 부분적으로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개인의 영역, 즉 개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혜산시 주민들의 ‘놀이공간’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놀이를 즐기는 집과 집 밖의 장소들, 공개적인 ‘출판’, 영상기기 및 휴대전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외부 문화의 유입·확산을 살펴보았다. 평양시처럼 다양한 문화시설과 소비공간이 많지 않은 혜산시에서 일반 주민들은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집에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노래와 춤, 카드놀이를 하면서 여가를 즐긴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빌려 도 경계를 벗어난 지역으로 좀 더 멀리 나가 휴가를 보내는 주민들도 늘어났다. 집 밖의 공개적인 장소

에서 벌어지는 자발적인 ‘춤판’도 해산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이나 부녀자들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광장이나 공원에 나가 증폭기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노는데, 명절이 아니어도 모여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추는 춤꾼들도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개인적으로 춤선생에게 춤을 배우는 춤교습도 유행하고 있다.

해산시 주민의 여가 활용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각종 전자기기와 매체를 활용한 외부 문화의 향유이다. 최근 몇 년간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USB 등 저장매체, 소형 전자기기와 태양광 에너지 등은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외부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金正은 집권 이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외부 영상물 시청이 어렵게 되었지만, 해산시의 일부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가면서 이를 접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한 영상물 속의 남한 말투와 복장이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일상생활 촬영과 개인 촬영 영상 돌려보기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 개인에 의해 촬영·유통되는 영상물들은 주민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화컨텐츠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평양시와 해산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을 관통하는 특징을 공간 분화와 시공간 압축,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젠더화된 공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상의 공간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분석하였다. 첫째,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시장화는 평양과 해산 주민들의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에 경제적 계층에 따른 공간 분화라는 흔적을 남겼다. 시장화 확산에 따른 경제적 계층의 분화와 계층 간 격차 증가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거주지역이나 주택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의 분화, 학교 내에서 교사-학생 간, 학생들 상호 간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구별짓기와 위계, 계층에 따른 특정한 문화 공간의 배제와

여가생활 차별화 등의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북한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 편입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는 시장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 압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에서 국가의 정치권력이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을 압도해왔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집뿐만 아니라 일터, 학교, 놀이공간에서도 사적 영역이 확대되고, 견고하던 공적 공간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집 밖에서 주민들 간에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적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간의 교차와 중첩, 개인들에 의한 공적 공간의 점유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북한 사회에서 공간별, 경제적 계층별, 지역별로 여성의 지위와 젠더관계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띤다. 일부 공간, 일부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대등한 관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또 다른 공간과 집단 속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가 온존하고 있다. 북한은 법·제도적으로 남녀평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에서의 성별분업이 유지되고 있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상업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과 사회적 성취가 나타나는 한편, 여전히 성차별적인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여성들의 시장활동이 증가하고 가정 경제의 주도권을 여성이 갖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가사노동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등 부부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부장적 관계가 온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성의 지위와 부부관계의 차이는 특히 계층의 차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경제적 종속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은 학교 공간, 특히 대학 내에서의 젠더 차이와 연결된다. 고등교육의 기회 자체가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많이 주어지며, 전공별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다만 고등교육 기회의 성별 격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넷째,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태양광 충전기, 소형 컴퓨터와 휴대전화,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은닉이 용이한 소형화된 저장매체 등 정보통신기기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으로 단절된 영토인 북한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외부 사회에 접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아닌 다른 사회에 대한 표상을 얻게 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상의 공간에서 경험한 바를 현실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적 사회공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억압과 통제의 질서는 가상 공간 속에서 인간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평양시와 혜산시 주민들의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공간경험을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정리하자면, 공간 분화와 시공간 압축, 공적 공간의 균열과 사적 공간의 확대, 젠더화된 공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상의 공간의 영향력 확대 등이다. 이는 한마디로, 탈중심화·탈국가화된 다양한 공간의 출현·확대·분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평양시와 혜산시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작용도 두 도시 간에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은 두 도시가 다르다. 대비하자면 ‘모범지구’ 평양시와 ‘유동하는’ 혜산시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평양시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도 ‘혁명의 수도’의 거주민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려는 측면이 강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효과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평양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의 정책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장과 타협·공조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¹⁶⁶⁾과, 인민생활 향상을 표방하는 건설 및 문화시설 확충 정책은 평양 주민들의 일터와 놀이공간을 변화시키는 기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양시에서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다.

이에 비해, 혜산시에서는 변화의 특징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혜산시에서 변화의 특징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혜산의 지리적 위치이다. 혜산은 평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에 속해있다. 혜산시의 지리적 ‘주변성’은 정치적 주변성과 혜산 주민들의 심리적 주변성-정권으로부터의 심리적 거리-을 낳는다. 주변성은 급진적 관점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와 대안을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¹⁶⁷⁾ 혜산시는 평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가장 멀지만, 외부 사회로부터의 거리는 북한의 모든 지역 중 가장 가까운 곳이다. 방향을 전환하여 생각하면, 혜산시의 주변성은 곧 중심성이 된다. 그런 점에서 혜산시의 변화는 ‘밖으로부터의 변화’이자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다.

변화의 편차는 평양시와 혜산시라는 지역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계층과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평양시와 혜산시, 두 지역 모두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 각각의 내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계층에 따라 귀속되는 공간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구별짓기는 이전 시대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귀속적 지위인 ‘성분’과 정치적 자본을 대신하여 경제적 자본이 그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이다. 또한, 이전 시기에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비교적 균질적이었다면, 현재는 각각의 영역 내에서 다양한 공간이 창출되고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공간 사이의 불균등성이 증가

¹⁶⁶⁾ 이석기 외,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p. 162.

¹⁶⁷⁾ Bell Hooks,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London: Turnaround, 1991), p. 149.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생활공간과 공간경험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학령기에 학교 공간에서 이미 경제적 계층에 따라 분화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한다. 영상 매체를 통한 상상의 공간의 경험은 특히 해산 지역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는 때로는 현실사회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연령대에 따른 공간경험의 차이가 주민들의 의식과 사회 체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향후 천착해보아야 할 연구주제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젠더화된 공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젠더 관점에서 본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은 일부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진취적인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다른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가 온존하는 혼종적 특성을 띤다.

북한 주민들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나,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주민 일상의 변화를 추동한 심층기제는 경제난 이후 2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시장화와 정보화 및 외부 정보 유입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압축적 사회변화의 결과, 이들의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공간이지만, '자본주의적 공간'이 되어간다. '근대적' 공간과 '전근대적' 공간이 섞여 있으며, 제한된 통로를 통해 전지구적인 '탈근대' 공간과 접촉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비동시성의 동시성'¹⁶⁸⁾ 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비동

¹⁶⁸⁾ 이 개념은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나타난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파시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다. 임혁백은 한국의 20세기를 관통하는 특징적 개념으로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는 "역사 단계의 단축이 전근대를 온존시킨 채, 근대에 들어가고, 근대를 완성하지 못한 채, 탈근대에 들어가는 비동시성 현상"을 한국 근대성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병하,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간의 다중성, 그리고 한국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5집 4호 (2015), pp. 246~249.

시적인 공간·시간의 동시성이 초래하는 사회적 역동에 대해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현수. 『도시, 소통과 교류의 장: 디지털시대 도시의 역할과 형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7.
- 곽차섭 엮음. 최재호 옮김. 『미시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07.
-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 서울연구원, 2015.
-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VOA, 2014.
- 김용직. 『김소일전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김정원 외. 『남북한 학제 비교 및 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4.
- 데이비드 하비 지음. 구동희·박영민 옮김.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파주: 한울, 2010.
- 박세훈 외.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 과제』. 서울: 국토연구원, 2016.
- 박영자. 『북한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 2003.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엮음.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심완석 외.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세종: 산업연구원, 2015.
- 앙리 르페브르 지음.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2005.
- _____.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
- 연합뉴스 엮음. 『북한연감, 2016』. 서울: 연합뉴스, 2016.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석기 외.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세종: 산업연구원, 2016.
- 이옥희. 『북·중 접경 지역: 전환기 북, 중 접경지역의 도시 네트워크』. 서울: 푸른 길, 2011.
-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파주: 효형, 2011.
- 임동우·라파엘 루나. 『북한 도시읽기』. 서울: 담디, 2014.
-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서울: 선인, 2005.
-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 파주: 한울, 2013.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_____. 『새로운 세대의 탄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찰스 디킨스 지음, 이은정 옮김. 『두 도시 이야기』. 서울: 펭귄클래식코리아, 2012.
- 통계청.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6.
-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엮음.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 _____. 『2017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 _____.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 평화문제연구소·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16: 량강도』.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
-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서울: 푸른길, 2013.
-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yongyang: 2015.

-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O, 2014.
- Hanson, S. and G. Pratt. *Gender, Work and Space*.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5.
- Hooks, Bell.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London: Turnaround, 1991.
- United Nations Statistic Division.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Statistic Division, 2010.

2. 논문

- 강은주. “국경 없는 국경도시, 해산시장.” 『월간북한』. 533호, 2016.
-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 2016.
- 김근식·조재욱.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 변동에의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3호, 2017.
- 김민관. “북한의 태양광 에너지 활용 현황과 전망.” 『주간KDB리포트』. 제 737호, 2017.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 김성원. “평양의 공간구조 변화와 통일 후 과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김태란. “일상생활공간의 차별적 생성과 유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현미. “성역할, 접근성, 그리고 젠더화된 공간.” 『대한지리학회』. 제42권 5호, 2007.
- 까를로 진즈부르그·까를로 보니. “이름과 시합.” 광차섭 엮음. 최재호 옮김. 『미시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07.
- 문성민·이동현. “북한금융의 특징과 제도·정책 변화.”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 문장순. “북한여성의 역할 변화와 그 요인: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남

- 북문화예술연구』. 제13권, 2008.
-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 이론』. 제21권 1호, 2012.
- 박영자. “북한의 시금용시장.”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 _____.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 박현선. “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배영애.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통일전략』. 제10권 2호, 2010.
- 서진선. “북한의 문화자본과 사회계급에 관한 연구: 술을 통한 문화적 실천과 소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신지은. “일상의 탈중심적 시공간 구조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44집 2호, 2010.
- 안숙영. “젠더의 렌즈로 본 공간, 공간의 렌즈로 본 젠더.” 『로컬리티인문학』 제5호, 2011.
- 알프 뤼트케. “일상사란 무엇이며, 누가 이끌어가는가?.” 나종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 양문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모색: 현황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3호, 2014.
- _____.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8권 1호, 2016.
- _____. “시장화 측면에서의 김정은 체제 5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6.
- 이병하.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간의 다중성, 그리고 한국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5집 4호, 2015.
- 이우영.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1호, 2008.
- 이철. “북한의 주택매매에 관한 연구: 경제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STEP

- Insight』. 173호, 2015.
- 이희영.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광주 전남방직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4권 1호, 2008.
- _____. “아날로그의 반란과 분단의 번역자들.” 『경제와 사회』. 통권 94호,
2012.
- 정은미.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
원회 엮음.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7.
- _____.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통일과평화』. 제7집 2호,
2015.
- _____.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57권 4호,
2014.
- 조정아. “북한의 교육일상연구: 과제와 접근방법.”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
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 _____.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8호, 2017.
-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제8호,
2002.
- 최진수. “현시기 기업관리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3호, 2015.
- 홍민. “북한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 정치 -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북한
도시연구팀 엮음. 『함흥과 평성-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
울아카데미, 2014.
- Gerasimova, K. “Public Privacy in the Soviet Communal Apartment.”
In *Socialist Space: Sites of Everyday Life in the Eastern Bloc*.
edited by D. Crowley & S. E. Reid. Oxford; New York: Berg
Publishers, 2002.
- Kwan, Mei-Po. “Gender differences in space-time constraint.” *Area*.
vol. 32, no. 2. 2000.
- Pickup, L. “Women’s gender-role and its influence on their travel
behaviour.” *Built Environment*. vol. 10, no. 1. 1984.

3. 기타자료

『교육신문』.
『매일경제』.
『에너지경제』.
『연합뉴스』.
『오작교뉴스』.
『KBS』.
『TV조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www.nkinfo.unikorea.go.kr>.

USKI <www.uskoreainstitute.org>.

We Are Social·Hootsuite. <www.wearesocial.com>.

북한이탈주민 인터뷰(2015.06.06.; 2015.06.20.; 2015.06.25.; 2015.07.03.;
2015.07.07.; 2015.07.16.; 2015.07.20.; 2015.07.23.; 2016.03.21.;
2016.04.06.; 2016.04.10.; 2016.04.18.; 2016.07.09.; 2016.08.06.;
2016.10.10.; 2017.04.19.; 2017.04.20.; 2017.04.27.; 2017.05.02.;
2017.05.09.; 2017.05.11.; 2017.05.12.; 2017.05.17.; 2017.05.18.;
2017.05.19.; 2017.05.20.; 2017.05.23.; 2017.05.24.; 2017.05.25.;
2017.06.04.; 2017.06.20.; 2017.07.03.; 2017.07.07.; 2017.07.14.;
2017.07.17.; 2017.07.25.; 2017.07.26.; 2017.08.08.; 2017.08.18.;
2017.10.13, 통일연구원).

곽인옥·임을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3권, 2016.

정은미.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6.

천자현.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

의 자료집, 2017.

황정미.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7.

임동우. “평양사진 카탈로그.” 평양살림전, 2017.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선, 임예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운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운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 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